

하늘나라

FEB, 2017

하늘인, 365일간의 기록

Vol.4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지 '하늘나래'는
학생 여러분들의 글과 소식으로
매년 1회 발행되는 문예지입니다.

: Contents

- 8 2016 주요행사
- 10 학교안내
- 11 인사말
- 16 세계시민교육
- 18 생각하기 표현하기
- 20 미래통일교육
- 22 하늘고 바람과 별과 시
- 24 R&E 하늘검
- 26 무한상상과정(IIP)
- 28 R&E 교재개발팀
- 30 동아리
- 38 학습동아리
- 44 체육대회
- 48 수학여행
- 54 꽃동네 봉사활동
- 58 학생회장 선거



: Contents



도서관 행사	62
학술제	64
힐링 콘서트	69
an ordinary day	72
판타스틱 듀오	76
하늘고 before & after	84
매점 특집	88
하늘고 패션제안	94
대입성공기	98
학생회	106
기숙사 특집	112
2세 특집	122
하늘 야구단	126
담임 특집 2행시	130
선생님들의 심야약국	136
화제의 영상	144
반별 한마디	146
STAFF	194

2016 주요행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식 • 리더십 교육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 중간고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동네 봉사활동, 수학여행 • 졸업앨범 촬영 • 체육대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장 선거 • 1학기 기말고사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 방학식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학식 • 2학기 학급회 조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기 중간고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학전형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수학능력시험 • 힐링 콘서트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기 기말고사 • 학술제 • 방학식



학교 안내

1. 교훈

꿈을 향한 비상, 세상을 움직이는 열정, 도전을 즐기는 배움터

2. 교화 · 교목

매화 1 예로부터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나무로, 불의에 굴하지 않는 고결한 품성의 선비를 상징합니다. 이는 매화의 맑고 청아한 기상으로 굳건하게 목표를 향하는 인천하늘인을 의미합니다.

3. 교육 목표

건학이념 : 열린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 양성

핵심가치 : 지성과 인성, 공동체적 가치, 창의적 도전, 세계인을 꿈꾸는 요람

교육목표

개 인 : 지역체의 초화로운 전인적 인간, 1에·1체

사 회 :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공동체적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간

세계화 :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인간

4. 학교장 경영방침

- 건학이념의 구현
- 꿈과 열정을 지닌 창의적, 도전적 인재로 키운다.
 -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실현하는 공동체 시민을 기른다.
 - 국가의 장래를 선도할 책무성 강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 교원상
-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신념을 가진 건강한 교원이 된다.
 - 사랑과 정성을 다해 제자를 교육하는 헌신적 교원상을 수립한다.
 -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한다.

- 학생상
-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자란다.
 -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다한다.
 - 래를 선도하는 새 시대의 선구자적 인재가 되고자 노력한다.

하늘나래 발간을 축하하며

교장 김일형

시간이 빨리 흘러, 며칠 후면 우리 인천하늘고등학교가 네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하늘고등학교에 처음 와서 참으로 순수하고 예쁜 우리 학생들을 만나, '꿈과 열정을 가진 인재, 품격과 헌신, 그리고 실력을 갖춘 글로벌리더'로의 도약 등을 목표로 내걸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가 개교한 지는 이제 햇수로 7년째에 접어드니 오랜 기간 역사와 전통을 동력으로 내세우는 다른 학교들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 덕택으로 학교는 날마다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억지로 꾸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의 '품격'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멋진 건물이나 화려한 광고들이 잠시 사람들을 현혹할 수는 있어도, 내실이 없는 학교라면 그것은 가장 먼저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신뢰와 만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고등학교의 진정한 품격과 실력, 그리고 가치는 바로 꿈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자랑스러운 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의 '기록지'와 같은 교지, '하늘나래'가 4기 학생들의 졸업에 맞춰 발간되었습니다. 추억이 많은 사람이 가장 부자라고 했던가요.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찌면 즐거움도 기쁨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지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돌이켜보면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행복을 찾지 못할 순간이 없고,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하늘가족 모두가 2016년을 기록한 교지 '하늘나래' 속에서 추억을 발견하시고, 또 앞으로의 희망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길을

학생회장 김승일

안녕하십니까,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승일입니다. 입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고3을 목전에 두고 하늘나래의 인사말을 작성하고 있네요.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슬픔, 어색한 친구들,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 하루 일과 등으로 인해 적응하기가 힘들어 입학할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1학기 학급의 부반장이 되어 학급을 위해 일하고 정기고사와 체육대회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저는 학교생활의 재미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고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저는 2학년이 되었고 지금의 1학년 후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과정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기도 했지만, 함께 노력하며 이겨나갈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후회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2학년이 되고 유일한 인문계 남학생반 2학년 1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학년 1반에서의 많은 일들과 추억은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주고, 또한 제게 많은 힘을 준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2학년이 되니 학교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바쁜 생활을 거듭해갔지만, 나름대로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학년 1학기에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로 전교회장에 당선되어 건강한 공동체와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늘고등학교를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희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전체를 살피는 통찰이 필요했던 이 시기가 아마도 제게는 가장 큰 가르침과 보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응원을 확인하고 또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같은 하늘인으로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실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추억을 기록으로 남긴 4번째 하늘나래가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훌어져가는 우리의 기쁜 날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교지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모두가 함께 꾸며나간 2016년을 되새기며 다가오는 새 학년도 더 많이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후회가 없고, 버릴 것이 없는 사랑하는 모교,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있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추억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래, 2016년을 담다

교지편집부장 김나현

안녕하세요. 하늘나래 교지편집부장 김나현입니다. 지난 여름 교지편집부장에 지원하기 전 하늘나래 3호를 다시 읽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하늘나래 4호를 마무리 짓고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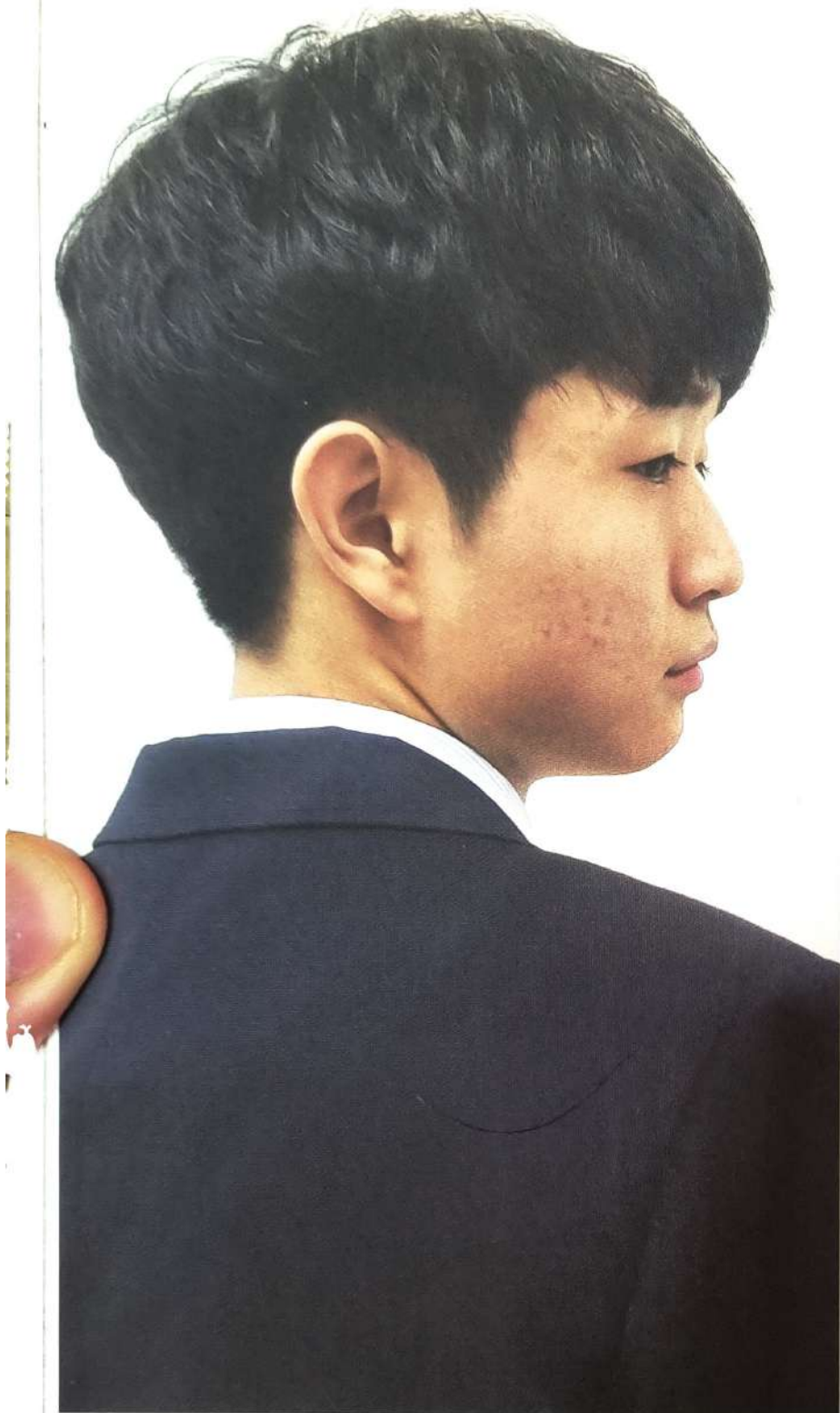
교지편집부장으로서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늘나래 1호부터 3호까지를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래 1호를 읽으면서 자랑스러운 인천하늘고의 기반이 되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하늘나래 2호를 읽으면서 입학식 후 하늘나래를 읽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기대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래 3호를 통해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소중한 기억들을 되짚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나래가 하늘고의 추억 모음집이자, 하늘고의 역사와 하늘인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은 상자이고, 누군가가 하늘고에서의 삶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하늘나래의 의미는, 저마다 다른 매력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늘나래 4호 역시 여러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기에 다양한 사진들과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촉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자료로 도움을 줬던 많은 친구들, 급작스럽게 기사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사를 써준 친구들 덕분에 1년 동안 하늘고에 있었던 다양한 행사들이 교지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하늘나래 4호가 탄생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3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지를 정성껏 작성해주신 선배님들, 사진 요청과 인터뷰 요청과 같은 여러 가지 부탁을 들어준 5기 친구들과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교지편집부를 담당하시는 김민희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이어서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교지편집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줘서 든든했던 교지편집부원 모두들, 감사합니다.

교지편집부로 활동했던 시간들은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의 하늘고를 하늘나래에 담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다시 생각나서, 그런 인연을 하늘고에서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래를 통해 2016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흙탕물에 빛을 잃고 눈물지며 떨구어도
파릇파릇 새싹이다

나 또한

곧

필 것이다



Haneul Academy Course

세계시민교육

하늘고 학생 여러분! 혹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제협력기구인 KOICA와 미래희망기구에서는 '세계시민'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최근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세계가 공동체라는 인식과 함께 전 지구적 시각을 가지고, 세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답니다. 지난 2016년, 하늘고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진정한 세계시민인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팀 임흥세 감독님, 그리고 로봇다리 김세진 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5차 세계시민교육에서는 남수단 올림픽 부위원장이자,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임흥세 감독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어요. 임흥세 감독님께서서는 축구를 통한 인생의 경험을 전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알고 지구촌 어느 곳에 있는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뜻하는 세계시민에 대해 잘 알려주셨어요. 저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나 자신의 행복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ㅎㅎ)



다음으로 수료식과 함께 진행된 10차 세계시민교육에서는 로봇다리로 유명한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김세진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일상인 것도 무엇 하나 도전이 아닌 것이 없었던 나날을 보냈던 김세진님은 4살 때부터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해왔고, 현재도 IOC 위원이라는 목표와 도전이 남아있다고 해요. 물론, 지금도 그 목표를 위해 도전을 하는 중이고요. 김세진님의 강연을 통해 저도 저의 꿈을 향해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에서 이루어졌던 조금은 특별했던 교육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샘솟지 않나요?(ㅋㅋ)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늘고 학생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함께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요!

글 · 허건민

생각하기

하늘고의 인문학트랙 강의 중 하나인 '생각하기 표현하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생표'라고 줄여 부르는 '생각하기 표현하기'는 전공연구와 같이 자신의 관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생각하고 질문거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연식 수업입니다. 여러 석학들께서 직접 하늘고등학교에 방문해 주시며, 매주 다른 주제로의 강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찾아주십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등 '생각하기'의 큰 타이틀 안에서 구체적인 주제로 나누어진 세부적인 활동들은 생각하기 표현하기를 듣는 학생들이 매주 기대와 설렘을 안고 수업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교수님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 개성 넘치고 재미있는 수업방식은 '생각하기 표현하기'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표현하기'의 장점은 훌륭한 교수님들과 그 수업방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업에 지친 우리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기 표현하기' 시간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할 때도 있고, 영화 감상문 같은 부담스럽지 않은 종류의 글을 자유롭게 쓰기도 합니다.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진 후 철학적으로 글을 쓴다든가, 문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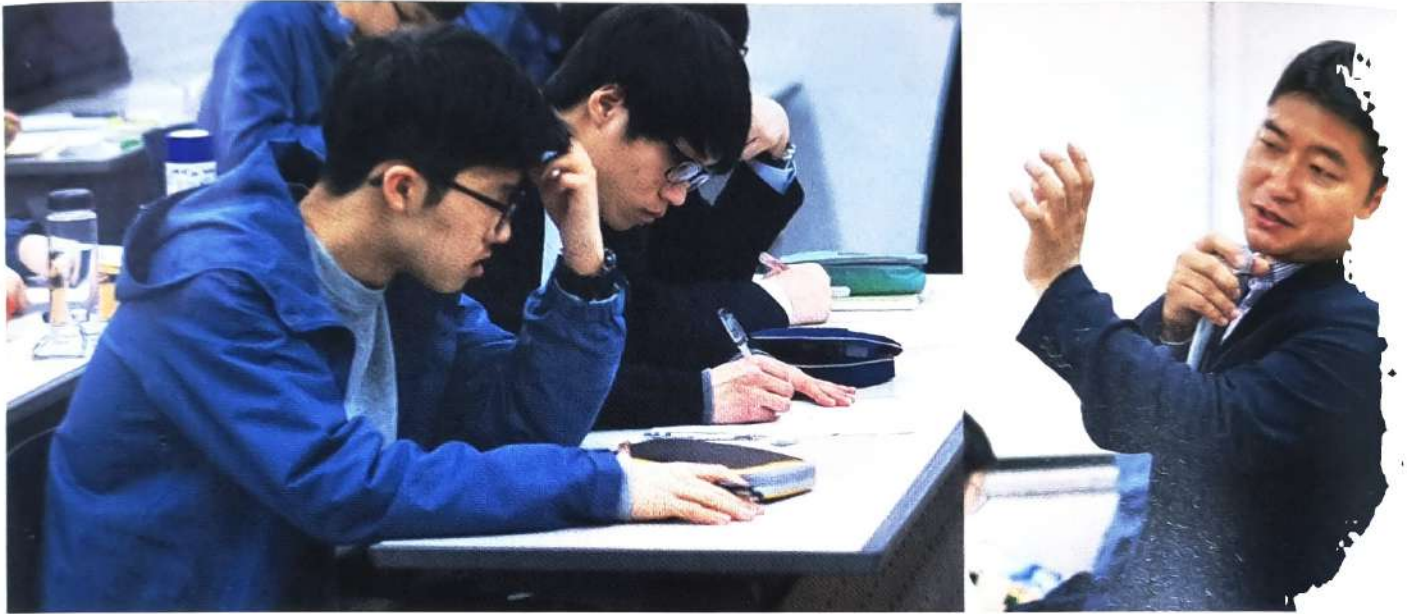


표현하기

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 교과수업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조를 나누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깊게 사고해보는 자세를 기를 수 있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여러 활동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일반적 영화 한 편을 시청한 후, 그 영화를 과학적인 영화로 만들었던 활동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해석, 시각에 따라 결과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를 보고 '빨간약을 선택할 것인가 파란약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조별 공개토론을 했던 것과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수습할 방법을 생각하여 발표하기 등을 했던 것도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의 분위기가 약간 산만하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제에 접근하여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사고의 깊이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들을 수 있어서 더 재미있고 진지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 · 김수연

미래통일교육



지난 2016년은 정치·외교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특히 남한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동북아 정세에 큰 논란이 일기도 했고, 3~4년이었던 북한의 핵실험 주기가 급속히 단축되어 작년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이 감행됐습니다. UN 안보리의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한반도 군사, 외교 문제가 극단으로 치달는 가운데 남북한 분단이 야기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북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등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몇 년 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기도 하죠.

인천하늘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사회 인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기르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미래통일교육은 북한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직접 북한의 경제·문화적 상황과 외교론, 남북 관계의 변화와 북한 정치의 이해,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북한학 전반에 걸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불어 지루하고 딱딱한 강의식 수업이 아닌 조별로 미래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지도로 그려보는 활동이나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인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 이에 더하여 '평화통일' 사행시를 지어 발표하는 활동과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 등 현장에서 즐기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각색의 활동이 함



게 진행되어 하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의 중 하나이죠. 학기말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원하는 탐구 주제를 설정하여 조별로 논문을 작성하는 활동까지 이어지니 통일 분야에 그다지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면 유익한 지식들로 머릿속이 풍부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군 이래 40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한 민족의 정과 혼을 나뉘운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자 거래이고, 남북한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사이가 서먹해져 말도 안하고 먼저 아는 체도 안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친구고 가족인데 평생 떨어져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한과 북한도 지금은 잠시 노선을 달리해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니, 서로의 오해를 풀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명하게 문제 상황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분단되어 지내온 세월만큼 점차 소통도 줄어들었고, 오해와 갈등도 늘어나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미래 기성세대로서 우리의 급선무가 무엇일지 인천하늘고등학교 미래통일교육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박동주



하늘고 바람과 별과 시

하늘고 문예창작 학습동아리 '창문'에서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2016년 12월 2일까지, 전 교생을 대상으로 시화전, '하늘고 바람과 별과 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주작대로를 지나다니시며 전시된 시화들을 감상하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것과 더불어 '하늘고 바람과 별과 시'가 개최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또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은 약 5회 정도의 학습동아리 활동 후, 기존에 준비하였던 '하늘고등학교 시화전'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포스터가 부착된 후, 학년을 넘나드는 여러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훌쩍려 펼쳐놓은 시 한 편 한 편이 들어왔습니다. 모인 시들은 총 48편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늘고 바람과 별과 시'는 문학 '경합'의 장이 아닌 문학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인 시들을 모두 시화전에 전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창문에서는 학생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모집하였고, 13명 정도의 1, 2학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자원하였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림이어야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시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시에 내포된 의미를 듣고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시화전 개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감에 촉박해진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건지 독촉을 당하는 건지 내가 그림인지 그림이 나인지 헷갈릴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완성된 시화들을 시상과 걸맞은 색의 하드보드지에 붙이고, 비닐을 잘라 손수 싹우고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이름이 적힌 카드와 창문 로고를 붙이며 아름다운 막노동의 장이 한바탕 벌어졌는데요, 카드와 로고를 붙이기 위해 수많은 풀을 희생시키는 부원들의 손끝은 곧 개최될 시화전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드디어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개최 전날, 부원들은 이젤과 악보대들을 활용하여 주작대로에 시화들을 전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하늘고 바람과 별과 시'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하는 고민, 생각 등 정신세계를 엿볼 기회라서 좋았다는 평,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의의가 크다는 평 등이 있었고, 이영종 교감 선생님 또한 "자율이 살아 숨 쉬는 배움의 공동체, 내가 교사로서 꿈꾸던 하늘고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말씀과 함께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시험 기간 이어서 학생들이 여유를 가지고 시를 감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준비 과정 중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친구들의 속마음을 진솔하고 아름다운 언어, 빛나는 그림으로 옮겨 전시할 수 있었던 '하늘고 바람과 별과 시'는 모든 하늘인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시 한편 읽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세상을 마주하고, 품 한가득 안아볼 기회입니다. 하늘나래를 읽은 후, 마음에 드는 시도 한 편 찾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 김유진, 조성현





R&E 하늘검

학기 초, 아침이면 몇 명의 학생들이 나무로 된 검을 들고 체육관으로 내려가는 모습 본 적 있지? 몇몇 애들은 검을 든 나를 보고 '오늘은 또 누구 때리러 가?' 이렇게 장난치기도 했는데 그건 다 하늘검 수련 과정의 일부였어. R&E에는 여러 팀이 있는데 각 팀에서 1~2명이 모여 A팀을 이루었고, 바로 이 A팀 학생들이 하늘검 수련 대상이었지. 하늘검 수련의 목적이 뭐냐고? 무예도보통지의 제독검을 변형하여 교육수련용 검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지. 하늘검을 배우는 첫날, 나는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선생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검도 열심히 휘둘렀어. 그랬더니 웬걸 ㄷㄷ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 팔이 내 팔이 아닌 기분이었어.

하루는 적들을 한 번에 베는 동작 '피검'을 배웠는데, 발을 땅에 모두 붙이고 한 바퀴 도는 동작이라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모두가 비틀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눈에 띄는 한사람!! 한 바퀴 도는 모습이 마치 만화에 나오는 요정과 같아 '피검요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지! 누군지 궁금하다고? 하늘검 시연 영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동안의 수련을 바탕으로 4월 29일 다큐멘터리에 들어갈 영상을 촬영했고 하늘검 수련은 모두 종료됐어. 지금부터는 함께 하늘검을 수련했던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볼까?



김남진 약 4개월간 하늘검을 수련하면서 많은 시간을 공들여 연습했었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다들 아마 촬영을 하던 날일 듯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따로 학교에 남아 운동장에서 띄약별 아래 하늘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무척 힘들었어요. 헬리캠까지 동원하여 촬영하는 것에 나름 뿌듯함과 보람도 느껴졌지만요. 처음에는 제각각, 이리저리 서로 하나도 맞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하고 서로에게 맞춰가며 전체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추억과 과정에서 느낀 보람을 생각해보면 보상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흘린 땀방울과 들인 시간은 그 가치를 이미 증명한 것 같네요.

박주성 하늘검 수련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많이 놀랐죠 ㅋㅋ 처음 표두격을 배울 때 칼이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다리도 잘 구부러지니까 계속 반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 A팀 모두가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11명이 동작 속도와 디테일을 맞추기까지 진짜 200번은 한 것만큼 연습의 강도는 아주 셧어요.

저는 특히 방직세 때 야구 배트 스윙이 나오

는 바람에 그걸 고치느라 애를 먹었는데, 친구 중에는 보폭이 작아 힘들어하던 애도 있었어요. 아, 그렇지만 개인 동작의 디테일보다 더 힘들었던 건 단체 동작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한 명이 실수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고, 다함께 속도를 맞추려니 개인 동작도 무너졌거든요. 촬영 때는 단체 동작 연습도 수없이 했어요.

유세연 하늘검을 수련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예 영상 촬영 날이었어요. 정기고사 직후라 체력은 바닥이고, 평소에도 힘들던 피검이 촬영 날에는 더 안 되고, 짹짹한 햇볕에 선크림은 녹아내리고, V자 대형은 커녕 서 있기도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도 그 동안 매일 6시 50분에 은수, 서현이랑 기숙사를 나와 꾸준히 하늘검을 수련한 결실을 얻는 날이고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한 번만 더해보자는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예림이나 룬경이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하늘고 생활에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추억인 것 같아요.

글 구예림



무한상상과정 Infinite Image Program

I.I.P.(무한상상과정)는 사회 문제를 인식한 학생들의 적극적 연구와 상상을 바탕으로, 그것을 현실화하여 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의 연구 결과와 실습을 바탕으로 '연구-활동-나눔'의 가치를 사회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2016년 사회적 기업 'FUNMOVE'의 활동을 이어받아 인천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IIP 인문팀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나요?

이주철 IIP 인문팀에서는 IIP를 대외에 홍보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필수요건인 기업체 후원을 받기 위해 제안서를 작성하는 활동, 교내외로 의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학설명회 홍보책자, 제안서 등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팀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IP 생명 기계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조형근 저희 생명 기계팀은 현재 3D 프린팅 의수보다 더 나은 의수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의수들의 구조 분석 및 실험, 소재 탐색 등을 통해 새로운 의수를 제작합니다. 조사와 검색 위주의 연구가 아닌 활동과 제작 위주의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3D 프린터 등 IIP실의 다양한 도구들을 가장 많이 쓰는 팀이기도 합니다. 의학, 화학, 신소재, 기계 등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IIIP 전자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탁경현 저희는 제작된 장치(의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코딩, 즉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필요한 회로를 설계하는 등 만들어진 장치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합니다. 컴퓨터나 전자 쪽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팀이기도 해요. 또한 납땜을 하기도 하고 코딩 능력이나 코딩에 대한 이해도 향상할 수 있는 팀입니다.

IIIP는 이과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주철 사실 저도 IIIP에 들어왔을 때 주변 친구들로부터 “너 문과인데 왜 IIIP해?”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문계 학생들도 IIIP에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의수를 만들고, 더 정교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과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수는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도 인문계 학생들의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IIP를 하면서 기억나는 점이 있나요?

탁경현 기억나는 거라면 역시 저희 손으로 직접 새벽 2시 30분까지 편무브 핸드를 만들어 보고 작동시켰던 날이죠! 난생 처음 접해보는 3D 프린터로 의수를 출력하고, 조립하고, 작동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신기했어요. 아, 후속활동 하면서 만든 원격제어장갑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봤던 것도, 만들어 놓았던 의수들로 학술제에서 부스를 운영했던 것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주철 저도 새벽 3시까지 의수를 만들었던 때가 기억에 남는데, 3D 모델링과 슬라이싱도 처음에는 복잡했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원하는 걸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프로그래밍도 어려웠지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조형근 저는 많은 활동이 기억에 남는데 모두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부스 운영을 끝마쳤을 때 정말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또 힘겹게 만든 의수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도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기억에 남네요.

글 · 홍현정



창의융합 R&E 교재개발팀

창의융합 R&E 교재개발팀은 2015년에 실시된 ‘욕설 중독 현상의 과학적 분석과 치료 방법’이라는 주제의 R&E 연구 결과물을 교육용 콘텐츠로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연계 프로그램이다. 기획 단계부터 융합 과제의 완성까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R&E의 연구 결과물과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교육 현장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교재’를 제작한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경험이었다.

2016 창의융합 R&E 교재개발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 되는 것에 주목하여, 욕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 연구는 ‘2015 인천하늘고등학교 창의융합 R&E(욕설 중독 현상의 과학적 분석과 치료 방법)’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저희 R&E팀은 ‘2015 창의융합 R&E 연구결과’를 분석한 후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

욕, 너 누구니?

우리가 욕을 접하기까지 어떻게 욕이 처음 발생했는지, 욕이 어떤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도현이는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도현이와 민희의 대화를 다시 보고, 욕의 기준이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R&E 교재개발팀은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했나요?

R&E 교재개발팀은 L(Language)팀, E(Ethics)팀, A(Art)팀, 이렇게 3팀으로 나누어 진행했어요. L(Language)팀은 초등학생의 욕설 증독 현상을 치료하기 위한 국어교육 자료집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E(Ethics)팀은 '초등학생 욕설 사용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고요. L팀과 E팀은 우선 1차 연구를 마친 후 팀에서 각각 1~2명씩 인원을 분리시켜 총 5팀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새로 이루어진 팀에서 교육과정과 내용에 맞춰 각 단원을 집필했어요. 마지막으로 A(Art)팀은 '교육 자료집의 디자인 및 학생들의 욕설에 대한 인식을 위한 삽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재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세세한 일러스트까지 모두 도맡았어요. A팀 친구들이 정말 열일 했죠~ R&E 교재개발팀이라면 모두 A팀의 큰 공로를 인정할 거예요!



R&E 연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욕설 교육 자료가 E팀, L팀의 손길을 거쳐 최종적으로 A팀이 마무리 한 순간이었어요! 저희 연구팀은 7개월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교재를 만들다 보니 결과물이 나왔을 때 보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이 나누어져 있긴 했지만 전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과정을 함께 지켜봐서 그런지 A팀에서 최종적으로 교재를 완성한 순간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꿈이 교사여서 그런지 학생들을 위한 욕설 사용 개선을 위한 교재 개발을 한 것이 정말 뜻 깊었던 활동이었어요.:D

글 · 김하은, 삽화 · 이한세



동아리

여러 가지 특색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우리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자랑거리에는 '동아리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HAM

주요 활동

아두이노 알고리즘, 회로도 만들기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편집기술 연마
리눅스를 통한 모의 서버 해킹 맛보기 활동

기대 요소

공대의 미래를 체험하는 동아리! 실력 보장!
하늘고 컴퓨터의 시작은 엔지니어와
디자인 능력을 겸비한 HAM으로부터



SOC

주요 활동

학교입학설명회 진행
ON AIR와 연합한 학교홍보영상 제작
기업들의 마케팅 방법조사, 발표

기대 요소

하늘고의 얼굴로서 입학설명회에 참여
SOC의 추억을 담은 활발한 카페 활동
홍보 관련 전시회 또는 박람회 관람 예정



VANK

주요 활동

'위안부 캠페인', '한글날 캠페인' 등 각종 캠페인 진행
독도기자단 발대식. 동해와 독도 표기오류 시정
서한문 작성, 발송

'뱅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독도 문화 대축제' 참여

기대 요소

'VANK TALK', 회식 등 모든 동아리원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 마련
국제기구 조사 후 송도 국제기구 도서관 방문 예정
영종도난민센터에 방문하여 봉사활동할 진행할
예정



Air

주요 활동

드론의 역사와 종류를 익히고 직접 날려보며 원리를 알아감
 항공 지식 강연 참여
 드론, RC헬기, 러더기 조작

기대 요소

누구보다 높이 하늘 위에 떠있는 대세 동아리
 드론, RC헬기, 러더기 조작과 모형을 변형시킨 글라이더 제작 예정
 항공 관련 사건을 소재로 한 토론과 소논문 작성 예정



Volunteacher

주요 활동

자신만의 수업을 해볼 수 있는 시범 강의!
 멘토-멘티의 교육봉사! SKY Mentoring!
 선배와의 대학탐방!

기대 요소

시범강의와 SKY Mentoring 앞으로도 쪽~
 다양한 교육 관련 캠페인 계획
 교육적 지식을 이용한 심화 논문 작성



Psycholic

주요 활동

인천외고, 미추홀외고, 국제고와 심리 동아리 연합 중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주제로 토론, 조별 스터디, 연극 진행
 필요한 지식을 사전에 제공하여 모두가 심리학 자처럼 참여함!

기대 요소

심리학 심층 개념과 직접 뽑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을 계획
 반전 매력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기다리고 있음.



Bio Farm

주요 활동

DNA 추출 및 전기영동 실험
 동물 기관 관찰 실험
 미생물 채취 및 관찰 실험

기대 요소

학술제에서 공유에 완벽 병의한 한지원, 하늘갓
 텔런트에서 제대로 매력 어필한 김윤서, 배경민
 이 우리 동아리 소속임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 계획 중



On Air

주요 활동

여러분들이 하늘고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했던 학
 교홍보영상 '하늘정보통' 제작
 페이스북 조회수 11,000건, 시교육청 공모전 수
 상에 빛나는 '수능 NICE' 제작
 학술제에서 유네스코, Archi와 함께 예약 1위 동
 아리 부스 '귀신의 집' 운영

기대 요소

단편영화, 수능 응원영상, 학교홍보영상 제작 예정
 교내의 모든 행사와 공연의 VIP석 프리패스 제
 공(권력남용)
 교내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라는 방송실 프리
 패스 제공



루미난트

주요 활동

입시 설명회 특별 개회식 공연
 영종중 찬조 공연
 학술제의 꽃 마지막 무대 장식

기대 요소

하늘고 학생들을 위한 '하늘×루미난트 버스킹'
 계획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그 남자 박형빈이 루미난
 트 소속임
 학술제가 끝나면 폐북 친구 신청이 기본 2개일
 정도로 '최강멋짐'을 탑재한 동아리



UNESCO

주요 활동

공정무역 설탕을 이용한 레몬청 캠페인! 꿀잼!
꿀맛!

헌 옷 기부 캠페인. 나눔을 실천하는 삶♡
교봉과 함께한 WORLD HOPE PROJECT!

기대 요소

하늘고 조네들이 기다린다~ 드루와 드르와♡
문과 탐 + 노래, 춤 등 다양한 끼를 가진 여신들
이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 곳
타 학교 유네스코와 연합 계획



i-Com

주요 활동

마케팅 홍보부(인문팀), 연구R&D 1부(생물/화학 중심), 연구R&D 2부(수학/물리 중심)로 구성
하나의 주제를 팀별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토론
후 논문 작성

기대 요소

매년 동아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잡지를 발간하고 있음
2016년 팀 3팀 중 2팀이 논문 제출, 2팀 모두 논문 대회에서 수상함
문이과 융합동아리로서 문이과를 아우르는 융합적 인재로 발전할 수 있음



YUPAD

주요 활동

한 명씩 돌아가며 정치, 외교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는 '라운드강의'

인천유니언 : 인천 지역 유패드 학생들과 연합 활동

중국과 일본의 정책 비교, 분석

기대 요소

계속 발전 진행될 라운드강의
올해 실패한 캠페인은 2017년에!
6기 기장이 재밌을 거라는.. 그런.. 모두의 기대



GLON

주요 활동

전공 관련 보고서 작성 및 발표
4D 프레임을 이용한 사이클로이드 제작
수학을 이용한 전통놀이 전략의 설계

기대 요소

이우진 같은 브레인 선배의 멘토링
수학의 여러 전공 분야 보고서 작성
수학 축전 참가 계획



CiPiE

주요 활동

경영팀/경제팀 분리. 관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
CiPiE 작성 논문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학술제에서 발표함
경제사, 경제사상 학습 후 토론

기대 요소

하늘고 브레인들의 모임, 학생회 13인 중 6명이 소속
교육, 법, 도서 출판의 세 분야로 나누어 경제, 경영 활동을 할 예정
다정다감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CiPiE!
Will You Join Us?



COSMOS

주요 활동

연세대학교 강사님을 초빙하여 천문학 청강
다른 동아리와 연합한 기상관측 관련연구 진행
천체관측, 천체사진 촬영, 망원경 조작

기대 요소

동아리원들과 밤샘 천체관측을 위한 캠프 예정
IIP팀과 연합한 기상관측 관련 연구 진행 예정
연세대 강연으로 배운 전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Archi

주요 활동

우드락 등을 이용한 모형 제작 중심의 활동
3D 모델링 프로그램(스케치업)을 이용, 선호하는 모양의 건축물 제작
팀별 건축가 선정, 조사/ 발표

기대 요소

요즘 대세 이지호, 김민지 학생이 우리 동아리임
모형 제작과 스케치업 활동,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 제작 계획
각종 건축전에 현장학습으로 참여 예정



ISHA

주요 활동

DNA 추출실험, 시온잉크 실험, 오후 물병 제작 등의 실험 진행
대화를 통한 주제 선정, 연구 후 소논문 작성

기대 요소

적정기술 연구 계획
'판도라' 같은 영화를 물화생지 분야로 나눠 연구하는 활동 계획
학술제를 빛낸 6기의 천송이-스틸하트 이현우가 바로 ISHA 소속!



역동(歷動)

주요 활동

역사 영화 감상회, 역사 홍보동영상 제작, 역사 테마조사 진행
매월 이 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위안부 관련 캠페인 진행
조선 왕릉(동구릉) 견학

기대 요소

듬직하고 너살 좋은 6기 기장
주요 활동 중 5개 이상 활동 예정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점수 무조건 UP!
UP!



HIM

주요 활동

한 시간 전 예약해야 즐길 수 있었던 학술제 부스 운영
 시간 기록계, 단진동 등 기초 역학 실험
 호기심 대방출 개인 논문 작성

기대 요소

기초 역학 실험 및 과학관 견학 계획
 학술제 발표를 위한 개인 논문 작성 계획
 물리융합게임으로 만드는 학술제 부스 운영 계획



연극부

주요 활동

일 년간 활동할 연극 선택, 무대 소품과 무대 배경, 배경 음악 선정
 외부의 전문 강사로부터 배운 발성법
 학술제 무대 연출 및 기획, 출연

인사말

연극부에는 현재 1학년 후배가 없어, 아쉽게도 5기를 기준으로 없어집니다. 연극을 사랑하고 꿈꾸는 후배님들이 있다면 선배들의 의지와 노력을 이어주길 바라요~



HAPEC

주요 활동

영자신문 Haneul Academy Islander 발간
 작성 기사 중 우수작은 Korea Joongang Daily 게재
 신문 표지 및 레이아웃 디자인

기대 요소

언론, 어문,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활동 기회
 창간호부터 함께 해오신 Cowie 선생님의 무한한 지원
 교내 행사 취재뿐 아닌 다양한 주제의 자유기사 작성 가능



카리타스

주요 활동

월드비전의 2016 라오스 농 지역 교육개선 사업에 참여, 교내 모금행사 진행
진로 관련 봉사활동 조사 후, 이를 연간 계획에 반영

기대 요소

Cielo와의 연합봉사 계획
4기 카리타스 선배 중 두 명이 의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짜잔)
진로가 불분명할 때, 알찬 활동을 하며 진로 고민 가능



Cielo

주요 활동

미친 실력의 간지 폭발 오케스트라 동아리
파트별 연습 및 합주로 끈끈한 협동심을 기를
학술제 개막식 공연으로 숨겨 두었던 존재감 뽐냄!

기대 요소

예쁨과 귀여움을 겸비한, 빼어난 미모의 담당 선생님
음악 봉사 및 타 동아리와의 연합 활동 계획
학업 능력과 음악적 소양 모두를 갖춘 인재임을 증명



Alchemist

주요 활동

아스피린 합성, 불타전지 실험, 아보가드로 수의 결정 실험 등
실험 기구와 용액 사용법을 익히고 과학 원리를 배움
화학 분야의 지식 확장 + 동아리원 간의 유대감 형성 도모

기대 요소

과학관 견학, 실험 교실 진행 예정
관심 분야에 대한 발표와 의견 교류의 장 마련 예정

글 · 하늘나래

학습동아리



Mentors

학습동아리 'Mentors'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와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현재 교육 실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아리입니다. 교육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토의와 성장평가제, 부진아 분리교육, 문이과 통합 등의, 현재 시행이 예정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자신의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수업의 설계와 진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심있는 과목에 대한 시범강의를 하고 서로 평가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도농교육격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느껴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도농교육격차의 해소방안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확신을 갖고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글 · 오은미



Politica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치토론 학습동아리 Politica입니다.

매일 읽는 신문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매주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4학기 동안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또한 Politica 활동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키우고 즐거운 추억 또한 쌓을 수 있었습니다♥

글 · 박세라





Alpha Generation

저희 동아리는 수학을 바탕으로 생명과 물리분야로의 확장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과학토론을 진행하여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디어들에 대한 활용 극대화와 문제의 개선점을 모색해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루미르'의 쏫블램프에 사용된 열전효과를 주제로 한 소논문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토론위주의 활동은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이론적 지식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용화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었고, 더 나아가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들에 대해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입시에서 잠시 벗어나 모두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자신의 전공을 찾고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재밌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글 · 이우진



Filmers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늘고등학교의 유일한 영상제작 동아리 'Filmers'입니다. 학습동아리 내에서 기획, 촬영,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학습동아리는 주제적인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타 학습동아리와 연합하여 '자살 예방 UCC'를 제작하고, 7초 광고제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며,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7기 여러분도 저희 동아리와 같이 특색 있는 학습동아리를 개설하여 활동한다면, 자신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 손동아, 고은비



학습동아리



하바케

저희 학습동아리의 이름은 하늘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의 줄임말인 '하바케'입니다. 저희는 평소에 의료 분야에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많이 보았지만 정작 수술할 때 중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에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기기 중 가장 흔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전기수술기와 레이저 수술기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서로 맡은 부분을 공부해서 동아리 친구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최대한 설명해주는 방식을 통해 전기수술기와 레이저 수술기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저희 모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선생님께 찾아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 두 수술기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전기수술기와 레이저 수술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학습동아리 보고서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글 · 이승미



창문

밤하늘을 자세히 올려다 볼 때면, 그 안에 숨겨진 별들이 하나 둘씩 밝은 빛을 내곤 합니다. 저희는 문학을 사랑했고,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늘고 속 숨겨진 보물들이 하나 둘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문예창작 학습동아리 창문은, 매주 일요일 아침, 서로의 시를 공유하고 감상하는 활동과 전교생이 참여하는 시화전을 개최하고 시집을 출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고 바람과 별과 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해 저희의 시와 시화전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하나 둘 맺어나가는 것, 그리고 창문 너머의 시원한 바람 한 곁과 파란 하늘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저희 창문이 시를 쓰는 이유입니다. 가슴 속에서 빛나는 시는 아무리 습한 새벽에도 찢어지지 않고, 두 눈 안에 활짝 열린 창문은 아무리 험한 밤에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글 · 박동주, 조성현



대고수학

안녕하세요. 수학 4대장 이병학, 조형근, 김기웅, 최재웅입니다. 대고수학, 거꾸로 하면 '학수고대'로 배움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주제를 선정하는데 3달 논문 쓰는데 1주일만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미분해보자', '그래프 길이의 의미를 조사해보자' 등 생각나는대로 주제를 내뱉었지만 결국엔 '학교에서의 이동의 최적화-알고리즘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당당히 금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선정하는데 3달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주제를 서둘러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논문을 써보셔서 알겠지만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조사하고 친구들끼리 토론하는 것이 결국엔 최종논문에 모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논문을 쓰는 분들은 주제가 빨리 정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병학



MEdicator

'Medical'의 'Medi-'와 'doctor', 'treatment'의 의미를 담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MEdicator'는 의학·약학 분야에 대해 탐구해나가며 더 나은 미래의 의료분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의·약학 학습동아리 MEdicator는 미래에는 자신의 아픔보다 상대방의 아픔을 더 먼저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글 · 임혜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모두 저마다의 담이 있다고들 해.
하지만...너와 나 사이에 담장은 낮았으면 좋겠어.
너와 내가 있는 곳은 지키면서도 서로 마주보며 얘기 나눌 수 있게.

낮은 담은 승승 뚫려있지 않고 막혀 있으면 좋겠어.
때로 내가 흘린 눈물이 너의 발에 닿지 않아야 하니까.

가끔 세상의 상처들로 네 담장이 점점 높아져도 나를 향한 담은
변함 없으면 좋겠어. 너의 마지막 숨결 곳이 나였으면 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모두 저마다의 담이 있다고들 하지만

너와 **나** 사이의 담장은
낮았으면 좋겠어.

계속...



하늘가족 체육대회

2016년 하늘고 체육대회는 이전의 체육대회와는 달리 '전야제'가 있었다. 체육대회의 응원전을 하루 전날 앞당긴 것이다. 덕분에 체육대회가 이틀로 연장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하늘고 친구들의 마음은 더욱 들썩였다. 저녁 8시, 하늘고 친구들의 함성과 함께 전야제가 시작되었다. 공연은 학년 순으로 진행되었다.





1학년은 1학년답게 귀엽고 깜찍한 무대를 준비해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만든 한편, 눈에 띄는 Class가 있었으니... 바로 1학년 2반이었다. 1학년 2반은 반티부터가 시선을 압도했다. SEXY라고 적혀있는 검정색 티, 그리고 하와이에 온 듯 착각하게 만드는 알록달록 꽃무늬의 플레어스커트. 1학년 2반의 도발적인 행보는 무대에서도 계속되어, 6명이서 수줍게 손을 잡고 둥그란 대형을 만들며 전주에 맞춰 하늘하늘 스커트를 움직여댔다. 그들의 움직임을 확인하자 역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1학년 6반은 귀여운 동물잠옷을 입고 등장부터 모든 이들의 탄성을 불러일으켰다. 넘나...귀여웠다...♥

뒤이어 이어진 2학년의 무대 또한 볼거리가 참 많았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부채춤을 추며 우리의 멋을 보여준 반이 있는가 하면 반티를 태권도복으로 맞춰 입고 태권무를 펼치는 반도 있었다. 또 치어리딩의 정석을 보여준 2학년 7반과 응원전의 열기를 한층 더해 준 Cheer up! 2반, 그리고 OOH-AHH하게 Oh!빠를 외치며 무대를 꾸민 3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응원전에 나선 반은 2학년 1반이었다. 하늘고 댄스부의 자존심들이 속해있는 반이라 그런지 1반은 그들만의 재능과 끼를 창작댄스로 녹여내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 30여명이 일제히 쓰고 있던 하얀 가면은 응원전 전체를 압도했다. 그들의 칼군무와 마지막에 날려버린 하얀 가면. 그들은 2학년 문과 유일 남자반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고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모인 하늘인들은 반별 퍼레이드를 통해 개성이 담긴 학급의 색깔을 확인하였고 트랙을 돌며 팀의 승리를 염원했다. 이 퍼레이드에서 눈에 띄는 학급 하나가 있었으니, 그들은 공룡 위에 올라탄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키며, 전원 on/off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선풍기 시스템의 고급진 반티-2학년 4반이었다. 그들이 트랙에 입장하는 순간, (약간의 오버를 더하자면) 쥬라기 공원이 하늘고에서 재현되는 듯한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다. Class는 남달랐다.

2016년 5월 20일. 상쾌한 바람, 넉넉한 햇살과 함께 우리들의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늘 진화하는 하늘고답게 이번 체육대회는 1,2학년 화합을 목적으로 Dream팀과 Passion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경기는 농구 경기였다. 남 학우들은 그동안 같고 닮아왔던 농구 기술들을 이번 체육대회에서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MC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함께 분위기는 고조되어 갔고, 경기 중반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몸짓과 실루엣에 우리는 더욱 환호했다. 바로 정주원 선생님께서 4반 팀에 합류하신 것이다. 엄청난 기세로 상대팀을 위협하던 정주원 선생님은 10분 정도 지났을까, 지치셨는지 급기야 뛰기를 거부하시고 걷고 계셨다. 곧 퇴장하셨지만 그는 존재만으로도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1학년 남자 농구 경기도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1반과 3반, 2반과 4반 경기에서 3반, 4반이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상대팀을 '압살'한 것이다. 그 스코어의 겹에 대해 굳이 언급은 않겠지만 그대가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이어 진행된 경기는 1학년 여자 발야구, 2학년 여자 티볼이었다. 다른 반이지만 이번 체육대회에서 같은 팀으로 묶여, 서로를 응원해주는 모습은 무척이나 훈훈한 장면이었다.



오후가 되자 씨름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친구들은 각자의 팀명인 드림! 혹은 패션!을 외쳤다. 씨름 경기만큼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또 없었을 것이다. 넘어갈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켜보며 다 같이 조마조마해 하는 것, 바로 씨름 경기의 묘미다. 2학년 여자부분에서는 의외의 출전자가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었다. 하얗고 여리여리한 그녀는 반에 나갈 사람이 없어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여러 가지 스킬을 시전하며 지켜 보는 이들을 더 놀라게 했던 그녀는 아쉽게 패하고 말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들리는 후문으로는 씨름 경기 한 시간 전부터 그녀의 아버로부터 씨름 스킬에 대해 전수 받았다고. 체육대회의 꽃이자 피날레! 일정상 흩어져있던 하늘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시간, 바로 계주다. 이번 학부모 계주는 남달랐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역전을 해낸 것이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한 학부모님. 마치 날개라도 있는 신 듯한 빠르기로 다른 경쟁자들을 가뿐하게 이기신 건, 학부모 이어달리기 코너를 가지고 있는 하늘고 체육대회만의 묘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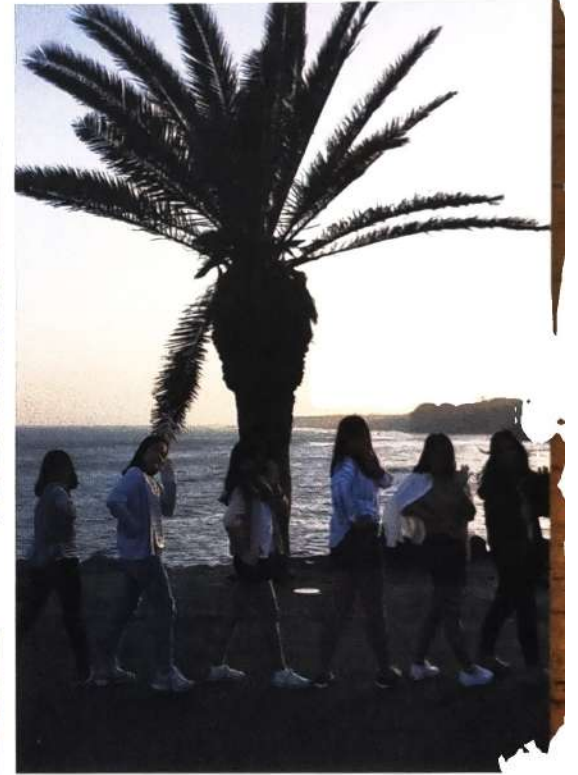
체육대회를 앞두고 몇 주간 하늘고가 참 분주했었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어 발로 뛰었던 일개미 4대 학생회와 선생님들, 학창시절 마지막 체육대회라는 생각에 더욱 더 열심히 준비했던 2학년 그리고 귀여운 1학년까지 모두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2016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이 없는 한 매년 하늘고 체육대회는 열리겠지만 5기, 6기가 뭉쳐서 만들어 냈던 우리들만의 하모니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의 푸르렀던 체육대회를 기억하며!

글 · 오서린, 마지혜



5월의 제주도는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알 수 없음'이다. 운이 좋다면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운이 좋지 않으면 습기를 잔뜩 머금은 제주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찝찝한 상태로 여행을 하거나 쏟아지는 비바람에 굴복해 호텔에만 있다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제주도 수학여행은 제주도가 가진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첫째 날, 제주도엔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도착하자마자 내리는 비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동문시장에서 군것질을 하고 쇼핑을 하다 보니 축축한 비로 인한 짜증은 다 사그라진 상태였다. 쇼핑 후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는데 예상 외로 비를 맞으면서 타는 레일바이크가 그냥 맑은 날 타는 레일바이크보다 훨씬 스릴있고 시원했다. 차라리 비가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날은 폭우가 쏟아져서 관광 일정이 모두 바뀌었던 날이다. 승마와 카트체험 대신 아쿠아플라넷에서 물고기들을 구경하고 제주 전쟁역사박물관을 견학했는데, 첫날 체력을 많이 소모했던 나에게는 오히려 더 편한 일정이었다. 저녁에 먹은 씨



푸드 뷔페 또한 만족스러웠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셋째 날은 둘째 날 못한 승마와 카트체험, 메이즈랜드 등의 일정이었다. 나는 아파서 체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말을 타고 카트를 운전하는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 매우 즐거워 보였다. 전날 뷔페에서 과식한 내 자신이 너무 미웠다. 그렇게 한탄 속에 메이즈랜드로 향했다. 메이즈랜드는 말 그대로 미로가 있는 곳인데 나와 친구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 좀 오래 걸렸다. 평소 같았으면 길을 잘못 드는 순간 주저앉았을 텐데 친구들과 함께여서 든직하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고마웠다.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을 2박 3일 동안 함께 했던 친구들 모두에게 고마웠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선생님들께도 감사했던 수학여행이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수학여행 때 가보지 못한 관광지 또한 가보고 싶다. 제주도야, 조금만 기다려줘!

글 · 마지혜



수학 여행 Busan

부산여행의 첫째 날 여행지는 바로 용궁사!! 솔직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해외도 아니고 무려 부산!씩이나 왔는데 그 영광스런 첫째 날에 절이라니... 놀 마음이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나와 친구들은 버스와 KTX열차에서 보충한 넘치는 체력으로 용궁사 안을 마음껏 뛰어다녔다. 그런데 처음에 절이라고 무시한 것과 다르게 여기저기 보이는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 그리고 절 안에도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것들이 많아 우리들은 계속 이곳저곳 구경을 하며 돌아다녔다. 특히, 용궁사에서 보이는 바다 풍경은 같은 바다인 영종도의 바다와는 차원이 다른, 색다른 풍경이었다. 바다와 바위가 맞붙어서 보여주는 심플함,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나무와 절, 탑들이 잘 어우러져 금욕적이면서 화려한 느낌을 가져다주었다. 그야말로 바다, 산맥과 바위, 마지막으로 절의 구조물들이 선보이는 환상의 collaboration!!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던 용궁사 구경에 단 한 가지 맹점이 있었다면.... 넘치는 시간! 아무리 큰 절이라고는 하지만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은 우리가 절 안의 볼만한 곳들을 모두 둘러보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게다가 몇몇 아이들은 바로 전에 태종대를 가서 바다 구경하고 왔는데 여기서도 볼거리는 바다 밖에 없으며 불멘소리를 터뜨렸다. 체력은 넘치고, 시간은 남아돌고... 점점 불만의 소리가 많아지면서 그냥 아무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생기고 또 다른 아이들은 모여 그냥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때 우연히 모인 아이들끼리 생각해낸 것은 바로 설정샷!



재미없든 재미있든 나중에 남는 것은 사진뿐이다! 마치 하나의 영화 장면같이 한껏 멋을 뽐내며 자세를 잡는 친구들. 일단은 절이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 우측에 연등을 살짝 넣어주고 서로의 기나긴 다리는 절의 작은 담 위에 올리고 각자 자신 있는 포즈를 잡습니다. 와, 정말 예술이네요^^ 저들의 표정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과연 명불허전 2학년 1반이에요!

우리는 용궁사를 끝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두 발로 직접 뛰며 용궁사를 느꼈던 우리는 가이드분의 추천으로 씨앗호떡을 먹으며 피곤과 허기를 달렸다. 그렇게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부산에서의 1일차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식당으로 달렸다.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져줄 음식은 낙새볶음이었다. 처음 이름을 들은 순간 매콤한 낙지볶음이 생각났다. 빈속에 달달하고 기름진 호떡을 먹고 덜컥거리는 버스 탓에 매콤한 음식이 생각났던 터라 낙새볶음이 우리를 달래줄 수 있는 매콤한 음식이길 희망하며 식당에 들어섰다.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앉아 머리를 냄비 앞에 가져다가 식당아주머니의 오케이 사인을 기다렸다. 아주머니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주시고 냄비뚜껑을 개봉하자마자 우리는 동시에 숟가락을 들고 덤벼들었다. 냄비에서 매콤하게 잘 졸여진 낙지와 새우, 각종 채소를 건져 밥 위에 놓고 반찬그릇에서 콩나물을 듬뿍 들어 올려 같이 비비고 그 위에 김을 뿌리면 냄새로도 비주얼상으로도 완벽했다. 그리고 그대로 입 속에 넣으면 매콤함이 입 속을 코팅하고 콩나물의 아삭함과 낙지의 쫄깃함이 지원사격을 하며 각종 채소의 향이 뒤따라왔다. 모두들 입에서 “쌈~쌈~” 소리를 내면서까지 매운 걸 참아가며 낙새볶음에 매료되어 각자의 그릇을 싹싹 비웠다. 다들 알 것이다. 매워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매콤함이었다. 마무리로 기호에 따라 음료수를 들이키면 KTX에서의 따분함과 돌풍을 뚫고 굽이굽이 걸었던 용궁사로부터 쌓인 피로가 폭죽이 되어 평평 터졌다. 밥을 다 먹고 친구들을 보니 식전까지만 해도 지칠 대로 지쳐 죽어



가던 눈이 생기를 되찾았다. 부산.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름이다. 그 명색에 맞게 낙새볶음은 부산에 대한 각자 다른 로망을 품은 우리를 뜨겁게 달아 올렸다. 단 언컨대 2박3일의 여정 중에서 낙새볶음은 우리에게 부산의 화끈함을 가장 잘 보여줬다.

여행지로 부산을 뽑은 친구들 중에서 영화 국제시장의 여운 때문에 부산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중 한 명이다. 나를 비롯한 우리 반 친구들은 BIFF 영화 거리와 국제시장(강동시장)에 가는 내내 영화 '국제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대와 설렘에 가득찼다. 버스는 용두산에서 멈췄고 우리는 걸어서 BIFF 광장까지 내려갔다.

부산으로 출발하기 전날 우리는 기숙사에서 다함께 모여 부산에 가면 뭘 먹어야 할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망설임 없이 돼지국밥집을 찾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동네 주민이 추천하는 맛집을 가야 한다며 주민 분들께 맛집을 조사하고 다니는 친화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 친구 덕분에 현지인 추천 맛집을 가게 되었고 여태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돼지국밥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모두 만장일치로 대만족이었다. 정말 어찌나 고소하고 담백한지 아직도 국밥을 먹을 때면 부산에서의 그 집이 생각난다.

튼튼하게 국밥을 먹고 우리는 밀면에 도전했다. 우리의 여행테마는 식도락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부산의 명물을 모두 먹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이번에도 친화력의 소유자인 친구의 활약으로 우리는 밀면으로 유명한 집을 알아냈다. 입구가 좁고 간판도 작아서 주변을 한참 헤맨 다음에야 식당을 찾았는데, 정말이지 숨겨진





맛집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티비에서나 보던 허름한 식당, 몇 안 되는 자리, 메뉴 2~3개로 승부를 보는 그런 식당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곳의 메뉴, 물밀면과 비빔밀면에 우리는 호기롭게 곱빼기를 도전했다. 국밥을 먹고 와서인지 우리는 평소와 달리 곱빼기를 힘겨워했다.

끝날 줄만 알았던 우리의 식도락 여정에는 아직 비빔당면이라는 커다란 산이 남아있었다.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손사래를 쳤지만 나와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비빔당면과의 혈투를 시작했다. 맛이 느껴질 리는 없었다. 단지 나의 배가 비빔당면이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다. (모두가 동의한 것이 있다면 비빔당면이 훨씬 맛있다.) 우여곡절 끝에 비빔당면의 바닥을 확인한 우리는 약속 시간이 되어 버스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배가 꺼진 우리 조원들은 상체만한 길이의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제안했다. 이젠 자존심의 문제가 돼 버려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국제시장에서 하루치의 음식을 먹은 우리는 버스가 있는 용두산에 이르렀다. 우리 식도락 원정대는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로 했고 한 친구가 “뛰면 죽겠다...”라는 말을 뱉은 바람에 우리는 점프샷을 찍게 되었다. 인간에게 한계란 없다는 사실을 공부가 아닌 배로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추억이었다.

글 · 정준호, 이동이





사랑이 사랑을 낳는 곳 여기는 음성꽃동네

1학년 첫 중간고사가 끝나고 2학년 선배들은 수학여행을,
우리 1학년들은 음성 꽃동네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입학 후 친구들과의 첫 외출에 설레면서도
선배들처럼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고 봉사를 하러 간다는 아쉬움,
출발 전 전달받은 엄격한 규정으로 인한 걱정을 안고
음성 꽃동네로 출발했다.



5월 4일. 꽃동네 첫째 날.

약 두 시간을 달려 꽃동네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입소식을 하고 몇 가지 교육을 받았다. 그 중엔 박수 세 번, ' 짹! 짹! 짹! 아리!' 라는 것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중독성에 빠져 자연스럽게 '아리!'가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소강당에 앉아 최귀동 할아버지와 오웅진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꽃동네가 설립된 배경과 역사를 알게 되었다.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네 개의 동네로 나누어 각 동네의 이장님과 반상회를 하고 2박 3일 동안 쓸 매력 있고 개성 넘치는 동네 구호를 정했다. 이후 반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던 공동체 게임까지 모두 끝마친 후, 손꼽아 기다리던 저녁식사 시간을 맞이했다. 밥풀꽃 친구들의 도움으로 맛있게 밥을 먹은 후 장애체험을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길을 걸어가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서웠다. 그저 힘들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던 장애인분들의 불편과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어둠 속에서 큰 의지가 되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작은 도움이 장애인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일 갈 봉사가 정말 기대된다!



5월 5일. 꽃동네 둘째 날.

오늘은 드디어 직접 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다! 들뜬 마음을 안고 생활관에서 교육관까지 정신없이 뛰어갔다. 봉사를 가기 전 강당에 모여 봉사할 시설에 대한 역사와 해야 하는 일, 주의사항들을 배웠다. 우리들은 희망의 집, 환희의 집, 천사의 집, 구원의 집, 애덕의 집 등 다양한 꽃동네 시설로 흩어졌는데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에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꽃동네 가족 분들을 보자 말끔히 사라졌다. 그분들을 씻겨드리고 방을 청소하는 일,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 다 드신 후에는 설거지를 하는 일까지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그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날이라 꽃동네에선 특별한 축제가 있었다. 귀여운 아이들의 율동과 노래를 보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우리들의 마음도 기뻐다. 아기천사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만난 가족과 한 일은 모두 달랐지만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따뜻한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긴 듯 짧았던 만남을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교육관에 모였다. 교육관에 모인 후 선택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죽음을 체험하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고, '노숙자 체험'을 통해 노숙자들의 입장과 그들의 마음을 느껴 볼 수 있었다. 또한 신나게 춤도 추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레크댄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들 모두가 가장 기대했던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다가왔다!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영상 편지와 파격적인 깜짝 공연을 볼 수 있었고 친구들이 준비한 레크댄스와 난타 공연들도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다. 학급끼리 원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도 하였는데 각반의 개성 넘치는 매력을 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감동적인 시간도 가졌다. 우리들의 뜨거운 열기는 그치지 않고 숙소에서도 계속되었다. 과자파티는 물론이고 베개싸움, 여러 가지 콘셉트로 사진을 찍으며 둘째 날 밤을 보냈다. 꽃동네에서의 둘째 날은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





5월 6일, 꽃동네 셋째 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던 꽃동네 생활이 벌써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3일 동안 체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소감문에 적었다. 소감문을 쓰면서 “가족 분들이 실 팔찌를 선물로 주셨다.”, “나는 아무도 뵈지 못하고 부엌에서 재료 손질만 해서 아쉽다.” 등 각자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즐겁게 감상문 쓰기를 마쳤다.

그 후 선생님이 우리나라 낙태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 실태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임신 10주차의 아기 발바닥 모양 브로치를 사면서 낙태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꽃동네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길 원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 보기 좋았다.

2박 3일 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소를 띠며 새근새근 잠든 친구들을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우리 하늘고 친구들이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작은 것도 소중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글 · 강윤서





경쟁이 아닌 축제
우리가 하늘고를
사랑하는 방법!
학생회장선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생각하면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전인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연설문을 작성하던 일, 급식실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던 지난 6월. 개교 이래 하늘고에서 있었던 학생회장 선거를 모두 포함한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치열한 경쟁전,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선거 당일과, 서로에 대한 우정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아름답고 훈훈했던 뒤편이 현장까지. 하늘고 5대 학생회장 선거의 현장에는 바로 나도 함께 서 있었다.



시작은 아주 평범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면학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 내게 다가와 먼저 말을 건 사람은 승일이었다. 사실 그 전까진 승일이와의 교차점이 딱히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승일을 따라 밖으로 나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왜 나를 부르는지에 대해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승일이 갑자기 같이 선거에 나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전까지는 '학생회장 선거'가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승일의 제안을 들으니 귓가에까지 들려온 제안을 수락하기만 하면 곧바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긴장이 되기도 하고 '학생회장 선거'를 보다 가까이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모두 출마



하지 못했는데 선거가 끝나면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감정까지 모두 털어내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1년 반 동안 하늘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감사와 사랑을 느끼던 부분을, 더 나은 학교의 발전으로 뭉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고민 끝에 승일이를 따라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학생회장 선거에는 우리 팀을 포함해 도솔, 서정훈, 정재훈, 한동훈 팀까지 총 다섯 팀이 출마를 확정지었다. 학생회장 후보 다섯 명이 다 2학년 1반이었고, 학생 부회장 후보였던 나까지 포함하면 2학년 1반에서만 선거에 출마한 인원이 여섯 명이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급에 들어오시는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선거로 인해 그동안 단합이 잘 되어왔던 우리 반이 분열될까봐 염려하시기도 했지만, 선거에서의 상대편일 뿐 우린 다 같은 학급 친구들이었기에 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뒤끝도 없는 좋은 친구들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었다. 우리 반은 공식적인 선거 유세 기간에 학급에서 '선거'를 금기어로 정하고 모두가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 결과 2학년 1반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 전과 같은 단합과 친밀함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정말 멋진 친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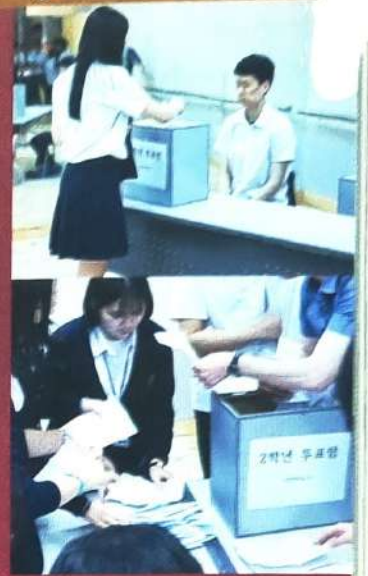


선거 유세는 각 후보들의 역량과 끼, 그리고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친구들의 의리와 흥을 제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다시 생각해봐도 다행스럽고 좋았던 것은 선거 유세라기보다 콘서트에 가까운 흥겨운 장이 펼쳐져 경쟁적인 각축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성기를 들고 '거복선'을 부르는 정훈이를 향해 모두가 엄청난 환호를 보내기도 했고, 후보들은 본인의 피켓이 아닌 다른 후보들의 피켓을 들고 유세를 하기도 했다. 당선되고 싶은 마음만 앞섰다면 다른 친구들과 헝기지 않고 자기만 돋보이고자 했을 텐데, 우리 모두는 그러지 않았고 함께 그곳에 있는 상황 자체를 즐겼던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것이 정말 기뻐고 감사했다.

모두의 축제와도 같았던 선거, 나의 고등학교 생활의 최고의 명장면과 같았던 그런 선거. 그 선거에 너무 치중한 결과, 나는 6월 학력평가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하지만 우리 팀의 당선이라는 큰 목표를 이뤘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뻐다. 그리고 함께 출마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했던 다른 팀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2016년 학생회장 선거는 나에게 부회장직을 가져다 준 것 외에도 많은 경험과 여러 생각을 하게 했던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 팀 승일리와 지수, 그리고 함께 출마했던 다른 팀 친구들과 우리 팀 선거 도우미 친구들 다시 한 번 정말 고마워!!

글 · 이주철





세상에 없던 도서관 하늘고 도서관, DPC

2016년 하늘고 도서관은 전미라 선생님의 주도 아래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보다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였다.

몇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연체클린쿠폰 행사는 건망증 때문에 책을 반납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역시나 큰 인기를 누렸고, 이번에 새로이 등장한 벌점클린쿠폰은 연체 때문에 벌점을 받아 선생님들께 혼날 뻔한 학생들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었다. 이렇게 은혜로운 행사들은 연체를 계속하는 학생들을 생각하여 1년 동안 계속 진행되었다.

하늘고에서 구독하는 잡지들은 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도서관에서는 이번에 책을 대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잡지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많이 가져간 학생들 중에는 10권도 넘는 잡지를 가져가며 행복해 한 학생도 있었다.

도서관 행사는 11월, 12월이 절정이었다. 앞서 말했던 연체클린쿠폰, 벌점클린쿠폰 행사와 '작가와와의 만남', 그리고 '너에게 고맙다'라는 신생 행사도 진행되었다. 12월에 진행된 '너에게 고맙다'라는 행사는 이번 2016년 한 해 동안 도서관 주말 운영을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진행해주셨다.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추천해주시고픈 책 5권을 추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였고, 책을 대출하는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기념 책갈피도 받을 수 있는 알찬 행사였다. 이 행사의 백미는 역시 서로에게 엽서를 쓴 학생들 중 5명을 추천해 해당 학생에게 친구가 추천하고자 한 책을 전달해주는 행사였다. 놀랍게도 당첨자 중 4명이 2-3반이었다고 하는데...!(나도 당첨됐지롱♪) 당첨자가 아니어도 엽서를 쓴 모든 학생들이 초코파이를 전달받은 훈훈한 행사였다고. 본 행사의 당첨자들은 자신에게 엽서를



써 준 친구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하늘고 도서관에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작가와의 만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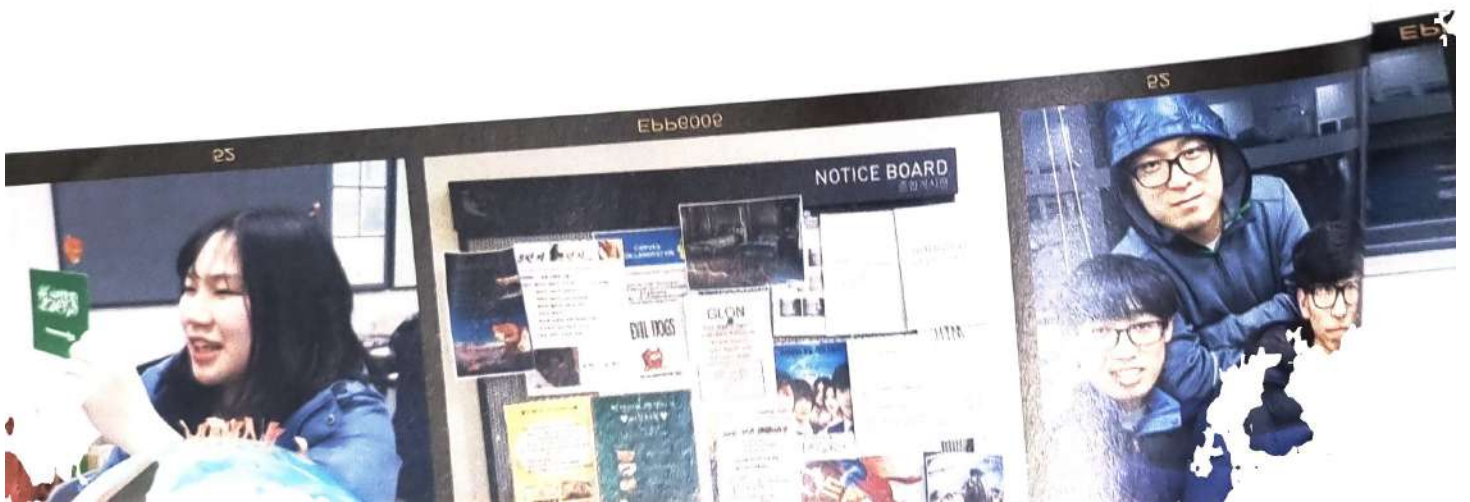
• 작가와의 만남 - 김진만 PD •

여태껏 김진명 작가님, '인사이드 아웃'의 작가인 최원호 작가님 등 저명한 분들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이번은 더욱 특별했다. 만남의 주인공이 바로 그 유명한 '김진만 PD'였기 때문이다. 김진만 PD는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등 유명 다큐멘터리를 기획, 제작하셨는데, 특히 <아마존의 눈물>은 시청률 21.5%를 기록하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의 광장도, 하늘고도 시끌벅적한 날이었다. 일주일 전부터 '김진만 PD와의 만남'을 신청한 학생들은 다큐멘터리 사전 시청 등의 미션을 미리 수행하고 5층 도서관으로 모였다. 큰 박수로 PD님을 환영하며 만남이 시작되었다. PD님은 강연 후에도 한 시간이 넘게 질문하는 학생들을 친절하게 상담해주셨다.

글 이은경





5늘 하루는 빛날 6

지난 12월 27일, 하늘고의 꽃이자 자랑이라 할 수 있는 학술제가 그 막을 열었다. 이번 학술제의 제목은 '5늘 하루는 빛날 6(爚)!' 작년의 '4기 총만 5기 발동'에 이어 기수의 숫자를 이용한 재치 넘치는 두 번째 제목이 탄생했다. 27, 28 양일에 걸쳐서 진행된 학술제에서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하늘인들의 진가가 발휘됐다.

학술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삼겹살로 채워졌다. 언제나 그렇듯 고기넘은 항상 윙윙고 여럿이서 즐기는 고기명답이다. 학생들은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너도나도 "위하여!"를 외쳤다. 그야말로 광란의 파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후에 이어진 동아리 부스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각 동아리별로 불꽃 튀는 홍보 경쟁이 시작되





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던 부스는 On Air, Archi, 하늘 유네스코가 연합한 '귀신의 집'이었다. 세 동아리가 연합한 만큼 규모는 A동 1층 복도 전체를 사용할 정도로 거대했으며, 동아리원들의 실감나는 분장은 체험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같은 A동 1층에 있던 보건실 이용자들은 끊임없는 비명소리에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고...)

28일 점심식사 후에는 개인부스가 진행되었다. 판매된 거의 모든 음식을 먹어본 결과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것은 마약볶음밥과 라볶이었다. 특히 마약볶음밥은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번 축제 최고의 가성비를 보였다. 이외에도 미술동아리 C.C의 머핀 가게에서는 머핀을 사면 순식간에 구매자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전략을 활용해, 머핀과 캐리커처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다. 그림 또한 내가 아니라고 해도 될 정도로 멋있고 예쁘니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개인부스 체험이 종료된 후에는 학술제의 꽃! 본 공연이 펼쳐졌다. 선생님과 제자가 만들어 낸 하모니 듀엣 가요제와 스포아츠 발표회, 판타스틱 듀오(남장여장 대회), 패션쇼, 하늘 갓 탤런트, 댄스부와 힙합동아리, 밴드부의 공연 등 놓치면 후회할 공연들이 펼쳐졌다.

자, 그럼 이제 학술제 공연의 관전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보자.

1. 듀엣 가요제

매일 수업에서만 듣던 그 분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노래로 들린다면? 그것도 모자라 나와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주신다면? 이러한 학생들의 염원이 모여 '듀엣 가요제'가 탄생했다. 선생님과 학생이 짝이 되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코너였는데, 노래도 노래지만 선생님들의 교복 정복 차림이 특히 관전 포인트! (최상규 선생님의 교복 차림이 그렇게 멋있으실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 상규쌤이!!!)

2. 판타스틱 듀오(남장여자, 여장남자)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1학년에서는 화제의 그 커플, '천송이'와 '김신X지은' 커플이 등장해 객석을 뒤집어 놓으셨다.



그러나 경력자 우대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역시 경험자들은 그 수준이 달랐다. 인어공주는 한 마리의 활어에 빙의해 섹시한 몸짓을 선보이고, 마고 로비를 제대로 재현한 할리퀸은 어마무시한 포스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학생들의 남장, 여장이 두려운 사람은 미리 안대와 귀마개를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3. 하늘 갓 텔런트(하.갓.텔)

소위 장기자랑 시간이라고도 불리는 시간이다. 학술제 전에 미리 팀별 신청을 받아서 오디션을 통과한 실력 있는 팀만 무대에 설 수 있어 그런지 엄청난 무대가 많았다. '하.갓.텔'의 최고 스타는 단연 2학년 7반의 '1등급 블랙피그'라 할 수 있었다. 딱딱 떨어지는 군무와 아이돌 뺨치는 춤선으로 이것이 바로 '걸 크러쉬'이다!라며 남심은 물론 여심까지 탕탕! 울킬이었다.

4. 본 공연(댄스부, 힙동, 밴드부)

마지막으로는 하늘고를 대표하는 세 개의 동아리가 공연을 펼쳤다. 댄스부는 각 학년의 춤신, 춤왕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보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춤은 방탄소년단의 '피땀눈물'로, 댄스부가 섹시미까지 접수했음을 널리 알리는 무대였다.

힙합 동아리의 무대부터는 객석이 스탠딩석으로 변해 관객들이 무대 앞까지 나가 공연자들과 함께 무대를 즐길 수 있었다. 하늘고에는 춤과 노래가 뛰어난 학생들도 많지만 랩 잘하는 친구들은 더 많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그냥 래퍼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정신줄 놓고 즐기시길!

밴드부의 공연은 역시 뭘 좀 아는 사람들답게 우리들의 떼창을 이끌어내는 노래들로 선곡을 했다. 공연에 함께 참여하며 너무 소리를 지른 나머지, 다음날 아예 목소리를 잃어버린 친구들도 많았지만 아무렴 어떠리, 마지막인 걸! 그저 즐기고, 즐기고, 즐겨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이렇듯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학술제에 임하다 보면 이틀 동안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학술제가 막을 내린다. 모두의 끼와 열정이 있었기에 후회 없는 이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한 소통의 장이자, 하늘고인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학술제가 되길 바란다.

글 · 김제아, 송나현



당연하잖아, 내겐 네가 가장 특별하다는 거

하늘고
힐링콘서트
현장



2016년 11월 23일, 대망의 11월 모의고사가 끝난 날, 긴 시험에 지친 하늘고 학생들에게 아주 달콤한 선물이 선사되었다! 바로 힐링 콘서트! 학생회 학교홍보부 부장 서정훈 학생이 차장 김보선 학생과 야심차게 준비한 힐링 콘서트(이하 힐콘)는 지친 하늘고인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이다. 힐콘은 학생들의 사연 신청을 전제로 그것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년별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전 학년이 참가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지금부터 힐콘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1학년 힐콘은 김지수 학생과 김보선 학생의 진행으로 학생들이 사전에 작성한 사연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소소한 에피소드가 가득한 생활관 파트, 달달한 연애 파트, 그리고 선배들의 깜짝 조연으로 1학년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성적, 친구 관련 파트에 각각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선생님들의 응원영상과 힙합동아리 'SPACE OUT'의 공연도 흥을 돋우었다.



2학년은 아침운동 면제권을 건 'MC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이벤트로 힐콘의 막을 열었다. 박효인MC의 이름으로 도전한 삼행시에서는 '인생 그렇게 살지마!' 등의 다소 과격하지만 재치 있는 삼행시가 눈에 띄었고, 사연 소개 코너에서는 안○진 학생의 더러움 고발 사연부터 김○영 학생의 영부인 꿈까지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존잘 이민규 학생에게 폭 빠졌다는 여학생의 사연으로 시작된 이민규 학생 인터뷰는 평소 상당히 조용하고 노잼이라던 그의 이미지와 달리, 센스 넘치는 답변의 연속으로 모두를 놀라움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또한 안재관 학생과 이재화 학생의 화해 프로젝트는 힐콘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었고, 중간 중간에 진행된 이벤트 댄스 배틀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엄청난 댄스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7반의 방탄의 열혈 팬인 두 학생은 마치 준비를 해온 듯 엄청난 무대를 선보이며 힐콘을 발각 뒤집어놓았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진행된 행사였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힐링콘서트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으로 펼쳐진 힙합동아리의 공연은 실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분위기로 새로운 랩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간 봉인돼 있었던 하늘고 '뽕'에서의 모습이 강렬하게 표출되는 것을 보며, 역시 하늘고 학생들은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열심히 놀 줄 아는 멋진 친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글 · 박지혜, 박효인, 서정훈, 신혜주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 보았네 그건 가시 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라고

장미와 가시 中 / 김승희

an Ordinary Day



24시간이 모자란 학생의 하루

기상 시간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6시 50분 언스페셜한 시각쯤 기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눈 뜨자마자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 알 배김 방지와 성장 촉진을 위해!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여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침엔 유연성 위주로 운동을 하고 나서 자음을 합니다. 운동하고 나면 잠도 깨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인강을 다운받거나, 다 못한 공부나 숙제를 하기도 하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활용하려고 노력해요.

평소 면학 시간에 하는 일을 세 가지 꼽는다면?

공부, 공부, 공부? ㅋㅋㅋㅋ 근데 진짜로 '이때만큼은 집중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해요. 면학시간에는 조는 일 없이 공부에 몰입하고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쉬는 시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할 땐 하고 쉴 땐 쉬는 게 제 철칙.

기숙사 입실 후 자신의 생활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룸메랑 스트레스를 풀거나 잠을 잡니다. 쪽 자거나 엄청 먹거나. 족발, 피자, 치킨 먹거나. 기숙사에서 다 해봤습니다.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고. 고깃이 싸나이 아닙니까!

an Ordinary Day

24시간이 모자란 교사 송민영

아침 기상시간은 언제이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침 기상 시간은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 아래 언제나 6시 30분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밥 먹고요. '아침밥=보약' 꼭 드세요.

등교 후, 수업 없는 시간 및 쉬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등교 후 당일 계획 확인! '플랜걸'이라고 불릴 정도로 계획을 세워 움직이는 걸 선호. 한 달 단위로 계획하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정주원 선생님의 카페테리아(현 2학년 탕비실)를 방문해서 먹고 싶은 거 무단취식. (ㅎㅎ)

퇴근 후 일과를 세 가지 소개해주세요

① **Work Out** 주로 운동합니다! 보통 헬스, 필라테스, 요가. 가끔 스쿼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죠.

② **Taking Classes** 최근엔 요리학원을 다녀요. 반찬 같은 거 배워서 부모님, 동료,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웬걸.. 허리만 아픈...

③ **Time with Soulmate** 김민희 선생님과 시간 보내기를 선호.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모든 걸 털어놓게 되는 민희쌤의 매력! 다들 아시죠? 제게 언니가 없었던 건(외동임) 다 민희쌤을 만나라는 깊은 뜻인 듯합니다. 언니와 함께 하는 쇼핑과 먹부림... 정말 행복하니당! 신나요~ 함께하실 분~



an Ordinary Day

재촉 말라 전해라 ~ 학생 안수진



기상 시간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6시 10~20분 기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룸메이트를 위해 기상송 따라 부르기. 신청한 곡이 나오면 랩하면서 춤도 춰줘요. 룸메들도 좋아할 걸요. 유후~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여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친구와 테라스에서 수업 내용 토론하기. 203엔 비밀조직 동탐토(동아시아탐구토론)가 존재하죠. 시험 기간엔 수진이의 일본어 특강 개설ㅋㅋㅋㅋ 점심시간엔 산책 겸 토끼들을 만나러 갑니다.

평소 면학 시간에 하는 일을 세 가지 꼽는다면?

면학 시작 후 일기를 짧게 기록. 그리고 하늘인답게 면학시간엔 면학. 문제 풀다가 화나면 굉장히 신나는 노래들으며 리듬을 타요. 요즘은 한요한 노래가 Good!

기숙사 입실 후 자신의 생활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복도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 (⇨ 친구들의 빠른 입실효과 발생) 가끔씩 Runway로 대체하기도 하죠 ㅋㅋ

an Ordinary Day

재촉 말라 전해라~ 교사 최상규

아침 기상시간은 언제이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7시 30분에 첫 번째 알람이 울리고, 35분에 두 번째 알람이 울리지요. 두 번째 알람에 깨지 못하면 지각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씻습니다. 5분이면 머리 감고, 샤워 하고, 면도까지 마칠 수 있지요. 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옷이 그날 입을 옷입니다. 준비를 마치면 7시 45분. 학교 교무실에 들어가면 8시. 이렇게 매일 여유있게 하루를 시작하지요.

등교 후, 수업 없는 시간 및 쉬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수업 없는 시간이라고 게으름을 부렸다가는 뒤통지게 되지요. 이전 시간 수업을 반성하고, 다음 시간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는다면, 야구 기사를 챙겨보고요.(LG가 이긴 다음날은 경기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지요) 헤드폰을 끼고서 책을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교류도 매 시간하고 있습니다. 후문에 보면 선생님들이 가끔 모여 있지요? 중요한 입시정보등을 교류하는 장소입니다.

퇴근 후 일과를 세 가지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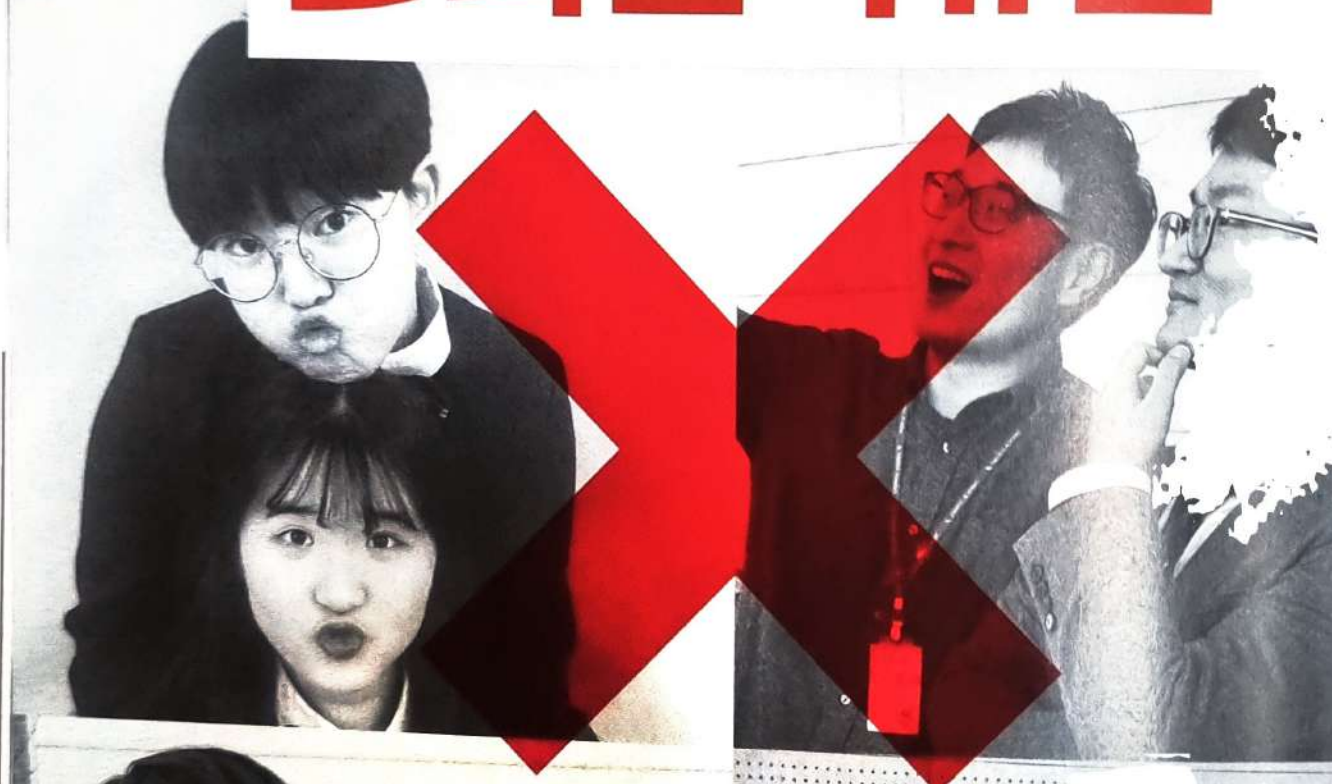
- ① 3월부터 10월까지의 야구를 봅니다. (프로야구 144경기를 모두 봅니다)
- ② 현서, 현우, 현서 엄마와 캐치볼을 합니다. 종종 축구도 합니다. 2대2. 거의 내 편이 이기지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임합니다. 2학년, 5학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 ③ 자기 전에 모두 한 침대에 누워서 1시간정도 책을 봅니다. 선생님이 보기보다 똑똑한 건 모두 독서의 힘이지요.

글 · 한동훈





판타스틱듀오



안영우 X 윤형덕



서로의 첫인상

윤형덕 제가 안영우 선생님을 보고 했던 생각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영우 선생님이 저를 보고 했을 생각은 알 거 같아요ㅋㅋ 제가 지금은 많이 온화해졌지만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땐 엄청 직설적이고 공격적이었던 거 든요. 역사교육과에는 토론이 많았는데, 그 토론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 그래서 저희 과 선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었죠(...) 아마 안영우 선생님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ㅋㅋㅋ

안영우 처음 만났을 때 윤형덕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공격적인 말투로 '보수 우파'라고 했던 기억나네요. 첫인상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말도 걸기 싫고 인사 받는 것도 싫었어요. 제 쪽에서 피해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몇 년이 지나서 학회 토론에서 윤형덕 선생님이 열심히 잘한다더라는 말을 듣고 싫었던 감정이 풀어지다가 자취방에 자주 놀러오고 제가 있는 학회로 옮기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하늘고등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지금이 아마 가장 친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의 장점

윤형덕 안영우 선생님은 역사 오타쿠예요. 심심할 때마다 네이버 캐스트나 위키 백과 역사 항목을 찾아서 들여다보는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네요. 흠. 이건 칭찬입니다. 진짜요.

안영우 학생들도 알겠지만 윤형덕 선생님은 재미있습니다. 또 무엇인가에 빠지면 정신 없이 빠져드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놓는 모습이 부러워서 보고 배우는 중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취미

윤형덕 지난 여름에 샀던 '카탄'이라는 보드 게임을 같이 해보니 재밌더라고요.
안영우 역사 이야기(정말로!)를 합니다. 최근에는 보드 게임이나 야구도 같이 하고요.

서로에게 바라는 점

윤형덕 그런 건 딱히... ㅎㅎㅎ
안영우 우리 집 청소 좀 해줘

양예영 × 이은영



서로의 첫인상

이은영 언니인가?? 포스가 느껴졌음.

양예영 지금도 예쁘지만 작년의 은영쌤은 더~ 예뻐어.. ㅋㅋㅋㅋ

서로의 장점

이은영 단호할 때 단호하고 잘해줄 때는 친근함

양예영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뒤끝이 없는 점

상대가 좋은 이유

이은영 우리 동생같다.

양예영 신기하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표정만 보고 이미 내 생각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해 ㅎㅎㅎ

함께 공유하는 취미

이은영 캘리그래피도 같이 배우고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먹으러 다니고... 수도도 떨어요ㅋㅋ
양예영 캘리그래피를 같이 배웠는데 각자 잘 쓰는 게 달라서 더 재미있었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속~ 가던 걸?

서로에게 바라는 점

이은영 야채도 많이 먹어~~~~

양예영 없어. 없어. ^^

이홍주 × 오성민



서로의 첫인상

이홍주 내 어린 시절을 보는 듯 장난끼 가득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음.
오성민 셔츠 왼쪽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안경 미니어처를 꽂고 다니는 걸로 보아 신세대의 패션을 갈망하는 인물로 판단.

서로의 장점

이홍주 딱히 없지만 꼭 하자면... 무엇이든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매우 멋짐. 심지어 못하더라도 더 잘하는 거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킴..ㅎ
오성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가끔 멋있어 보이지만, 때로는 아이같은 모습에 매력을 느낌.

상대가 좋은 이유

이홍주 거울을 보면서 나를 욕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좋다... ㅎ
오성민 공부에 대한 흥미와 꿈을 제시해주고 물리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셔서 존경스러웠음.

함께 공유하는 취미

이홍주 물리? 인생? 물리와 인생에 대해서 논합니다.
오성민 나는 고등학교 과정을 넘은 물리와 관련된 철학이야기를 했던 것 같음.

서로에게 바라는 점

이홍주 즐기면서 밝은 표정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우리 성민아,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 된다!! 성민이는 잘하고 있고, 할 수 있어!! 오성민 파이팅~!!
오성민 예전의 제 목표는 선생님 애제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언제쯤 승진할 수 있을까요?

이주철 × 이주미



서로의 첫인상

이주철 춤을 잘 춘다. 유전자가 몰빵 된 것 같다. 그리고 성격이 정말 좋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란다.

이주미 운동(특히 라크로스) 잘 하는 거, 책임감 있는 거, 동생 잘 챙겨주는 거.

상대가 좋은 이유

이주철 그냥 가족이라서 좋을 뿐,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는가.

이주미 가족이니까, 또 날 잘 챙겨주니까. 누가 날 속상하게 했던 얘기를 집에서 하면 오빠가 나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번 학술제에서 댄스부 공연할 때 배가 송한 옷을 입었는데 그때 팔짱끼고 날 계속 쳐다봤다는 걸 들었다. ㅋㅋ 사실 뒤에서 계속 챙겨주는 거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다. 오빠 땡큐

함께 공유하는 취미

이주철 요즘에는 동생 취미를 존중해주려고 해서 같이 엑소 노래도 듣고 영상도 보는데 솔직히 조금 힘들다ㅋㅋ

이주미 같이 있는 순간은 너무 많은데, 학교 얘기 하거나 친구 얘기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냥 엄청 잡다한 모든 걸 같이 한다.

서로에게 바라는 점

이주철 나보다 학교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 이제 2학년이니까 갱치지 말자ㅋ

이주미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제발 엑소 볼 때 티비 가리지 말고 노래 따라 부르지 마

이민석 × 한동훈



서로의 첫인상

이민석 공부 잘하는 범생이. 딱히 호감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냥 예의바른 친구로만 여겼고 한 5월까지 말도 별로 안 했다. 한동훈 양아치 그 자체. 입학 후 첫날, 줄인 바지를 입고 양손을 패딩 주머니에 꽂은 채 긴 다리를 쭉 펴고 의자에 걸터 앉아있었다.

서로의 장점

이민석 굉장히 세심하고 친구의 말을 정말 잘 들어준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바로 가서 상담해주고, 또 친화력이 좋고 친구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뛰어나서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친구이다. 어른들께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친구들을 잘 챙기는 멋진 녀석이다.

한동훈 이민석은 품생품사라서 허세가 넘치는 덕분에 옆에서 보는 재미가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꽤 깊다.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는 마인드로 노력해서 정말 되게 만든다. 공부를 많이 잘한다. 나에게 없는 아름다운 키를 가졌다. 보통 이상의 외모를 가진 것

같다. 파마 머리가 썩 잘 어울린다.

함께 공유하는 취미

이민석 주로 기숙사에서 같이 놀고 내가 취미로 쓰고 있는 랩 가사를 동훈이가 대중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평가해준다. 가끔 의견 차이도 생기지만, 같이 하는 것 중에 재미있게 하는 일이다.

한동훈 개는 랩하고 나는 춤추고,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떠들거나 공부하거나 하는 것 같다. 아 스킨십ㅋㅋㅋ 다른 건 아니고 이민석이 시도 때도 없이 내 볼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서로 안마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다.

서로에게 바라는 점

이민석 이대로만 쭉. 어른 돼서도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칭찬도 가끔 해주면 좋겠다는 것. 맨날 대화하면 나를 까대기 바쁘다는... ㅋㅋ

한동훈 귀찮은 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같은 맥락에서 방에서 앞머리 자르고 좀 치웠으면 좋겠다. 지금만 같아라.

김서연 × 김지수



서로의 첫인상

김서연 얼굴 하얀 돼지, 공부만 할 것 같은
소심하고 지루한 찐따 페이스였죠.

김지수 일단 쌍수가 부자연스러웠고, 이렇게
생긴 애는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얼굴이 전
체적으로 따로 노는 느낌?

서로의 장점

김서연 지수는 항상 친구들을 잘 배려해주
고, 첫인상과는 다르게 유쾌하고, 성격이 밝
은 친구예요.

김지수 저를 잘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고, 제
기분을 잘 알아서 항상 달래줘요. 귀엽고 재
밋어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친구예요.

상대가 좋은 이유

김서연 은근 돈을 기분대로 써서 옆에 있으
면 한두 개씩 얻어먹을 수 있어요 ㅋㅋㅋ
김지수 그냥 '김서연'이라서 좋아요. 제 하인
이거든요ㅋㅋㅋㅋ 먹을 거 사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ㅋㅋㅋㅋ

함께 공유하는 취미

김서연 음...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둘 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귀가일 때마다
만나서 영화 본 기억이 나네요.

김지수 맛집 찾아가는 걸 좋아해서 귀가일
때마다 만나서 가요 ㅎㅎ 저번에는 '생생정
보통'에 나온 적도 있어요ㅋㅋㅋ 또, 예쁜 곳
이나 분위기 있는 곳 가서 사진도 찍고 놀아
요!!

서로에게 바라는 점

김서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어도 친한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고, 나중에 크면 클럽
가서 맥주 한 잔 콜?! 사랑한다 친구야~
김지수 일 년 동안 내 짜증 받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있어줘....ㅋㅋㅋㅋ 사랑해

글 · 하늘나래





방탄보다 치명적이지 권재민

스스로 느낄 때 중학교 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히려 지금이 적당해보일 정도로 중학교 땐 진짜... ㅎ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어. 그래서 입학 직전에 이미지 쇄신하자고 결심을 딱 하고, 1학년 초에 나름 공부만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지. 그런데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몸이 안 따라줘서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데로 살고 있어. ㅎㅎ

당신의 또 다른 모습(지금의 모습)을 하늘고에서 찾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방탄... 진짜 심각한데... 심각성을 알면서도 안 고쳐져 ㅋㅋㅋㅋㅋㅋ

재학 중이었던 중학교와 우리 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학교 때랑 달리 하늘고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ㅋㅋ 애들이 잘 막아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예나 지금이나 친구들이랑 지내는 소소한 일상이 많아서 좋은 건 공통점인 것 같고. 특별한 행사보다 별 거 아닌 일이라도 함께 했던 것들이 더 기억에 남아.

그동안의 하늘고 생활을 떠올려볼 때 가장 흥미롭게 기억되는 건 무엇인가요?

친구들끼리 떠들고 놀 때 진짜 엄청나게 웃겼던 순간들. 가끔씩 뜬금 없이 생각나면 혼자 터져서 주체 못할 정도로 웃겨.

당신의 중학교 시절 모습과 유사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 전해주세요!

그런 친구들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주변에 냉정한 이성을 가진 친구 한 명쯤이 필요할 것 같아! 다 같이 정신줄 놓으면 안 되니까 ㅎㅎ



내가 아직도 범생이로만 보이니 **최종인**

스스로 느낄 때 중학교 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중학교 때보다 많이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아. 예전엔 학교 행사에 크게 관심 보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만 다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 하늘고에 와서는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다양한 활동들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 것 같아.

당신의 또 다른 모습(지금의 모습)을 하늘고에서 찾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과 기회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게는 스포아츠 보컬트레이닝 시간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 내 노래에 환호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해.

재학 중이었던 중학교와 우리 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중학교는 하늘고와 많이 달랐어. 공통점이라고는 댄스부 같은 스포츠 클럽과 학교 축제가 있다는 정도? 그마저도 매년 열리지 않았고 그 밖의

학교 행사가 제한적이었어. 게다가 학교 인원이 천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아. 전교생이 자신의 끼를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는 하늘고와는 많이 달랐지.

그동안의 하늘고 생활을 떠올려볼 때 가장 흥미롭게 기억되는 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번 2016년 학술제가 아닐까 싶어. 하루 동안 무려 세 번이나 무대에 올라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지겨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ㅋㅋ) 게다가 준비 기간 동안 독감에 걸려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기에 참 다사다난했던 연말로 기억에 남은 것 같아.

당신의 중학교 시절 모습과 유사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 전해주세요

하늘고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에서 한 번뿐이잖아? 대입도 중요하지만, 각종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면서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는 마지막 십대 시절을 만들어보길 바라.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



안경 벗고 존잘러 **김승일**

스스로 느낄 때 중학교 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ㅎㅎ 인정하기는 싫지만 안경 벗은 걸로 추천받았는데 뭐... 어찌겠어(ㅋㅋ) 아, 그리고 피부에 신경 쓰면서 피부가 좋아진 거야. 중학교 때, 안경도 끼고 피부도 더 안 좋았다면 지금은 조금씩 더 회복된 상태?(ㅋㅋ)

당신의 또 다른 모습(지금의 모습)을 하oge에서 찾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학년 때 스포아츠로 절권도를 했는데 해 본 학생들이면 알겠지만 이중언 선생님의 절권도는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이야. 안경을 끼면 위험해서 그것 때문에 처음 렌즈를 착용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 (ㅋㅋ)

재학 중이었던 중학교와 우리 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통점이 많진 않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활발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 가끔 보면 과

하다 싶을 만큼? ㅎㅎ 차이점을 꼽자면 하늘고등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나 스포아츠 같은 많은 활동들이 있다는 거지.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축구만 했는데 여기 와서는 축구 말고도 절권도나 라크로스, 베이스기타 등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좋아.

그동안의 하늘고 생활을 떠올려볼 때 가장 흥미롭게 기억되는 건 무엇인가요?

학생회장의 첫 번째 업무였던 학생회 조직이 가장 기억에 남아. 지금까지 지내면서 나로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ㅎㅎ)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 그로 인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소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가장 감사하기도 해.

당신의 중학교 시절 모습과 유사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 전해주세요

안경을 벗어라

AFTER

& BEFORE



내가 바로 이 구역의 미존 **박주영**

스스로 느낄 때 중학교 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애들이랑 말도 한 마디 안하고 어색함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목소리도 훨씬 커졌고 능청스럽게 장난도 받아쳐주고, 성향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당신의 또 다른 모습(지금의 모습)을 하늘고에서 찾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반 친구들의 장난이나 유언비어 등에 충격 받은 내 표정이 재밌었나봐. 장난도 당하고 나도 하면서... 친해졌어. 결정적으로, 별관에서 룸메들이랑 재밌는 사건, 사고도 많아서 이때 많이 달라졌어. 룸메들은 나에게 미안해(?)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재밌고 고마웠어!

재학 중이었던 중학교와 우리 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식이든 인성이든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하늘고등학교는 특히 사

교성, 인성 등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것 같아.

그동안의 하늘고 생활을 떠올려볼 때 가장 흥미롭게 기억되는 건 무엇인가요?

별관에서 내가 맡았던 황당한 역할들, 그리고 교지에 추천 받아 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진들을 30분 넘도록 추위에 떨며 찍은 게 가장 인상 깊어.

당신의 중학교 시절 모습과 유사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 전해주세요

그렇게 살면 추억이든 뭐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먼저 다가가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서 살아가봐. 꼭 좋은 쪽(?)으로 변하지만은 않지만, 훨씬 더 만족스러울 거야.

글 · 하늘나래

AFTER

BEFORE &

HANEUL 매점 강도 사건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인천하늘고에서는 사상 최초 매점 강도가 탄생했다. 인기 있는 제품만 골라 간 범인은 많은 하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분노를 자아냈지만, CCTV 에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은 탓에 범인 검거는 실패로 돌아가는 듯했다. 이런 특급 매점 강도를 검거하기 위해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자 한 경찰은 사건 개요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해 학교 게시판에 부착하는데…….

WANTED

사건명 | 인천 하늘고 매점 강도 사건

일 시 |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12시~12시 30분 정도로 예상됨

도난 품목 |

제1호 품목 <핫후라이드 버거>



주요 판매 시기 1교시 쉬는 시간에 완판

상세 설명 KFC 치킨을 방불케 하는 도톰한 치킨 패티와 하태핫해 한 소스의 만남이 이뤄 낸, 신(神)급 음식이라고 불리움. 양파가 흠이긴 하나, 정은비를 데려가면 양파만 골라서 먹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 자매품 | 후라이드 버거(2500원) - 핫후라이드 버거와 다르게 양상추가 들어 있으나 시들시들한 게 함정. 핫후라이드 버거인들에게는 조금 느끼할 수 있음

제2호 품목 <목우촌 닭다리>



₩ 2500

주요 판매 시기 재고가 넉넉하여 운이 좋으면 저녁까지도 남아 있음

상세 설명 편의점 닭인데 괜찮을까 싶어 조금 꺼려했던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후회하게 만드는 맛임. 분명 닭다리인데 오리고기 맛이 더 강한 건 안 비밀

제3호 품목 <치즈 떡볶이>



₩ 2600

주요 판매 시기 엄청 빠르게 소진되는 편은 아니지만 재고가 적어 먹고 싶을 때는 없음

상세 설명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를 한 떡볶이. 간식용으로는 셋이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양이 헤자스러운 게 특징. 국물 떡볶이, 치즈 떡볶이, 불닭 떡볶이 삼총사 중 가장 사랑받는 떡볶이라고 함

제4호 품목 <쁘띠첼 로열 커스터드 푸딩>



₩ 2000

주요 판매 시기 점심시간 때 즈 보면 소진된 경우가 다반사임

상세 설명 커스터드 푸딩계의 여왕. 매점에서 다양한 취식을 끝내고 후식으로 먹기 딱 좋음. 스위트소로우의 목소리를 듣는 것 마냥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

※ 자매품 | 밀크 커스터드 푸딩 or 생크림 커스터드 푸딩 + 워터젤리 (1800원) - 로열 커스터드 푸딩보다는 여운이 덜 남지만, 안 먹을 이유는 없는 맛

제5호 품목 <스팸김치볶음밥>



₩ 1600

주요 판매 시기 1교시 쉬는 시간에 완판
상세 설명 한국인은 역시 밥심! 하늘고에 와서 가끔 생각났던 엄마표 김치 볶음밥에 대한 기억을 사라지게 해준다(엄마, 미안) 전자레인지 1분이면 눈처럼 녹는 치즈는 사랑이쥬...♥

제6호 품목 <LOUX>



₩ 1500

주요 판매 시기 재고도 많지만, 팔리는 양도 많아 원하는 맛이 없을 때도 있음
상세 설명 탄산에서 느껴지는 청량한 맛이 어마어마함. 탄산이 금지된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썬키스트, 오로나민C와 함께 3대 탄산 미스터리에 등극함.

제7호 품목 <무뚝뚝 감자칩>



₩ 1500

주요 판매 시기 초반에는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널널함
상세 설명 무뚝뚝 감자칩이라니 이름이 왜 저래 했던 첫인상을 싹 뒤엎어준다고 함. 더 먹고 싶은 내 맘 모르고 바닥을 보이는 무뚝뚝한 너, 너무해! 너무해!
* 자매품 | 세븐일레븐 두꺼군 감자칩 - 레알노맛. 무뚝뚝 감자칩이 없어서 비슷하게 생겼길래 시도했다가 큰 좌절을 맛봄

제8호 품목 <녹차 아포가토>



₩ 2000

주요 판매 시기 넉넉한 재고 덕분에 상시 대기 중.

상세 설명 뜨거운 커피에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는 원래의 아포가토와는 다르게 녹차 아이스크림에 커피를 넣어 얼려버린 제품. 녹차맛이라는 점에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아이스크림 자체에 대해서는 호불호 따위 없다. 1+1/2+1도 아닌데 여학생들은 카페라도 온 듯 식후 줄곧 녹차 아포가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친구를 찾음. 허쉬/요콘을 뒤잇는 차세대 라이징 스타

제9호 품목 <불닭 볶음면+라면 속에 치즈+감동란+허니초콜릿 우유>



₩ 5100

주요 판매 시기 라면 속에 치즈와 감동란이 조기 품절되지 않는 이상 모두 재고가 넉넉함.

상세 설명 항상 옳은 조합 불닭 볶음면+치즈+감동란. 치즈와 감동란이 불닭볶음면을 달래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운 당신에게 허니 초콜릿 우유는 진정한 허니~♥가 되어줄 것임. 진정한 푸드 파이터라면 삼각김밥과 여분의 치즈를 이용해, 면 섭취 후 치즈밥 먹는 것을 잊지 않겠지?

※ 자매품 | 불닭 볶음면+치즈볶이 - 매운 맛 중화용. 비울 잘 못 맞혔다가는 매운 치즈가 되니 조심하길 권고함

예상되는 범인의 수법 : 쓰레기통에서 스팸 김치 볶음밥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의 쓰레기가 발견된 걸로 보아 직원이 30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 먹어치운 걸로 보임. 또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팸 김치 볶음밥의 밥풀 하나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직원이 오는 걸 발견한 범인이 먹던 스팸 김치 볶음밥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됨. 엘리베이터에서도 CCTV 사각지대에 서 있던 걸로 보아 평소 엘리베이터를 애용하는 것으로 추측됨.

*** 하늘고 학생들의 신속 정확한 제보 요망 ***

글 · 도깨비신부



선생님이 매점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시는 애정템은 무엇인가요?

김민연▶오로나민C, 전현무보다 내가 많이 팔았을 거야. 이거 두 병 먹으면 뽕~

김창재▶스키틀즈(아내가 좋아해서), 허쉬 밀크초콜릿(아들이 좋아해서) 선 키스트 자몽-처음 마셔보고 난 뒤 한 박스 사서 마셨음.

천도현▶누텔라 쪼꼬과자

유철우▶박카스

서연희▶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콘이 맛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동을 주는 감동란!

이은영▶감동란! 맛이 완전 감동임!

김경희▶1+1, 2+1. 초콜릿 계열. 한겨울 빼고는 허쉬아이스바

정주원▶세븐일레븐 PB 초코 아이스크림. 가격대비 최고 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안영우▶역시 아이스크림입니다.

김민희▶디샤 가나슈 초콜릿, 아이스크림 너라면 뭐든지.

이지현▶매점을 잘 가지 않습니다. 일년에 다섯 번도 안 감.



매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김민희, 정주원, 천도현, 서연희▶도움 주시는 분들의 수급 문제가 있는 건 이해하는데, 말은 편의점이나 실제로는 운영시간 등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너무 많음

유철우▶탄산수나 탄산음료를 먹게 해주세요.(그러나 교육청 지침이라 힘들겠죠? ㅜㅜ)

이은영▶선생님들에게만이라도 몰래 탄산수와 커피를 팔았으면 좋겠어요.

김지연▶1+1 또는 2+1

김경희▶1+1, 2+1 행사제품 품질 안 되게 많이 확보해주시길

황혜경▶다양한 도시락 판매!, 1교시에도 따뜻한 호빵을~





많은 것이 제한된 하늘고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지!
 자~ 먼저 하늘고에서 관심주목!
 인기스타였던 헤어스타일을 소개할게~

헤어스타일
 여자편



치리치리뱅뱅 처피뱅

뭐? 처피뱅을 한다구? 그거 연예인만 하는 거 아니야? 으음~ 그런 착각은 nono해 ^^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사랑이 못지않은 감쪽한 처피뱅은 하늘고에서도 인기지♥



샤랄라~ 여신머리

일명 여신머리라 불리는 이 머리는 (뚜둔!) 청순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는 최고야! 사내대장부처럼 살아왔던 과거는 떨쳐 버리고 조신한 이미지로 변신해보라구 >_<



걸.크.리.쉬. 숏컷!!

강렬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멋있는 매력을 뽐내는 머리!! 웬만한 동급생 남자 친구들보다 잘생김은 기본!! 멋있기만한 게 아냐~ 여자들 사이에서는 귀요미로 불리기도 하는 마성의 매력 숏컷!!



으응아~ 똥머리!!

똥머리. 어디까지 올려봤니? 평범한 똥머리부터 하늘 높이 치솟은 똥머리, 옆으로 묶는 똥머리까지! 흘러내리지 않는 머리로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고생의 상큼발랄한 매력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지.

에이스티일 남자편



하늘고 패션의 중심, 투블럭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늘고 남학생들의 머리는 투블럭으로 통일할 수도 있을 만큼 대세 중에 대세지! 웬만한 남학생들은 머리에 뚜껑을 하나씩 덮고 산다는 사실~



심쿵덕쿵 심표머리

연예인 머리의 끝판왕!! 심표머리 > < 박보검이야 뭐야~
수많은 여고생의 마음을 저격한 comma 머리. 팬심의 눈빛이든 따가운 눈초리든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어~



힙합수웨익~ 공부쟁이를 위한 뽀뽀이!!

BewhY 이게 유행이라며~
요즘 하늘고에선 주지스님도 울고 갈 뽀뽀이 머리가 유행이라구> < 디제이 다큐~ 드랍 더 비트! 힙합이 끌려? 그러면 뽀뽀이에 도전해 봐~ 또는 마음을 다잡고 고3 시기를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머리를 밀기도 하지 ㅎㅎ 힙합 swag 을 원하는 자! 공부쟁이가 되고 싶은 자, 모두 모여랏!



그 밖에...푸들인 듯 아닌 듯
선천성 뽀글이 머리,
활력남의 상징 더벅머리,
유행을 따르지 않는 깨끗한 컷,
전인교육부가 뭐임? 먹는 거임?
교칙을 화끈하게 어긴 시한부 펴 등등
짧은 머리로도 품생폼사
온갖 스타일을 하고 있는
남학생들을 볼 수 있지!



여자 교복 조합

츄파춥스 패션



겨울엔 따뜻한 게 최고지~ 그런데 위에는 후드티에 후드집업, 패딩까지 따뜻하게 입고서 아래는 체육복 반바지만을 입어서 보는 사람들이 후덜덜 춥게 만드는 패션이 있어. 일명 츄파춥스 패션!! 상의는 두꺼운 반면 얇은 하의로 막대사탕을 떠올려 붙여진 이름이지. 뭐니 뭐니 해도 겨울엔 감기조심! 보온이 최고니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자구~



음.. Where is 조끼~?

2016년 6기 내에서는 동복 정복에 조끼를 입지 않는 패션이 유행했어. 자신의 가는 허리를 드러내고 자신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패션이지! 예쁘다, 허리가 얇다 등의 반응도 있었지만 왜 조끼를 안 입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 호불호가 갈린 패션이니 다들 주의하자구~



비둘기 패션

이번엔 남녀노소 피해주었으면 하는 패션이야. 이름하여 비둘기 패션!

하늘 후드티 또는 맨투맨에 하복 체육복을 입는 조합이야! 위아래가 다 회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다리고 어디까지가 허리인지 구분할 수 없고 비둘기인가... 하는 의심을 사기도 하지. 구구.. 지나가는 하늘인들의 호기심어린 눈빛과 비웃음을 사고 싶지 않다면 비둘기 패션은 NO!



남자 교복 조합

댄디남



맨투맨만 입으면 밋밋한 민달팽이에 불과하지!!
교복 셔츠와 맨투맨의 꿀조합... 다들 하늘고에서 이
패션 한 번쯤 본 적 있지?
더 이상 니가 알던 후줄근한 내가 아냐~ 모두 맨투맨
안에 셔츠를 매치해 댄디남으로 거듭될 수 있다구><
다만,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님이신지 헛갈려서 다
른 학생들에게 인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말
고 침착하게 잘 받아줘~

겨름(겨울+여름 패션)



뭘어어~? 아직도 동복 자켓에 동복 바지를 입는 다
구?
요즘 하늘고 패피들은 동복 자켓과 하복 바지를 콜라
보한 '겨름 패션'을 즐겨 하지^-^
어색한 듯하지만 꽤나 잘 어울리는 이 조합...너희도
도전해 봐아~><

글 · 안지현, 오은미

송승원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에 합격하게 한, 남들과는 차별되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학교 활동에 주목하여 R&E활동이나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기장을 맡아 연구를 계획하고 탐구해 나간 것이 높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사항'의 모든 과목들이 제 전공적 합성과 연결된 점도 유리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은 어떻게 관리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신 중 단 한 과목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체능 과목도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늘고에는 수학에만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그 시간을 이과 기준으로 과학, 그리고 영어에 투자하는 게 내신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학교 과학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무자비하셔서(특히 생명과학) 수학 못지않은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수학과 비슷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수학에서 조금 올린 내신이 과학에서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과 과학에 같은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영어는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교재의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국어는 선생님의 말씀 안에 고난도 문제가 모두 담겨있으니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90점 이상은 꾸준히 나올 겁니다. 특히 시험 전에 던지는 말씀 모두가 선지 하나하나이니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학생부 종합이라도 대부분의 의예과는 수능 최저 등급이 3개합 3이므로 수능도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공적합성에 맞는 비교과 활동이죠. 학습동아리도 좋지만 창의융합 R&E, IIP 등은 의학과 관련이 많고 쉽게 할 수 없는 유의미한 활동이니 분명 가치가 될 겁니다.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세요!

정다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 학생부종합전형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합격하게 한, 남들과는 차별되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전공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특색 활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2학년이 돼서야 확실히 진로를 정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실험 등은 스스로 준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신 준비를 열심히 했고,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대부분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창의융합 R&E 활동에서 직접 실험을 설계, 실행해보았고 이때의 경험을 대입 자기소개서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동아리, IIP, UCC 제작 등을 통해 발휘했던 저의 자질이나, 배우고 느꼈던 점을 생명과학과 연관시켜 작성했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활동 과정에서의 느낀 점이나 스스로 해낸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좋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신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2주 전부터, (자신의 수준과 역량에 맞춰 기간을 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요한 과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향후 대입 자기소개서에 담을 교내 활동을 3가지 정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원서 작성이 한결 편할 것 같습니다.

모든 학년이 그렇지만 3학년 때는 특히 내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내신 준비에 힘을 쏟으시고, 방학 때 쯤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수시와 정시 모두 준비하시는 분들은 2학년 겨울방학 때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3학년 때 까먹지 않도록 틈틈이 보충해나가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현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과 + 학생부종합전형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과에 합격하게 한, 남들과는 차별되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먼저 드론 제작 활동과 학습동아리 운영을 들고 싶어. 첫 번째 활동은 기성품이 아니라 모든 공정을 직접 진행해 드론을 제작했던 학습동아리였어. 여러 실험적인 기능을 구현해보는 드론이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고난도의 기술을 직접 구현해보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두 번째는 기장으로 활동하며 직접 프린트도 제작해 임베디드 컴퓨터 '아두이노'에 대해 탐구해보고, 각자 작품을 제작해보는 학습동아리였어. 이 역시 난이도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스스로 작품을 제작해본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아.

내신은 어떻게 관리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 내신을 적나라하게 밝혀보자면 6.09(1-1)→5.33(1-2)→6.00(2-1)→5.28(2-2)→4.57(3-1)이야. 평균 5.2(2:2:4)야. 상승 추세라 조금 높게 평가받은 것 같아. 나랑 비슷한 내신을 가진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정시에 올인한다고 내신 아예 버리는 짓 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거기에, 공부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비교과 활동도 준비하면 금상첨화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내 내신으로도 학종 6개 중에 5개를 합격했어.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하자! 비교과 활동 시간, 의미 있게 보내고! 마지막으로 혹시 내 생기부나 활동이 궁금하거나, 학습동아리 같은 활동을 진행할 때 도움이나 지도교사가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kimdicator@gmail.com으로 연락해.



박보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 학생부종합전형

대입을 준비하는 인문계 친구들에게 조언해주세요 저는 일찌감치 학종과 정시에만 매달렸어요. 논술을 신청해서 듣던 중 승산이 없겠다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선택과 집중'을 했고, 적어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과연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문계라면 특히 수학에서 발목이 잡히는 일이 꽤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수학을 너무 일찍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해요. 저 역시 1학년 9월 모의고사 수학에서 46점이라는 점수를 받았거든요(눈물).. 제게 효과적이었던 것은, 수업 때 풀지 못했던 문제를 짬이 날 때마다 떠올리며 그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경험은 누구나 겪어 봤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고민을 습관처럼 미리 해둔 것이 시험상황에서의 후회를 줄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법'은 그 사람의 공부량과 습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에게 효과적이었던 방법만을 강요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남은 지면을 통해서는 문제 풀이의 방법보다는 그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유경험자의 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 중 받은 프린트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수능과 내신의 경계를 정해 놓고 하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비교적 암기내용이 많은 내신 시험을 보고나면 그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지요. 당시의 자료들을 모아놓지 않으면 내신 때 공부한 내용을 수능 때 다시 하는, 비효율의 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3 한 달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자기소개서 시즌에는 한 달을 아깝지 않은 것 마냥 평평 쓰게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시간낭비의 주범은 노트북과 적절한 명분이었습니다. 학과 조사를 해야 하니까,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한 문항도 채우지 못하고 하루가 끝나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미스와 멀티실이 박 터지게 짹짹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를 위해 최대한 개인 노트북의 사용량을 줄였으면 해요. 사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을 때보다 자소서 문항을 생각하며 잠들 때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지나친 감정소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말 못할 불만사항이 차곡차곡 적립되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혐오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잉은 스스로에게 손해라는 점을 모든 순간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내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기록부 내용으로 단순히 좋아 보이는 활동 여러 개가 들어있다고 해서 유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R&E 주제가 진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에서 제 생각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활동, 수업, 독서가 인과 과정을 가지고 맞물려 있었고 자기소개서는 이것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썼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해보고 빈칸을 채워나가다 보면 필요한 것, 알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우다보면 더 배워야 할 것들과 새로운 아이디어 등이 떠오르고 그에 따라 독서, 수업,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만의 스토리, 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요소와 자기소개서에 스토리텔링이 적절하게 들어간다면 구체성, 계획성, 진정성이 잘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논술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도 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과후 외에 논술전형을 따로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서술형 문제를 많이 접했는데, 서술형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그 풀이가 얼마나 '엄밀하냐'이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할 때는 개념의 정의와 각종 정리의 기본 전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풀이과정에 명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능공부를 하더라도 문제를 풀 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며 논리의 전개와 어떤 전제에 의해 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집중하면 논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논술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논술 문제는 수능과는 다른 게 사실이므로 기출 문제 및 외부의 다양한 문제 등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현승

APU

APC 아시아태평양학부(사회과학)

APU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APU는 총 3번 모집을 하는데 저는 1차로 지원을 했어요. 1차는 2학년 내신까지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영어공인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APU에서는 토플뿐 아니라 토익도 반영을 해서 토익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영문 자소서를 작성하고, 영어 면접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입시의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자신만의 스토리'예요. 저는 학생회장, 라크로스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들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예시와 스토리로 표현했습니다.

APU에서는 무엇을 전공하는지, 해당 전공을 선택하게 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APU는 APM(International Management/국제경영학부, 경영학 학사), APS(Asia Pacific Studies/아시아태평양학부, 사회학 학사) 두 학부가 있는데, 저는 APS를 선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 역사, 문화와 관련하여 관심이 많았거든요. 현재 세계의 중심은 동아시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문화와 사회, 국제관계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전공은 2학년 때 선택하게 되어 있어, 확실한 전공은 1학년을 지내보면서 결정하려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영어로 수업을 따라가면서 일본어와(필수 수업이에요) 중국어까지 배우고 싶어요. 또한 APU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미국이나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싶어요. 일본 라크로스 대학 리그에서도 우승해보고 싶고요!

이은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 정시

선배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쏟았던 노력의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학이 가장 어려웠죠. 고1 때부터 오답노트를 만들긴 했지만, 다시 보지도 않았고 답도 기억나더라고요. 정말로 아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고2말부터는 A4용지를 1/4, 1/8로 잘라서 앞에는 문제, 뒤에는 해설을 적어 카드를 만들었어요. 문제를 오리기도 했고요. 카드를 섞고 하나씩 뽑아가며 다시 풀었고, 결과를 ○, ×, ☆, △로 표시했어요. ☆, ×가 있는 카드는 반복해서 풀었고요. 하루에 풀 양을 정해놓고 풀다보니 어떤 개념을 모르는지,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수도 계속 올랐고, 수능에서도 30번을 뺀 나머지를 모두 맞힐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교육청 출제의 전국연합과 평가원 출제의 모의평가, 수능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교육청 혹은 사설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훑 틀린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잘 봐야 하는 시험은 모의평가와 수능이니 까) 고3때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을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오답정리는 당연히 필수고요!

선배님은 학종과 논술, 정시 준비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공부를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논술 공부도 틈틈이 했지만, 역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초점을 맞춘 전형은 학생부종합과 정시입니다. 그 둘에는 딱히 더 비중의 차이를 두진 않았어요. 정기고사 3주 전부터는 내신에만 몰입했고, 끝나면 모의고사 공부에 들어갔어요. 모의고사 공부할 때도 내신은 잠깐 당일 복습은 했고, 많은 도움이 됐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일단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수시를 쓸 때 과를 낮춰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다양한 활동은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김락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정시

선배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쏟았던 노력의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원래 문과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과 수학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었기에, 계속해서 난도 있는 문제를 풀며 실력을 높여갔습니다. 수능 한두 달 전부터는 매일 모의고사 한 회씩을 풀며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틀렸거나 풀이가 오래 걸렸던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 몇 번이고 복습하는 것은 수학공부에서 절대 빠뜨리지 않았던 과정이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법이 제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도 있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3학년이 되면 입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 특히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는 6명과 9명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을 때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전부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의고사 하나하나에 집착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얻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최종목표는 모의고사가 아닌 수능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공부하는 것도,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을 머릿속에만 놓아두지 않고 실제로 만들겠다는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각자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진 · 김나예



학생회 활동을 돌아보며

학생회 활동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짧은 글을 써야 한다니, 정말 이 모든 활동을 마무리 지을 때가 온 것 같아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쟁쟁한 후보군들과 함께 경쟁했던 결과였기에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큰 부담이 뒤따랐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학생회를 꾸러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일이라 학생회를 조직하고 학교의 행사와 사업을 기획해가는 과정에서 때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학생회의 리더로서, 하늘고등학교 학생의 일원으로서의 시간들은 제게 학교와 친구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만큼 행복했던 지난 8개월의 기록을 되짚어보며, 감사의 마음을 부서별로 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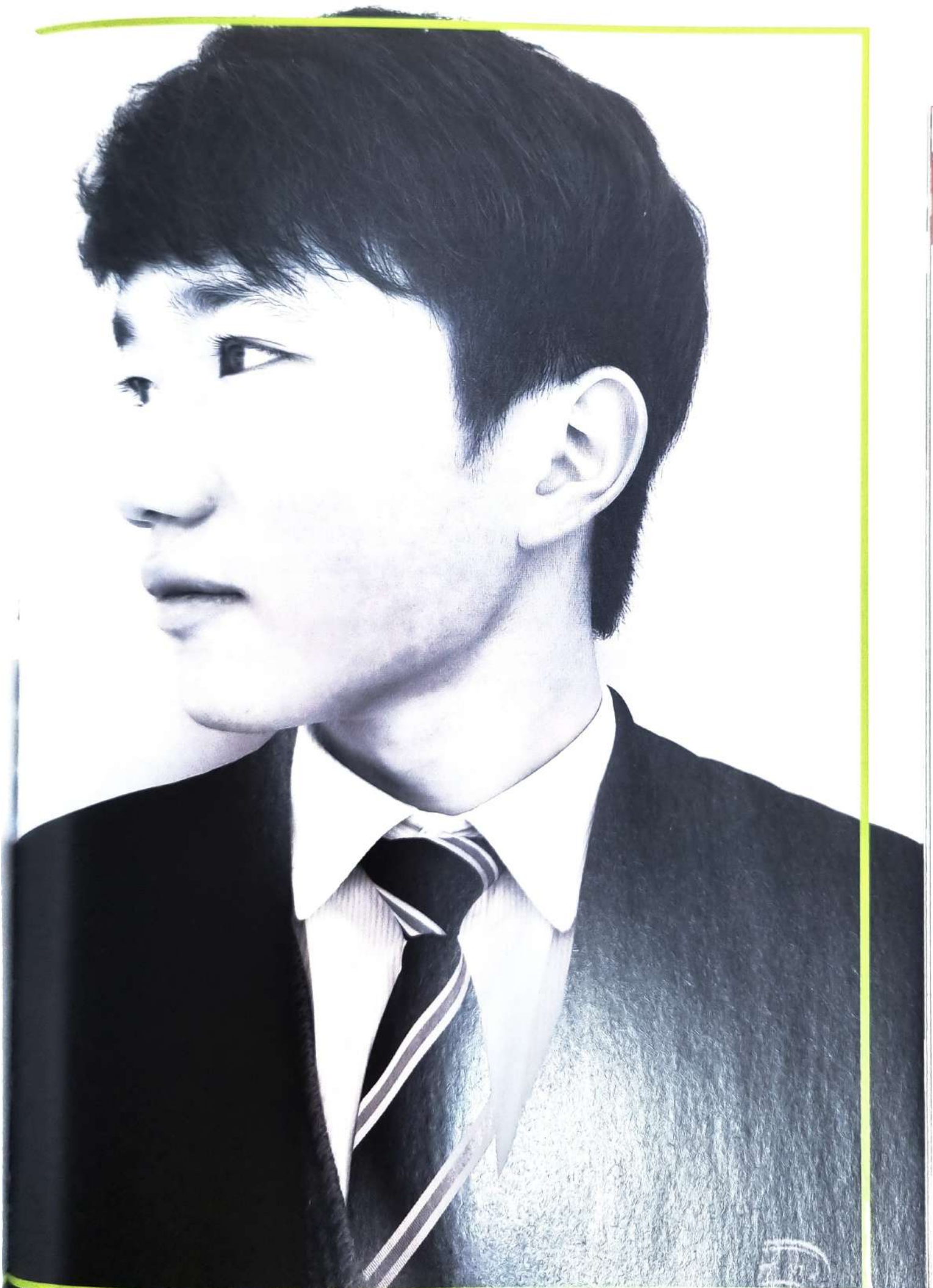
먼저 저와 함께 선거의 과정을 치르고, 또 언제나 학생회의 일이라면 땀 흘려 달리는 ‘다리’가 되어주었던 학생부회장 주철이와 지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선이 된 직후에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위로와 충고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어 제가 많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잘 따라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회의 재정이 허투루 소비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준 기획재정부 부장 선영이와 차장 선진이도 학교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학술제에서 하늘은행을 맡아 모든 재정을 관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스페셜 데이때마다 철저히 준비하는 세심함과 계획성에 감탄했고, 학생회의 한 부분을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하늘고의 만능 엔터테이너 역할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부 부장 은아와 차장 민지. 다른 부서의 프로젝트라도 그것이 문화체육부와 조금의 관련성만이라도 갖는다면 언제든지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수능 응원 플래시몹 때 많은 인원을 관리하느라 고생 많았고, 학술제 때도 대부분의 공연을 기획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잘해내주어 고맙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하늘고’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주도 원 적이 없는 것 같은 학교홍보부 부장 정훈이와 차장 보선이, 학교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나 대단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학생회를 꾸리자마자 매일 학교 홍보영상을 준비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갈 즈음에는 힐링 콘서트를, 그게 끝나니 학교 행사의 꽃 학술제를 연이어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쌓인 것 같아 행복합니다.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학교안전부 부장 솔이와 차장 민우. 화려한 밴드의 베이스 기타처럼 늘 뒤에서 학교와 학생회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자처해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일에 나서기보다 언제나 뒤에서



지지와 협력을 보태주어 학생회 일이 항상 순조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술제를 편히 즐기도록 직접 순서지를 제작해 차곡차곡 정리해두었던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모든 행사에서 항상 고생하는 학교안전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주어 고맙습니다.

학생들의 필요에 적극 지원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 학생활동지원부 부장 정주와 차장 성현이는 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었던 '지혜의 대명사'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학생회 활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솔선수범하던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쉼 없이 이어지던 학교의 행사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를 떠올리며 감사의 내용들을 전하다보니, 힐링 콘서트나 학술제뿐 아니라 할로윈 행사나 김장 등 짧은 시간이나마 학생회가 했던 많은 활동들이 떠오릅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도 힘든 일보다는 행복했던 기억들만 많이 생각나는 것도 저로서는 행운입니다. 우리 모든 학생회 친구들, 부족한 저를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주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남은 기간 학교를 위해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일하는 5대 학생회가 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김승일

4대 학생회

학생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김승일 기존에 없었던 활동들 중 하나인 할로윈 행사가 기억에 남아요. 이 활동은 전교부회장 김지수 학생과 차장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한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 좀 더 재밌는 추억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등교시간 잠깐을 위해 학생회 모두가 추운 날 학교에 일찍 와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

이주철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학술제죠! 학술제 때 학생회와 학술제 준비위원회 모두가 정말 열심히 참여했고 함께 고생했거든요. 물론, 노력의 결과물인 학술제도 성공적이어서 상당히 뿌듯했구요:) 열심히 일하느라 학술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우리 학생회와 학술제 준비위원회 친구들에게도 정말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김지수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행복한 귀교일 만들기' 행사예요. 이 활동이 처음으로 저와 학생회 차장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및 진행한 행사였는데 부모님과 이별, 일상으로의 복귀 등으로 지친 하늘고등학교의 친구들과 선배님들이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학생회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고 그걸 이겨내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김승일 다양한 친구들을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한 가지 일을 진행할 때도 여러 관점에서 일을 보며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요... ㅎ

이주철 학생회 일은 대부분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처음 시도한 행사는 더 심했죠. 일이 많고 고단한 건 당연하고 면학 시간도 많이 뺏겼어요. 그래도 행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글거리나요 ㅎㅎㅎ

김지수 학생들의 의견 반영의 과정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립을 지키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럴 때 '혼자보다는 함께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친구들과, 선배님과 선생님의 조언을 구해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두 '함께' 가는 것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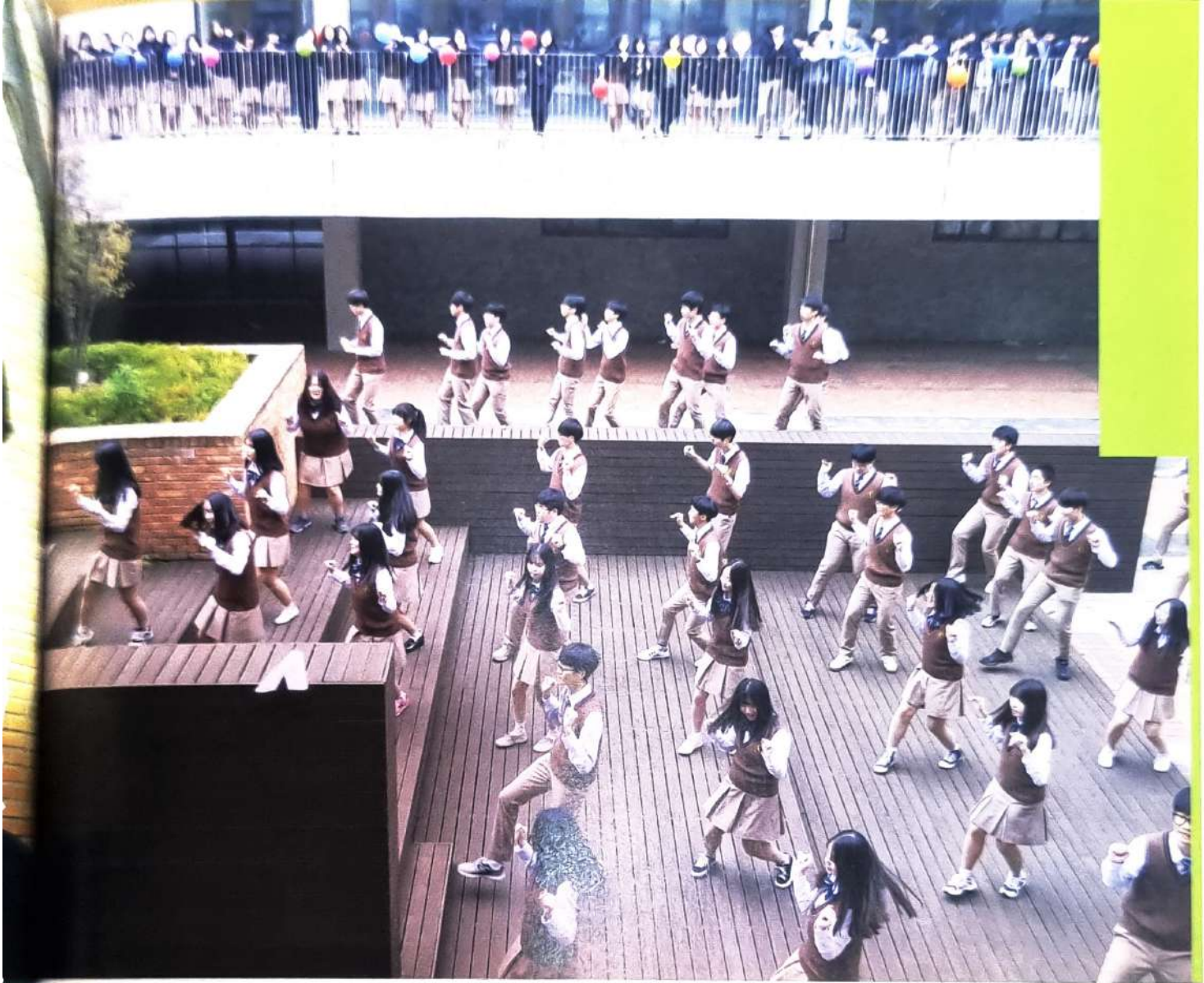


이번 학생회의 가장 주력한 학교 사업이나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승일 모든 프로젝트에 부서들이 열심히 해주었지만... 굳이 뽑자면 모든 학생회가 동원된 학술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ㅎㅎ 없는 활동 만들어서 활동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ㅋㅋㅋ

이주철 저희는 '즐거움'을 포인트로 두고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생활 같은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는 쉽게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친 학생들을 기쁘게 해주자는 취지로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귀교일에 할로윈 분장도 하고, 힐링 콘서트도 열었죠. 다들 많이 좋아해주셔서 뿌듯했어요.

김지수 저와 김승일, 이주철 선배가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항상 했던 말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학생들이 편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관 간담회, 등교 맞이 행사, 힐링 콘서트, 교복 보완 등 모두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만족도 상승을 위한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었죠.



후배들에게 하늘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준다면 어떤 학교, 어떤 학생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승일 꿈을 갖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매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고가 꿈을 가진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숙학교라 많은 힘든 점이 있을 텐데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확실히 공부하는 열정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철 '자율성'을 갖춘 학생, 그런 학생을 믿고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본인의 관심사와 강점을 알고 이를 계발하는 후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후배님들이 많아진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품격 있는 하늘고가 될 것이라 생각해요.

김지수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학생들을 믿어주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줬음 해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하늘고 학생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품격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죠?

글 · 하늘나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우리에게 집보다 더욱 친근하고 안정적인 곳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하늘고등학교 기숙사이다.
다양한 매력의 친구들과 생활하며 하루하루 시트콤 뽀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이곳,
하늘고등학교 기숙사를 가까이 들여다보자.

취식 편

오늘 먹을 사식(私食)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3년간의 학교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게 무엇인 줄 아는가? 바로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몰래 먹는 음식이다. 가끔 룸메이트가 외부음식을 반입했다는 범죄 소식을 접하면 모두가 비장한 마음, 라면을 꼭 천 손으로 그의 일탈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된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기숙사에 입실하고는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을 개시하는데, '빠른 손놀림과 입놀림'은 3년간의 기숙사 생활에서 나의 몸이 스스로 익힌 가장 자랑스러운 역량이라까.

취식 이후에도 방심하긴 아직 이르다. 생활관의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평균 이상의 후각을 보유하고 계시며 혹시라도 Mr.Moon의 레이더망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그 결과는 바로 벌점 폭탄과 생활관 사무실 직행일 것이 뻔하다.





안전 범진을 이룰 수 있는 꿀팁 대방출

1. 평소 이미지가 중요하다. 인사성이 바르고 청결한 학생이라면 취식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듯하다. 아니, 눈감아 주시는 건가? (그럴 수도)

2. 먹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호실 점호를 하시고 다른 호실로 향하시는 타이밍이다. 별점으로부터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때는 짐승들의 활발한 활동시간. 무심코 찾아온 하이에나들에게 한 점씩 뜯기다보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역시 한 점이다.(눈물) 두 번째, 소등 방송이 울린 후 선생님의 두 번째 순회 타임. 선생님께서 문을 여시면 착실한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어마무시한 발연기로 강하게 분위기 형성에 힘써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먹으면 안 된다. 선생님께서 우리 쪽 라인을 완전히 나가시는 것을 개구멍으로 확인 후 먹는다. 이 방법은 하이에나들로부터는 안전하나, 축지법을 쓰시는 사감 선생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맛을 음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또 눈물) 마지막 문제점은 이 시간에 취식을 하면 양치하기가 상당히 귀찮아지기 때문에 '5시간 후에 씻지 뭐'라는 자기위안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3. 취식 완료 후 뒤처리도 매우 중요하다. 꾸역꾸역 열심히 먹어도 냄새 때문에 걸리면 벌점 테러다. 뒤처리 방법은 매우 은밀한 고난도 스킬이니 직접 선배들을 찾아와 깊이 있는 연륜을 전수받을 것(핑긋)
(시험 문제에만 족보가 있을쏘냐! 냄새를 없애는 다양한 방법, 쓰레기를 숨기는 장소 등이 궁금하다면 선배들을 찾게나)



이사 편

공든 이삿짐도 빼야할 날이 있다



하늘고 학생들이 손에 꼽을 만큼 긴장하는 날을 들라고 한다면 '호실 추첨'을 빼놓을 수 없다. 베프 한 명이라도 룸메가 된다면 이번 추첨은 대성공!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함정이다. 거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같은 방이 되기라도 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다. 어색함으로 가득 찰 호실, 나머지 룸메이트에게만 미안할 뿐이다.

반가움과 아쉬움도 잠시. 바로 바쁘게 새로운 호실로 짐을 날라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대체 어떤 짐을 먼저 옮겨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으면서, 이사 준비를 하시던 부모님의 모습만이 아른거린다.

이제 이삿짐 싸기를 시작해보자. 몇 달 전 잃어버린 고가의 샤프가 매트리스 밑에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고수들의 호실 이사 꿀팁 대방출

1. 꿀팁이랄 게 있나. 평소에 깨끗하게 살면 이사하는 날 캐리어에 보이는 대로 급하게 처넣거나 힘겹게 운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린카드와 피자는 보너스.
2. 이사가 지연되며 힘들고 귀찮은 건, 다름 아닌 자잘한 짐 때문. 더러운 신발이며 약통과 로션통, 굴러다니는 펜과 지우개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건 기본이다. 아끼던 시계의 포장상자를 캐리어에 쑤셔 넣기도 망설여지지만 그렇다고 난리통에 바리바리 손에 들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이럴 땐 미리 매점에서 공수해온 세븐일레븐 비닐봉지가 효자노릇을 한다. 섞이거나 굴러다니지 않게 쑤 넣어 가면 끝. 시간 단축에서도 앞서간다...
3. 새로 이사할 방의 이전 주인이 매우 더럽거나 느릿느릿한 친구라면 그것도 큰 불상사이다. 그럴 땐, 큰 짐부터 옮기며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다. 수납장 속의 옷들이나 매트리스는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넣을 수 있다. 괜히 욕심을 부려 작은 짐들까지 미리 옮겨 놓으면, 덜렁대는 전 주인의 캐리어에 잘못 들어갈 수도.
4.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침대 밑과 반 년 동안 옷장 속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어대던 흔적을 없애자. 다음 입주자의 기분이 매우 불쾌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성이라면 훨씬 세밀하게 신경을 써 깨끗한 이미지를 어필하자 :)
5. 호실 이사는 곧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냄새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면, 이삿짐을 정리할 때 처음부터 잘 분류하여 정리해놓고 그것들이 다음 이사 때까지 유지되도록 힘써보자. 이 정도만 숙지하면 걱정 없이 상쾌한 이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 호실 추천 때 행운이 있기를~

괴담 편

내가 아직도 네 친구로 보이니?

기숙사를 공포에 빠뜨리는 하늘고의 괴담이 떠돌고 있다. 비슷한 날짜,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귀신 출몰 목격담들. 설마하며 믿지 않지만 새벽 1시가 넘으면 어느새 룸메들과 꺼안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진담인지는 모르겠으나 생활관 선생님마저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셨으니 겁이 나는 모습이 무턱대고 놀림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닌 듯하다. 지금부터는 겁에 질린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보라' 이야기 ①

어느 날 밤, B양이 깊은 잠에 막 빠져들고 있던 중 누군가가 깨우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B양의 몸을 흔들면서 깨운 사람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로, 자신을 '보라'라고 소개하며 놀아달라는 듯, 안 자는 거 다 안다는 듯 자신의 팔을 잡았다고 한다. B양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선생님께

들어오자 모습을 감췄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께서도 방에 들어오시기 전 아이의 모습을 한 어떤 물체를 보았다는 것!

'보라' 이야기 ②

이번엔 남학생이 겪은 '보라' 이야기.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떠들던 중 목이 말라 물을 뜨러 정수기로 향한 M군. 시계를 확인해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동안 귀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2시부터라는 것을 얼핏 들은 바 있는 M군은 서둘러 물을 뜨기 시작했는데, M군이 고개를 들자마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한다. 계단에 벌거벗고 눈이 비정상적으로 큰 여자아이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물통을 내던지고 방으로 도망쳐 친구들에게 말했으나 친구들은 믿지 않았는데,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셋이 손을 잡고 생활관 사무실로 가 CCTV를 확인했더니 그 속엔 정말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내달리는 M군의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화장실 미스터리

지난 학기 이야기이다. 항상 저녁시간에 기숙사를 들르던 A양. 어느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쪽 화장실의 불만 계속 켜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끄고 나왔으나 매번 그러자 보다 못한 A양은 룸메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아무도 저녁시간에 기숙사를 들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무서워진 네 명의 친구들이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선생님마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시고 두려워하셨다는 이야기. 누군가의 실수였던 건지 아니면 귀신의 소행일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의문의 남성 등산화

신발 정리를 하려고 비어 있던(비어 있어야만 하는!!) 신발장 위칸을 열어본 C양. 그 순간 평소에 없던 묵직한 등산화가 눈에 들어왔다.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 더욱 괴리감과 공포감을 느꼈고 놀란 C양은 바로 생활관 선생님께 달려갔으나 정체를 밝히지 못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어 있었기에 열어본 신발장 위칸. 여학생들의 호실에 갑자기 나타난 남성 등산화의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의 비명소리

L군과 H군은 룸메였다. 둘은 다음 날이 문학 시험이라 새벽까지 창문을 연 채 침대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당시 시각은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야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여자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심심했던 그들은 위 호실이나 옆 호실에서 누군가가 장난치는 줄 알고 같이 그 목소리를 따라했다. 점점 그 목소리는 커졌고 그때까진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줄 알며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갑자기 엄청난 크기로 까-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소리를 들은 둘은 말없이 수 초간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는데, 제보를 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그 단말마의 비명, 아직도 그 주인공은 미스터리라고 한다.

글 · 서윤범









이해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네 편인 것을 잊지 마라

김시호

김경희 선생님

아이 이름 김시호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엄마 고마워요
 우리 아이의 특기 애교, 떼쓰기, 댄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엄마 딸로 태어나
 줘서 고마워. 사랑해♡



김지나



김경훈 선생님

아이 이름 김지나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까까, 우유, 언니, 응
 가, 탈출(유모차나 카시트에서 내려달라는 말)
 우리 아이의 특기
 먹기(눈 뜬 동안에는 계속 먹을 것 달라고 함) 언어
 구사능력(3개월 때 '응가', 8개월 때 '아빠' 가 터짐.)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건강하고 착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늘 즐겁게

이지율, 이도율

이중언 선생님

아이 이름 이지율, 이도율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이지율: 아
 빠 이것 좀 봐요! 이도율: 싸움놀이 하자.
 우리 아이의 특기 이지율 : 질문하기
 이도율: 애교 부리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다들 곱게 키워주
 마. 사랑한다.



천서연



천도현 선생님

아이 이름 천서연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아빠! 사이 좋게 나눠 먹을까? (못 먹게 하는 초코 과자를 발견했을 때)
 우리 아이의 특기 막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아빠 닳아서 미안하다. 성격으로 승부하자!

김하운

김창재 선생님

아이 이름 김하운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아빠 사랑해, 뭐 맛있는 거 없나?, 나~음...나~배고파
 우리 아이의 특기 아빠한테 뽀뽀하기, 카봇/또봇 변신시키기, 뽀로로 보면서 춤추기 (약간 몸치끼가 있음 ππ)
 우리 아이의 특기 사랑해.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정지윤



정주원 선생님

아이 이름 정지윤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아빠~ 저녁은 뭐 먹어?
 우리 아이의 특기 책읽기, 애교 부리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늘 지금처럼 사랑 많고 애교 있는 딸로 남아주기를...

2세 특집

조윤아

김민경 선생님+조기성 선생님

아이 이름 조윤아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저리가! 아빠는 맨날 출장 가..ㅠㅠ 윤아랑 안 놀아주고..ㅠㅠ

우리 아이의 특기 춤추고 노래하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밤에 제발 잠 좀 자자..... ㅠㅠ



하예원, 하민지, 하지현



김혜민 선생님

아이 이름 예원, 민지, 지현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엄마 백화점 가자
우리 아이의 특기 쪼그마한 놈이 돌 전부 터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기억한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 백화점 그만 가고 체험학습이 될 만한 곳을 데리고 가는 엄마가 될게 ^-^

배석준

배준범 선생님

아이 이름 배석준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내가 이겼다, 난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 아이의 특기 헬로카봇 따라하기, 댄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자, 동생 그만 때리고 ^-^



이윤호



이지현 선생님

아이 이름 이윤호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바부(=밥),
하부(=할아버지), 함무니(=할머니), 아
빠, 엄마, 아빠 차

우리 아이의 특기 춤, 힘, 피지컬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행복하자 우리 행
복하자 아프지 말고~

김세훈

김민연 선생님+김원석 선생님

아이 이름 김세훈

아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엄마, 우리 '엄
마 선생님 놀이' 하자. 어디가? 왜? 등등
우리 아이의 특기 레고 조립(천재인 것 같
음), 노래 부르기(음정 틀리게 부르는 엄마
를 지적질 함) 춤추기(흥이 많아요)

우리 아이의 특기 세훈아(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건 아빠 엄마가 미안하
게 많아서겠지?) 아빠, 엄마는 세훈이가 우
리 아들이어서 참 행복해.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커주길 바라. 사랑한다.



글 · 하늘나라



2013 첫 시즌 (靑雲之志)

김재박, 박철순, 이만수 혹은 최동원을 마음 속 영웅으로 품고 살던 30대, 40대의 아저씨들이 생전 처음 손에 글러브를 끼고, 야구배트를 잡았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이라는 못 이룬 청운의 꿈을 안고. 하지만 현실은..

2013시즌 정규리그 기록 (12팀 중 11위. 1승 10패)

지금은 아련한 창단멤버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불러봅니다.

이영종(현 사장, 출루 머신), 정상기(하나고 이적), 이남승(임의 탈퇴), 박용규(홍대부속고 이적), 민영익(용인외고 이적), 고광철(동양고 이적), 전성(포스코고 이적), 심주석(은퇴), 조기성(은퇴), 이재원(은퇴), 김원석(은퇴), 최정우(민영의 선수 이적과 동시에 은퇴), 정주원(현 감독, 하늘고 최고의 교타자 *장타 없음.), 이현영(현 하늘고 4번 타자. *첫 시즌 타율 0.182), 최상규(亂世의 영웅. 治世의 역적. 현 하늘고 8번. *첫 시즌 타율 0.478)

*매니저 송남영 (첫해 끄적대다가 잠적...)

최종기록 - 1승 10패. (최하위)

- * 최다 점수 차 패배 : 對 BAT (0 : 29)

"이거 이래서 내년에 야구 하겠냐..." 싶었지만.

우리는 또 꾸역꾸역 다음 시즌에 도전했습니다.

하늘고 야구단(SKY HIGH)



2014 두 번째 시즌 (百年河清)



2014시즌 정규리그 기록 (14팀 중 13위, 1승 11패)

그래도 일 년을 했는데, 올해는 뭔가 다르겠지... 했지만,

많은 선수들의 이적과 연습부족으로 결과는 전년과 똑같았습니다.

거기에 선수 부족으로 졸업생, 친구, 친인척까지 동원해가며 한 게임, 한 게임을 연명하는 시한부 같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결국 황하의 흐린 물이 백년이 지나도 절대 맑아지지 않는 것처럼, 하늘고의 실력도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일 것 같습니다.

2014 영입선수 : 이지현(현 Mr. 3루타. *매 경기 3루타 기록 中), 이흥주(현 우익의 맹주)
양준환(정주원 선생님 친구. *평촌 거주),



2015 세 번째 시즌 (刮目相對)

2015시즌 정규리그 기록 (11팀 중 9위, 3승 7패)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의 그 삼 년째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안 되면... 우리는 서당개만도 못하다.' 라는 각오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늘고는 조금씩 '기분 좋은 패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만세를 부르던 외야플라이도 잡아내고, 슬슬 굴러오던 땅볼도 외면하던 내야땅볼도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익숙한 패배감 대신, "그래도 오늘은 잘 졌다"라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밀리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상대팀도.. 포수 뒤에서 한숨만 쉬던 심판도..
조금씩 하늘고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5 영입선수 : 김승호(포스코 이적했으나, 하늘고 소속.
현 에이스 2게임 연속 완투승.), 윤현우(김승호 후배,
코레일 직원, 열정 과다), 배성규(데뷔 후 2게임연속 MVP,
이후 잠적), 박종선(차세대 에이스)

하늘고 야구단(SKY HIGH)



2016 네 번째 시즌 (桑田碧海, 日就月將, 日新又日新)

2016시즌 정규리그 기록 3위(8승 6패)

차라리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한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 심계.
하늘고는 가을 야구를 치렀습니다. 3위를 했습니다.
4년이 됐으니... 라고 하기엔... 너무 성적이 좋습니다.

4년 시간동안. 월미도 야구연습장에서. 을왕리 야구연습장에서. 곰은 손을 호호 불며 천 원짜리 한 장 한 장 넣어서. 타격 연습을 했고.
학교 운동장에서 밥 먹으러 가겠다는 학생들을 잡고 캐치볼을 하던 시간이 쌓여서 不知不覺간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엔 어디까지 올라 갈 수 있을지.. 우리도 우리가 두렵네요..

글 · 최상규





1반
최상규 선생님

상 | 상큼 아닌 시큼, 발랄한 상규쌤은
규 | 규(귀)여왕~!



2반
이현영 선생님

현 | 현재 하늘고 최고 미남은
영 | 영원이다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이행시 · 1학년



3반
전민호 선생님

민 | 민감하고 때론 까칠까칠한
호 | 호랑이 촌데레 쌤



4반
김경훈 선생님

경 | 경훈쌤은
훈 | 훈남



민 | 민연쌤
연 | 연애하고 싶어요!



수 | 수학보다는 국어지
민 | 민망한 점수지만...



민 | 민들레 꽃씨가 날았다
경 | 경비아저씨가 그것을
 냤아했다. 그것은 첫사랑이었다



상 | 상상해보셨나요?
미 | 미인대회 우승자 이상미



1반
천도현 선생님

도 | 도담도담, 도랑도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 | 현재처럼만 잘 자라다오
사고치지 말고♡



2반
하정선 선생님

정 |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 |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이행시 • 2학년



3반
황혜경 선생님

혜 | 혜경쌤♡ 저희 3반 만난 거
경 | 경축!! ♡♡



4반
정주원 선생님

주 | 주신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다람에도 불구하고
원 | 원치 않는 스트레스만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누구보
다도 선생님 제일 사랑합니다.



형 | 형주야! 이젠 두렵지않다
주 | 주기시든가♥♥



민 | 민희, 너 하나뿐이다
희 | 희망 없어 보이는
어두운 날의 밝은 빛처럼



지 | 지연쌤의 무뚝뚝하지만
연 | 연중무휴한 사랑, 잊지 않을게요.
지연쌤 사랑해요♥



현 | 현재의 저희들을 있게 한
주 | 주옥 같은 시간과 추억들,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반
배성규 선생님

성 | 성공은 규범을 따를 때가 아니라
규 | 규범을 졸업한 뒤의 행동이 결정한다



2반
송남영 선생님

남 | 남자쌤 100명이 온대도
영 | 영원히 남영쌤과 함께 가겠어요!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이행시 · 3학년



3반
김민수 선생님

민 |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선생님?
반에서 준비해봤어요 ㅎㅎ
수 | 수준 떨어지게 누가 치약맛 나는
그거 먹냐? 아니 버릴 건 없고...
일단 줘봐 먹어나보게



4반
최정우 선생님

정 | 정완아 밑에 떨어진 휴지
좀 줘자
우 | 우리 반은 오늘도 깨끗해진다
(깔끔한 정우쌤을 나타냈습니다)



원 | 원래부터 그렇게 예뻐나?
석 | 석양처럼 예쁜 원석쌤♡



지 |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
혜 | 혜(해)가 뜨지 않아도 지혜
 쌤과 3학년 6반의 추억은
 영원하리라



주 | 주중에도 주말에도
 7반 챙김이 주석쌤
석 | 석삼년 후에도 꼭
 EBS간판으로♡



연 | 연이어 감사드려도 모자랄 그
희 | 희망차고 따뜻한 격려들
 잊지 못할 거예요

선생님들의 심야악곡

힘들고 지쳐있는 하늘고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유철우 선생님

봄여름가을겨울의 'bravo my life' 해병대로 입대했는데, 낯선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반복되는 고된 훈련, 불편한 잠자리, 가족과 친구들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요. 그 무렵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동료 중 한 명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사가 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 힐링이 되었죠. 요즘도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이 노래를 찾아서 듣기에, 하늘고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윤형덕 선생님

Nirvana의 'Smells like teen spirit' 을 추천합니다. 제가 가끔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듣는 노래예요. 악기 연주와 보컬이 아주 힘 있고 거칠거든요. 그러면서도 헤비메탈은 아니라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게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때때로 찾아 듣습니다. 하늘고 친구들도 힘들고 지칠 때 한번 들어보면 제가 왜 추천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영우 선생님

에피톤 프로젝트의 '떠나자'라는 노래를 추천해요. 정든 도시를 떠나 행복했던 때를 찾아 떠난다는 가사를 듣다 보면 우울할 때조차도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떠나자'로 시작하는 후렴은 누군가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늘고 학생들도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시간으로 떠나보았으면 합니다.



김창재 선생님

윤도현의 '나는 나비'를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은 애벌레일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인고의 시간을 거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아름다운 나비가 될 우리 하늘고 아이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무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양예영 선생님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를 추천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듣고 있는 노랜데, 엄~~청 신나고요, 듣다보면 어느샌가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신나기도 하고, 또 뭔가 계속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하늘고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내 인생의 영화



서연희 선생님

극장에서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A walk to remember(2002), Mamma Mia(2008)예요. 둘 다 Original Sound Track이 좋았어요. A walk to remember에서는 'Only hope'이라는 노래, 그리고 숙맥같은 여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Mamma Mia는 'I have a dream'과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곡이 참 좋았어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는 Inferno(2016)를 추천하고 싶고요. 단테 '신곡'의 구절들, 미술 작품들, 이태리부터 터키까지의 풍경, 촘촘한 스토리 전개와 반전 등 볼거리가 풍성해서 좋았습니다.

하늘고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내 인생의 영화



천도현 선생님

삶에 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

'파워 오브 원(The Power Of One), 1992'

사랑에 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

'비포 선라이즈(Before Sunrise), 1995'

사회에 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

'설국열차(Snowpiercer), 2013'



김민희 선생님

고2, 고3이 아닌 열여덟, 열아홉... '사랑'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아파본 사랑꾼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저의 인생 영화는 바로 <노팅힐(Notting Hill)>입니다.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많은 장애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은 '사랑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걸 알려주는 영화거든요.



이영종 선생님

한국 영화 '밀양', 외국영화 '쇼생크탈출'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영화 모두 인간의 허위와 세상의 모순을 예리한 시각으로 비판하면서 모순투성이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삶을 담담하게 잘 그리고 있거든요.



황혜경 선생님

'제8요일' 추천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거든요.





김경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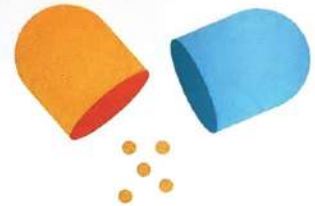
- ① 마음이 힘들 때는 낫두리 글을 쓴다. 왜 마음이 힘든지를 글로 쓰다 보면 내 감정이 더 명확히 이해가 되고,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정리되므로.
- ②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생각해 본다.
- ③ 자주는 못하지만,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을 찾아 시간을 보낸다.



정주원 선생님

올해 들어서 많이 힘들고 슬럼프가 왔는데 정말 힘들 때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동네 공원을 뛰거나 무작정 걸었음. 마음이 편안해지며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느껴짐.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선생님만의 힐링법



이홍주 선생님

풍족하게 준비한 음식과 다운 받아 놓은 완결된 미드, 어두운 방, 48시간의 시간... 페인모드로 돌입하여 48시간 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두운 방에서 미드도 보고 먹고 즐다가를 반복한다. 이렇게 페인 생활을 하다가 밖에 나가 빛을 보면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ㄷㄷ (참고로 이 생활은 고3 대학 입학이 결정되고 나서 하기를 추천합니다.)



김지연 선생님
런닝머신 40분 이상, 기도



최상규 선생님
힐링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 힐링법은 모르겠음.
조급해하지 말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좋아하는 거 눈치 보
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따로 힐링 같은 건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늘고 학생들이 20대가 되면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



이상미 선생님

호주!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낀 곳입니다. 또한 호주사람들이 주말이나 휴가에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 어떻게 삶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지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



이지현 선생님

난 20대 초반에 봄, 가을에는 학과 답사로, 여름, 겨울에는 방학이라.. 4계절 내내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때는 어딜 가도 좋았어. 어딜 가든 대부분 처음 가보는 곳이니깐.

그래도 굳이 빅3를 꼽자면 전주, 부안, 춘천 여행을 추천함! 부안은 여름, 춘천은 겨울이 진리! 전주는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이현영 선생님

집 나오면 다 좋다.
그중에 최고는 경상북도 영덕... 나의 고향!



김민연 선생님

프라하
솔로는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송남영 선생님

유럽 (주부나 재벌가에 시집가지 않는 이상 길게 마음먹고 가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고 다른 문화권을 보고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많을 수 있고 같고 닭은(?) 영어 실력을 실전 체험이 가능하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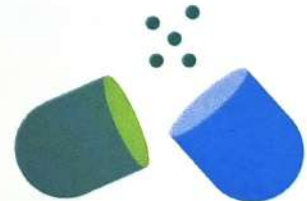
김민경 선생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성 파밀리아 성당
이유: 가보면 안다!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 해지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음. 정말 대작 중의 대작!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들 정도로...



이은영 선생님

어디든지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여행하는 동안에 여유를 느끼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멀리 오래 다녀오는 걸 추천합니다! 나 중에는 시간을 내려고 해도 어렵거든요~)



글 · 하늘나래



2016' 인천하늘고 창의융합 R&E 전통무예 문화콘텐츠 개발 다큐멘터리

2016년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수행한
창의융합 R&E(하늘검) 다큐멘터리
<https://www.youtube.com/watch?v=B7atK4xfI04>



인천하늘고등학교 무한상상과정(III) 다큐멘터리

2016년 인천하늘고등학교 무한상상과정의
기획 의도와 진행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https://www.youtube.com/watch?v=T59cT_mpRoU



2016' 인천하늘고등학교 수능 응원 영상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송부에서 제작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Gp6_DI_U6Y



김경훈 선생님의 신곡 '그날을 꿈꾸며' 뮤직 비디오

하늘고등학교의 간판급 가수 김경훈 선생님의
따끈따끈한 신작 뮤직비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XHjvnfsyVOA>



글 · 하늘나래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대단치도
않았다. 그것들을 내려놓고서도 나는 끄떡없이 달렸다.

반면 내가 대단치 않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했다.

예를 들자면,

나 자신.



1학년 1반 최상규 선생님

애들아 미안하다

인천하늘고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1. 경 훈 생활관에서 과자 끼먹을 때
2. 권혁진 생활관에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때♡
3. 김강민 교육감배 축구대회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고를 이긴 것
4. 김기주 ♡방에서 몰래 노트북으로 영화보기
5. 김도현 주말에 영화보기
6. 김민선 생활관에서 라면 먹으면서 떠들기
7. 김준혁 상규쌤과 PC방 가기♡
8. 김태훈 모의고사 전날 조기입실
9. 민준서 방 바꾸기 전날 보드게임하고 라면파티 할 때
10. 박도영 몰래 음악실 개인 연습실 들어가서 노래 틀어놓고 자기
11. 백지웅 일요일 아침 11시에 일어나서 생활관 옆 정자에서 라면을 먹고 다시 잘 때♡
12. 송호준 주말에 늦게 일어난 것♡
13. 이규현 생활관에서 현실판 카트라이더 했을 때♡
14. 이무근 생활관에서 과자파티 했을 때♡
15. 이일규 교실에서 축구한 것
16. 이정빈 일요일마다 마음껏 늦잠자기
17. 이정후 밤늦도록 생활관에서 놀 때
18. 정우현 라크로스대회 나갔다가 시작하자마자 다리 다쳐서 1분도 못 뛴 것
19. 정유석 방에서 몰래 룸메들과 야식 먹기
20. 정지용 밤에 친구들과 비밀 이야기 하는 것
21. 조상현 생활관에서 이것저것 다 먹은 것. 치킨, 피자, 분식 안 먹은 게 없음 ㅋㅋ
22. 조석형 일요일에 잠 오래 잘 때
23. 최대명 삼겹살 데이 때 삼겹살 먹을 때♡
24. 최동휘 1학년 1반과 함께 스페셜 데이날 치킨 뜯으며 무한도전 본 날
25. 한민규 체육대회 때 친구들이랑 단합되어 좋은 추억 만든 것
26. 한지원 유석이의 데이트 목격





1학년 2반 이현영 선생님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소설

1. 강석훈 오전 8시, 이현영 선생님께서 조례를 하러 들어왔지만 2반은 절반도 들어오지 않았다.
2. 김대규 "야 2반, 8시 안 넘었나."
3. 김사랑 라는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은 베란다로 나가 밖을 바라보는데 2반 아이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4. 김승준 이윽고 현영쌤도 밖에 나와 함께 축구를 하셨다.
5. 김어진 그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셨다.
6. 김지훈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기현이가 달려들어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7. 김태영 "흠... 하아..."인공호흡을 하던 기현이 역시, 흥분을 멈추지 못해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 광경을 본 상혁이가 달려나와 말하길,
8. 박기현 "나의 촉촉한 입술만이 두 사람을 깨울 수 있어." 라며 두 사람에게 키스했다.
9. 박단일 그때 누군가 옆에 있었는데... 그는
10. 박재환 4월에 전학을 간 승학이었다.
11. 박형빈 현영쌤은 벌떡 일어나 승학이를 보며 '오직 너만이 나를 깨울 수 있다' 하고는 다시 쓰러지셨다.
12. 유병현 그렇게... 승학이는 첫 키스를 중년 남성과 했고, 현영쌤은 살아나셨지만 순결을 잃었다.
13. 유상혁 그때 갑자기 정장을 입고 중국집 철가방을 든 30대 남성이 다가오면서 말한다.
14. 이동규 여기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원수! 내가 너를 이기기 위해 30년 동안 짜장술만 연구해왔지 후후...
15. 이민재 그리고는 철가방에서 자장면을 꺼내 점점 다가왔다.
16. 이상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쓰러져 있던 기현이가 일어나 소리쳤다.
17. 이영원 "안 돼! 도망쳐요 현영쌤!!"
18. 이영훈 하지만 이현영 선생님께서는 용감히 맞서 싸우기로 했다.
19. 이은석 의문의 남성은 현영쌤을 향해 면발을 날렸고, 그 면발은 선생님을 결박했다.
20. 이재민 "Ang↑"그 남성은 빌리 해밍턴이었다.
21. 이주현 빌리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았다.
22. 이준원 친구들은 힘을 모아 현영쌤을 빌리로부터 구출해냈고, 그러면서 현영쌤과 친구들은 짜장범 벽이 되었다.
24. 조현욱 몸에 있는 짜장 한 가닥을 집어 들고 현영쌤은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에게 사투리로 소리 쳤다.
25. 하승찬 "야들아 짜장 먹었으니깐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쇼!"
26. 홍승민 '현재 시간 6시 20분입니다'소리와 함께 기현이는 꿈에서 깬고, 이 모든 게 꿈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27. 김보근 안심하고 다시 잠에 든 기현이는 결국 아침운동을 나가지 못했고 벌점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1학년 3반 전민호 선생님

처음에 하늘고 입학해서 결심했던 다짐 잊지 말고,
 내가 일 년 동안 했던 잔소리들 잊지 말고,
 2학년 가서 때로는 힘들거나 지쳐도
 끝까지 이겨내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1학년 4반 김경훈 선생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즐겁게 살아라♡



인천하늘고에 입학해서 내 인생 처음으로 시도해본 것이 있다면?

1. 김민재 빨간날에 면학실에서 계속 있기
2. 김윤서 체육복입고 몰래 등교하기
3. 김조현 몰래 공부하기
4. 김준영 밥 먹으면서 공부하기
5. 류승권 6시에 일어나기
6. 박기철 아침 7시 이전에 일어나보기
7. 박동주 친구 보려고 지하철을 타야할 줄은 몰랐다.
8. 박주영 새벽 3시 30분까지 룸메랑 떠들기
9. 박현민 (스스로 원해서) 공부한 것
10. 배경민 그랜드 피아노 쳐보기. 평생 먹을 육 한 번에 다 쳐먹기
11. 변정환 아침부터 치킨 버거와 게토레이 2병(1+1 개꿀 or 쥬시쿨 1L)를 흡입한 것
12. 서원규 공부에 재미를 느껴본 일. 큐브를 완벽히 맞춰본 것
13. 안병현 친구들과 변기에 앉아서 시험 공부
14. 안성민 아침 6시 20분에 처음으로 일어났다.
15. 양동석 친구의 침대를 엿어보았다.
17. 여동기 아이돌 앨범을 사봤다.(트와이스)
18. 우정민 패딩 안에 바람막이 입기
19. 유동훈 공부하다 잔 것 (나도 모르게)
20. 윤호상 방송에 나와 보았다.
21. 이지훈 트와이스에 빠진 것
22. 장세윤 친구의 과자를 남남하기
23. 전영익 새벽에 몰래 치킨 먹는 것
25. 황경남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





1학년 5반 김민연 선생님

애들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잘하자! 5반!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소설

1. 가예림 나는 세훈이와 같이 학교에 갔어.
2. 감지영 세훈이는 잘생긴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키가 큰데, 그 세훈이가 바로 내 남친이야.
3. 김나연 세훈이는 작년에 나랑 스터디를 했는데,
4. 김다미 그때 내게 고백을 했지. 나는 그때 그 고백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사귀는 중이야.
5. 김서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연쌤은 모르신다는 거야.
6. 김세연 최소한 방금 전까진!
7. 김승연 오늘 아침 세훈이와 함께 있을 때 민연쌤과 마주치자 선생님은 말씀하셨지. "옥상으로 따라와!"
8. 김예린 나는 깜짝 놀라서 아침에 먹은 밥이 밖으로 나올 것만 같았어. 혹시 들킨 걸까?
9. 김예진 나는 온갖 상상을 다하면서 방패를 챙겨 옥상으로 올라갔어.
10. 김유진 그런데 갑자기 방패들이 햇빛을 받더니 눈, 코, 입, 팔다리를 열고 살아 날뛰기 시작하지 뭐야.
11. 김채현 살아 움직이는 방패들을 뒤로 한 채 나는 선생님께 무슨 일이냐고 여쭙봤어.
12. 김한나 내 질문에 선생님은 주문을 외우시더니 도깨비가 되었지.
13. 노유진 도깨비 도깨비 빵!
14. 문주윤 멘붕이 된 나는 혹시 내가 도깨비 신부일까 싶어 목 뒤에 점을 찾아봤어.
15. 문현아 그런데 이게 웬일? 내 목 뒤에 도깨비 신부 점이 있지 뭐야!
16. 박지윤 나는 도깨비를 기다려보기로 했어.
17. 방상희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도깨비가 세훈이더라!!
18. 유한나 촛불시위에서 촛불이 바람에 꺼졌는데 세훈이가 내 뒤에 있었던 거지!
19. 이나영 나는 세훈이의 옷을 잡아 당겨 뽀뽀를 해버렸지.
20. 이영채 그리고 다음날 나영이에게 가서 이야기했어. "야!"
21. 이유진 얘 이제 내 거야. 나 어제 세훈이랑 뽀뽀했거든!
22. 이주미 나영이는 말했다. "음.. 사실 세훈이는 내 거 아니라 주미 거야. 그러니 난 상관없어"
23. 이지호 난 말했다. "뭐?!?! 주미는 다른 애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24. 이해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25. 장혜린 사실 내가 도깨비 신부야! 히힛
26. 정다운 세훈이는 내 거니깐 평생 나랑 함께 할 거야. 돈 우리 비 해피-☆
27. 최시몽 잠깐 저기 구름같이 몰려오는 소녀떼들은 뭐지?
28. 표민주 세훈이가 엑소의 오세훈이었다고??
29. 한서영 어... 그런데 세훈이가 원래 이렇게 나이가 많았나? 눈 옆에 저.. 주름은 뭐지?
30. 한서희 이상하다..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어? 내가 뽀뽀한 사람은 서울시장 오세훈이었네. 하... 그냥 검 뽀자 ㅋㅋ



1학년 6반 이수민 선생님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소설

1. 강나연 옛날 옛날 얼음 나라에
3. 강윤서 이수민이라는 키가 크고 예쁜 공주가 살았습니다.
4. 고민정 그런 그녀를 사랑하는 정우가 있었습니다.
5. 고은비 어느날, 전쟁을 피하기 위해 수민 공주는 남장을 하고, 궁을 떠났어요.
6. 김민서 험난한 피난길 중에 수민 공주와 하정우는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7. 김수연 하지만 정우는 이미 적국인 햇빛나라의 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입니까!
8. 김예인 정우와 수민 공주는 눈을 마주친 채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9. 김주연 오후가 되자 수민 공주는 정우와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10. 김혜나 그러던 중 적군의 군사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11. 박도영 그들은 바로 하정우를 사랑하는 열성팬들이었습니다.
12. 박지혜 덕후들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몸에서 손 떼!”, “재 뭐야?!” 정우는 큰 손으로 수민 공주의 얼굴을 가리고 수민 공주를 신비의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13. 박현문 신비의 숲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14. 박현비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도착한 신비의 숲은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닌 것처럼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15. 배은정 드넓은 신비의 숲을 헤매다 수민 공주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16. 소가현 사실 이 모든 것은 수민 공주를 납치해 몸값을 받아내려는 정우의 계략이었고 정우는 계획대로 수민 공주의 납치에 성공했던 것이죠.
17. 송예슬 “Cut!! 그동안 겨울왕국을 촬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4시 반이네요. 내일 봅시다.”
18. 신혜주 촬영이 끝나고 뒷정리까지 마치자 정우는 수민에게 차 한 잔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19. 이상원 수민은 정우의 제안을 승낙했고 수민은 정우의 차에 탔습니다.
20. 유재원 즐겁게 대화하던 그때, 정우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수민아.....
21. 이수정 내 생각엔 우리 연기가 서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되게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말이 자자해. 그래서 말인데...”
22. 이지연 잠깐만! 수민이가 외쳤다.
23. 이현주 어떤 음악이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아~ 예!
24. 임채민 갑자기 수민과 정우의 눈이 마주치면서 강렬한 스파크가 튀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5. 임채원 수민이가 외쳤습니다. ‘씩 다 불태워라 BOW WOW WOW X 2’
27. 조은진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8. 채지윤 집에 온 수민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에 잠겼습니다. 그때 정우에게 폐메가 왔습니다.
29. 최보운 울 액희 옴빠 안 보구 싶었어? 옴빠는 액희 생각하느라구 한 숨도 못 잤어! 그런 의미에서 옴빠가 울 액희 집에 갈까?
30. 최해인 수민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31. 한동화 지하철도 와... ㅎ 수도권 내라면 옴빠 어디라도 올 수 있지?”
32. 김태은 그러자 정우가 말했다. “아... 이런. 난 지하철 공포증이 있지 뭐야. 그냥 네가 우리 집에 와라. ㅎ ㅎ”
33. 유승민 “그래!” 수민이 말했습니다.



1학년 7반 김민경 선생님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목표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했어! 사랑해!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소설

1. 강지혜 새해를 맞아, 과학자 민경이는 기성제품과는 다르게 백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선크림을 개발했어요.
2. 고다인 그걸 민경이가 발라 보았어요.
3. 김나연 생각보다 좋은 선크림의 기능에 놀라며 선크림을 팔고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품게 되었지요.
4. 김미성 그런데, 망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5. 김민지 선크림을 바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도라에몽으로 변해 버린 거예요.
6. 김보선 그래서 하늘색 도라에몽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을 모아 하늘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7. 김서연 어느 날, 인간들이 도라에몽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려고 하늘고등학교로 쳐들어 왔어요.
8. 김서진 하지만 주작이 나타나 인간들로부터 도라에몽들을 보호해 도라에몽은 살아남았어요.
9. 김소연 살아남은 도라에몽들은 세상에 복을 퍼뜨리기 위해 정형돈을 만들고자 했지만 실수로 정은이가 탄 생했어요.
10. 김윤지 그러나 정은이는 복을 퍼뜨리기는 커녕 핵을 터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11. 김윤하 핵을 터뜨리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핵이 잘못 터져 정은이 얼굴만 폭발 되었어요.
12. 김정은 그래서 정은이는 민경 성형외과에 찾아갔어요.
13. 김지수 정은이는 민경 성형외과에서 민경스타일로 성형을 했어요.
14. 박기빈 성형외과에서 민경 선생님을 보고 반한 정은이는 민경스타일로 성형을 하고나서도 선생님을 너무도 닮고 싶은 나머지 이름까지 '민경'으로 바꿨어요.
15. 박나현 민경이가 된 정은이는 SM 엔터테인먼트 외모 짱 대회에 참가했어요.
16. 박 선 그러나 '민경정은'은 외모 짱 대회에서 꼴등을 해 좌절하게 됩니다. 그 후 포스터를 하나 발견했어요.
17. 박소현 <박소현 마에스트로의 위험한 연주, 콩쿠르 대회>
18. 봉세아 민경정은은 콩쿠르에서 우승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했어요.
20. 송하영 민경정은은 콩쿠르 당일 날, 대기자실의 대기자들이 너무 못해서 이길 거라 확신했어요.
21. 심채현 열정적인 연주를 마친 민경정은은 하지만, 민경정은은 바로 뒤에 나온 참가자, 미니언들이 소나티네 537번을 너무 완벽하게 연주하자 민경정은은 미니언을 제거하기로 했어요.
22. 윤성현 그러나 미니언들의 나라로 간 민경정은은, 미니언들이 너무 귀여운 나머지 뽀렌드가 되었죠.
23. 윤지완 미니언들과 뽀렌드가 된 민경은 같이 '뚜찌뿌찌뿌찌'를 불렀어요.
24. 이예진 '뚜찌뿌찌뿌찌'를 신나게 부르며 춤을 추던 민경정은은 갑자기 미니언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25. 이은결 알고 보니 그 미니언들은 과학자 민경이 백탁 현상 없는 선크림을 실패한 후 다시 만든 선크림을 바른 사람들이 변한 것이었거든요.
26. 이주현 미니언들은 민경정은에게 자신들을 인간으로 돌려놓으라며 화를 냈고 민경정은이 말을 듣질 않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어요.
27. 임연지 민경정은은 미니언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28. 전소민 그러나 미니언들은 훌라훌라훌라 춤을 추어 민경정은에 대한 식지 않는 반발심을 보여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29. 정유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연락이 오지 않자 미니언들은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제보를 했고, 바로 다음 날 방송이 되었습니다.
30. 편수민 "아, 꿈이다!"민경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31. 황유진 다시 현실세계로 컴백한 민경이는 자신이 하늘고 교사라는 것을 알고 1학년 7 교실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애들아, 안녕?"
32. 안진경 그렇게 민경과 1학년 7반 친구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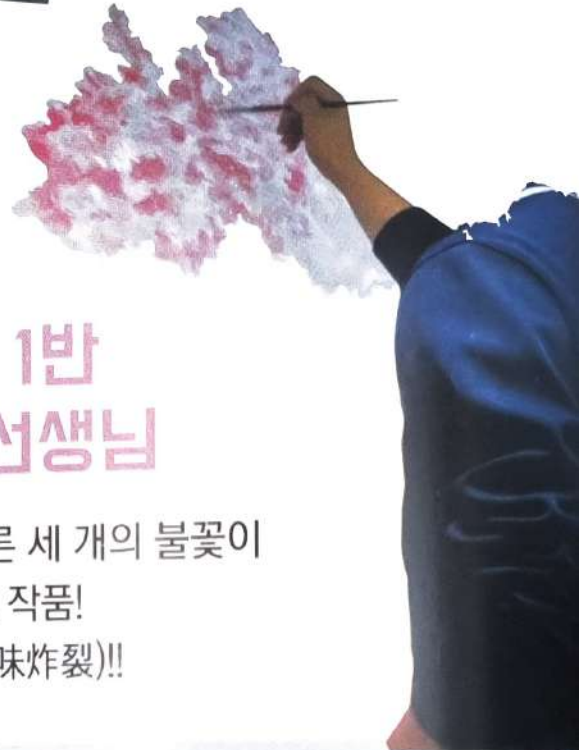
1학년 8반 이상미 선생님

우리 예쁜 1학년 8반 학생들! 갑자기 2학기에 담임선생님이 바뀌게 되어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웠죠? 그래도 오히려 부족한 담임선생님 잘 챙겨주고 도와주어 너무 고마워요. 우리 1학년 8반 학생들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1학년 8반 학생들 모두에게 행복한 일 많이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인천하늘고에 입학해서 내 인생 처음으로 시도해본 것이 있다면?

1. 곽선진 매일 5일 연속으로 핫식스 마시기
2. 김가현 남의 알람 듣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기
3. 김 강 4주 연속으로 매일 매일 매점에 가서 학생증 속 돈을 탕진하기 (허쉬바 ♡)
4. 김명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라마 시청하기!
5. 김민서 매일 보던 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어 한 번 울어 봄
6. 김수연 친구가 6시인 줄 알고 깨워줬는데, 알고 보니 4시 50분이어서 예상치 못하게 일찍 일어난 일 (↑너저격)
7. 김영서 열정페이 당하기. 당하기? 어? 열정페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8. 김하연 시도해봤다고 하긴 그렇지만...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해보긴 처음이다. 창재쌤♡ • ♡ 전인교육부 가는 발걸음이 신난다. ♪♪
9. 문채원 내 돈으로 초코 우유 사먹기! 맛있었다!
10. 박정영 자다가 웃어서 그 웃음소리에 깨기
11. 박지원 6일 연속으로 컵라면 먹기 치즈볶이 맛있었다~
12. 박채령 빨래 주문서로 트럼프카드 제작해서 원카드 하고 놀다가 쌤한테 걸려 조커 들고 인증샷 찍기 + 기숙사 (사랑해요 302♡)
13. 박채린 6시 20분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운동하기
14. 서연우 새벽에 화장실에서 스탠드의 빛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휴지로 둘둘 싸서 약하디 약한 빛 아래서 공부하기
15. 서영주 내 노트북 가지고 친구들과 연락한 경험 + 새벽 4시까지 자지 않고 공부하기
16. 손동아 한 번에 핫팩 5만원 어치 지르기. 늘고의 겨울이란...ㅠㅠ
17. 오예린 중력을 이용해 도구 없이 치마 주름 없애기
18. 유지희 슈퍼문 보기
19. 윤예은 친구들과 공구하기. 얼떨결에 공구 담당ㅋㅋ
20. 이가영 평생 해보지 못할 것 같았던 권투시합을 스포아츠를 통해 실현한 것
21. 이은지 패딩주머니랑 노트북 가방이랑 옷에 붙어있는 모든 주머니에 먹을 것 챙겨보기 너무 배가 고프니다...T.T
22. 임혜민 처음으로 서서 좋아보기 ㅋㅋㅋㅋ 기숙사에서 햄버거, 떡볶이, 라면, 도넛, 과자 등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기! (행복♡)
23. 전예은 크리스마스를 생기부 자료 만드는 데 다 보냈다 ^^
24. 전한결 스포아츠 선생님과 바로 앞에서 경기하기
25. 정아영 현실 세계와 드라마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친구의 종영 한탄 들어주기. W세계와 종석님 빠이♡ (그래 너 민서야)
26. 정영신 4끼 연속으로 굶어 보기. 나중에 밥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적응 안 되고 허전했다.
27. 조성현 별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시험기간 날 밤. 새벽 2시에 룸메들과 멍하니 밤하늘을 지켜본 일.
28. 최서임 음악 없이 일주일 간 살아보기:D MP3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됨
29. 한지희 처음으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함.
30. 허건민 생전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싶는데 하지 못하는 기분을 느껴봄
31. 임서라 시험기간에 몰래 외출 안 하려다 걸려 정영이와 카페까지 걸어갔다 오기



2학년 1반 천도현 선생님

한 명의 요리사와 서른 세 개의 불꽃이
만들어 낸 작품!
풍미작렬(風味炸裂)!!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 소설

1. 김도윤 이제 막 26세가 된 도현이는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
2. 김도윤 거기서 도현이는 진형건이라는 원시 부족장과 친해졌다.
3. 김도윤 원시 부족장 형건이는 300명이나 되는 부족을 이끄는 인물이었다.
4. 김도윤 그 부족은 피부가 까만 순서로 족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형건이 족장으로서는 적임자였다.
5. 김도윤 그러던 어느날,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자기들도 족장이 되고 싶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6. 김도윤 도현이는 자신과 친한 형건이와, 피부가 하얀 사람들 중 누구의 편을 들지 고민했다.
7. 김도윤 왜냐하면 도현이의 피부색은 빨간색이었기 때문이다.
8. 김도윤 도현이는 으리으리한 의리남이었기 때문에 결국 형건이의 편을 들어주었다.
9. 김도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음속도 새빨간 도현이는 형건이를 배신하고 헬조선이라는 왕국으로 도망쳤다.
10. 김도윤 그런데 헬조선 왕국 2-1 부족에서 새로 만난 족장이 검은 형건이와 똑같이 생긴 흰 진형건인 게 아닌가?!
11. 김도윤 이건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바로 쌍둥이였던 것이다.
12. 김도윤 혼란스러웠던 도현이는 흰 형건이를 제압하고 2-1 부족의 족장이 되었다.
13. 김도윤 족장이 된 도현이는 이 많은 부족민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항상 고민했다.
14. 김도윤 그러던 중 입영통지서가 날아와 군대에 들어가야 했다.
15. 김도윤 군대에 들어간 도현이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16. 김도윤 카투사로 입영한 도현이는 백인 친구와 흑인 친구 각각에게 사랑을 느꼈다.
17. 김도윤 어느덧 다가온 제대, 마음을 굳힌 도현이는 백인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려다 뜻밖의 장면과 마주치는데-
18. 김도윤 그것은 바로 그 백인 친구가 자신의 고교시절 첫사랑, 민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었다.
19. 김도윤 도현은 끼어들고 싶었지만,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니 자신은 피부색이 빨간 흑인이고 불법체류자이자 게이인 최준생(백수)일 뿐이었다.
20. 김도윤 상심한 도현은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깨어나보니 봉사활동을 했던 아프리카로 돌아와 있었고, 부족민들은 전쟁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21. 김도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도현은 부족민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전사할 것이라고 생각해 전쟁에 참여했다.
22. 김도윤 전쟁을 치르던 도현은 전쟁 중, 죽음을 원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해탈에 이르게 된다.
23. 김도윤 나무 밑에 앉아 쉬던 도현에게 한 원주민이 다가와 과일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도현의 첫사랑이었던 '민희'와 매우 닮아 있었다.
24. 김도윤 너무 민희가 보고 싶었던 도현이는 결국 Dr. Cowie에게 가 시간여행을 시켜달라고 부탁한다. 민희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25. 김도윤 Dr. Cowie는 자못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도현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 병명은 공황장애였다.
26. 김도윤 정신병원에 갇힌 도현은 공황장애가 심해지고 정신병원에 갇혔다는 충격에 자살을 결심한다. 그러나 눈을 떠보니 다시 아프리카였다.
27. 김도윤 그렇게 도현은 아프리카TV에 입성하게 되고...
28. 김도윤 흑인BJ 감도윤과 합방을 하게 된다.
29. 김도윤 감도윤과 방송을 하던 도현이는 감도윤이 2-1 부족원임을 알게 되고 2-1 부족으로 함께 복귀할 것을 결정한다.
30. 김도윤 2-1 부족장으로 취임한 도현은 BJ 감도윤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나서야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됐다면서 백운산에 땅을 파고 물구나무를 서서 얼굴만 묻었다.
31. 김도윤 이를 틈타, 감도윤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만행을 저지르자 나머지 2-1은 그들을 무찌르고 한동훈을 부족장으로 추대한 뒤 천도현을 찾으러 갔다.
32. 김도윤 백운산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도현이를 찾아낸 2-1은 천도현과 함께 천도복숭아를 먹으며 도원결의를 맺고 행복하게 지냈다.
33. 김도윤 선생님 죄송합니다. 민희생도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국민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4. 김도윤



2학년 2반 하정선 선생님

고3이라는 문턱 앞에서 겁도 나고 망설이고 있을 lovely
2반!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너희들이기 때문
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날을 기대하며, 2학년 2반! 앞으로도 파
이팅하자! 너희의 미래를 늘 응원한다♡



앞 번호 친구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1. 강서진 김:김 먹으면 / 윤:윤기 나는 / 형:형광등 그런 거 없음
2. 강주희 강:강동원 씨 / 서:서진이가 / 잔:진짜 별로래요. 서진이 마음의 별로.
3. 강지영 강:강주희는 / 주:주변 사람들에게 / 희:희망적이다. 라고 할 줄 알았지?
4. 김윤영 강:강지영. 네 사랑의 / 자:지름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건 / 영:영원한 행복이야..★
5. 김제아 김:김윤영은 / 윤:윤리적으로 / 영:영~ 아니다
6. 김태연 김:김제아는 / 제:제재해야 할 / 아:아이이다
7. 김혜윤 김:김 먹고 싶다 / 태:태평양에서 난 거... / 연:연평도도 괜찮고...
8. 박서정 김:김가루 같은 / 혜:혜윤이의 / 윤:윤기 나는 머리카락♡
9. 박세라 박:박서정 또 화장실 가? / 서:서진이가 비웃는다 ㅋ / 정:정기적으로 가네ㅋㅋㅋㅋ
10. 박주은 박:박터진다 / 세:세라 인생! 구 / 라:라쟁이 **^^*
11. 박준희 박:박주은 생기부 자료 낼 때 / 주:주작질 그만 해 / 은:은밀해도 다 티 나
12. 박한이 박:박터지게 먹은 / 준:준희의 다이어트는 / 희:희망이 없다. 그만 뒤
14. 배성연 박:박자에 맞춰 / 한:한 번만 / 이:이를 부딪쳐봐요 ^0^
15. 변자운 배:배보다 똥글똥글하고 / 성:성격도 둥글둥글한 / 연:(년)♥
16. 신혜인 변:변이 나오지 않는다 / 자:자, 이제 싸볼까? / 윤:윤기가 흐른다ㅋㅋㅋ (자윤아 미안)
17. 유세연 신:신발을 신고 하늘을 날아 / 혜:혜인이는 / 인:인서울을 했다♡
18. 유정선 유:유세연 너 / 세:세수는 했니? / 연:연탄보다 얼굴이 까매
19. 이지현 유:유정선의 / 정:정수리 냄새가 아직도 코에 / 선:선하다
20. 장유정 이:이지현 / 지:지디 망상 그만 하고 / 현:현실을 자각해
21. 전서은 장:장유정은 / 유:유딩 수준의 / 정:정신연령을 가졌다. (but she is....)
22. 정예진 전:전구처럼 밝은 / 서:서은아~ / 은:은근 별루다... ^^
23. 정윤희 정:정예진 / 예:예쁜 척 하지마 / 진:진짜 예쁘니까♥
24. 조은진 정:정말 / 윤:윤희는 / 희:희망이 없다
25. 최서연 조:조정석은 / 은:은진이랑 / 진:진짜 이어질 확률 0%
26. 최정주 최:최서연 동무 / 서:서울에 도착했소? / 연:연해주에서 기다리겠소
27. 최정화 최:최정주야? / 정:정말? 아..... / 주:주님.... π
28. 허건희 최:최○○아 / 정:정화가 많이 좋아한대 그래서 / 화:화요일에 만나재 ^-^
29. 김윤형 허:허건민인가? / 건:건희인가? / 희:희엿갈리네....



2학년 3반 황혜경 선생님

2학년 3반 애기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너희들이
내 눈엔 최고로 예쁘다♡♡



지난 2년간의 하늘고 생활 중 가장 자랑스럽거나 행복했던 기억은?

1. 김나예 창재쌤을 만난 일♡
2. 김명주 502호 친구들과 밤에 소등 후 이틀 연속으로 족발 먹은 일!
3. 김선영 405호와 떡볶이를 먹었던 일! 서린이의 깜짝 선물 정말 감동이었어!! 2-3 사랑해♡
4. 김성연 406에서 김나윤, 김나예, 김혜윤 만난 것
5. 김영민 402호 친구들과 수능 전날 닭강정 파티했던 일! 중간에 걸릴 뻔해서 더 기억에 남는다.
6. 김하은 419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낸 일! 8명에서 함께 한 크리스마스 파티♡
7. 김혜원 밤샘과 함께 했던 간짬뽕 in 411♡♡
8. 마지혜 즐거웠던 413호 빵 몰래 먹기 ㅎㅎ 그리고 대왕카스테라 밀반입~♡
9. 박신형 후배 서임이와 수능 응원 주작 조각하고 망고빙수 먹었던 일, 혜정쌤과 보냈던 모든 시간♡
10. 박이슬 2017을 책임져줄 407호 좋은 친구들 만난 것. 1년 동안 잘 부탁해♡
11. 박주영 바쁜 수행평가 기간 중 펼쳐진 버거킹 파티 in 409호 &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정신없이 보낸 2016 크리스마스 이브 =)
12. 백누리 2016년 12월 24일 8명의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 꿀잼♡
13. 송나현 502호 친구들과 함께 하는 먹방 라이프♡ 신전 떡볶이♡♡
14. 송혜연 2016년 419호에서의 크리스마스 이브 =) 케이크, 젤리, 카스테라♡♡
15. 안수진 김선영, 오서린, 장유정을 405호에서 만난 것. 그리고 2016년의 419 크리스마스 파티♡
16. 오서린 405호 친구들과 몰래 신전 party♡ 그리고 cielo 친구들과 함께 했던 1년! 옐로 옐로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고마웠고 사랑해~
17. 이룬경 족발, 닭발, 오돌뼈, 닭강정을 동시에 먹었다. =) in 403
18. 이쥬이 지수와의 행복했던 기숙사 생활, 윤서랑 같이 자기 ㅋㅋ → 공유 사랑
19. 이현경 법과 정치 수업을 선택했던 것
20. 이현빈 503호에서 치킨, 햄버거, 떡볶이 등을 먹은 것
21. 임다희 501호 친구들과 별 보면서 라면 먹을 때...♡
22. 정은수 주영이가 치킨을 사다주었다. :) BBQ 황금올리브♡
23. 조영진 실기충의 미술실 라이프...♡ with 존예 은환쌤
24. 조은아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날의 파티
25. 한서현 2-3과의 1년! 저녁시간에 학교 온 사방을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기억! with 빠충 주영 누리
26. 한예지 사온 떡볶이를 두고 와서 발연기와 함께 007 작전을 세워 떡볶이 구출에 성공한 일
27. 허세영 룸메랑 밤에 몰래 신전떡볶이♡420♡
28. 이윤서 몰래 먹기. 2학년 3반 친구들♡ 조이랑 같이 자기ㅋㅋ 공유 사랑♡♡
29. 전유진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족발이랑 떡볶이 먹은 기억♡ 그리고 몰래 먹은 라면



2학년 4반 정주원 선생님

선생님이 평생 마음에 두고 있는 이야기 중에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어. 우리 반 처음 봤을 때 “뭐 이런 ○○들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잠시나마 ‘우리 반 애들이라면 3학년까지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멀리서라도 응원할게!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 소설

1. 광민찬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정주원은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끼고 거울을 보는데...
2. 김기웅 자신이 하늘고 외모 3등급 신주원의 얼굴이 된 것이다.(본인이 써달라 함) 그리고 신주원은 정주원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3. 김도영 "뭐야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3등급이야?... 공부나 하자..." (때는 5:45 am)
4. 김동규 6시. 등교한 신주원의 얼굴을 가진 정주원. 고등학생으로 돌아온 정주원은 연애를 하기로 결심하는데...
5. 김민겸 17번의 고백에 실패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6. 김상원 하지만 다이어트는 1일만에 실패. 대신 자고 일어나 보니, 잘생긴 얼굴이 되어 있었다.
7. 김유빈 신이 난 정주원!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데... (저쪽에서 과거 정주원의 얼굴을 가진 신주원을 발견한다)
8. 박정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정주원이 다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보니, 그곳에 신주원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자신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9. 박정웅 상황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해, 정주원은 이상하게 변해버렸고 바닥에 침을 쏟는 습관도 생겼다.
10. 신주원 침을 뱉고 난 정주원은 침의 무게만큼 살을 뺐다며 이태구를 찾아가 100kg 핵클럽 탈퇴를 선언한다.
13. 오성민 그러나 살이 빠진 주원이는 갑자기 허기를 느껴 이태구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하늘고 실세 오성민을 찾아가 자신을 부하로 받아주면 매달 100만원을 수금하겠다고 한다.
14. 윤민재 [광고타입] ★하늘고 외모 3등급이 되는 약! 010-103△-507☆ 절찬리에 판매 중★
15. 이규범 광고에 혹한 주원이는 하늘고 실세 오성민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이 약을 사려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16. 이민규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6년차 래퍼 지망생 이민석!
17. 이민석 정주원은 이민석의 화려한 플로우에 매료되어 래퍼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자기가 씀)
19. 이재희 책! 책! 잘 더 코리안 탑클래스 비트를 비틀어버려 너의 병명은 힙합치질 받아라 나의 라임 망치질! 그는 결국 래퍼가 되었다.
21. 이태구 쇼미더머니6에 나가게 된 정주원! 엄청난 실력으로 바로 결승에 올라가지만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대는 바로 힙합계의 최강자 이동이였는데...
22. 이태훈 이동이의 현란한 플로우에 현혹된 정주원! 비몽사몽한 가운데 갑자기 이민석이 눈앞에 나타난다.
23. 이현규 이민석: "야, 니 내 애인해라." 정주원: "하... 진심인 거냐..."
24. 함석현 정주원은 끝내 이민석이라는 유기 생명체가 가지는 훌륭한 플로우와 산업공학에 대한 매커니즘에 매료되고 만다.
25. 홍상원 그렇게 성탄절의 밤. 차가워지는 정주원의 잠자리에서 이민석은 안경을 벗게 되고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시작되었다.
26. 황정후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정주원은 악몽에서 빠져 나왔고, 이민석 대신 힙잘여(힙합 잘하는 여자)를 찾아 나서게 된다.



2학년 5반
이형주 선생님

!



10년이 지나도 계속 될 나만의 '꿈'이 있다면?

1. 김선혁 세계 20여 곳에서 한 달 이상씩 살아보기
2. 김세현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3. 김일환 나와 내 가족만의 집 갖기
4. 김재형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
5. 김종은 가르치는 사람 되기
6. 남건우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기
7. 노현우 유럽여행 가서 EPL 관전 및 호날두와 기념 촬영
8. 문수현 자유 찾아 떠나기
9. 박 진 착한 사람 되기
10. 배성준 세계로 먹방 여행 다니기
11. 서준호 외국 돌아다니면서 간호사 생활하기
12. 송영승 우주 가기
13. 안재관 전 세계로 먹을 거 찾아다니기
14. 유지훈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 떠나기
15. 윤재웅 이우진 결혼시키기
16. 윤형준 세계여행 하며 각종 축구리그 직관하기
17. 이관경 아프리카TV 유명 BJ 되기
18. 이우진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19. 이진섭 1년간 돈 걱정 없이 여행하기
21. 주형진 행복하기, 세계일주 떠나기
22. 최경기 좋은이 사람 만들기
23. 최재웅 중국 대륙 일주
24. 황태련 담배 입에도 대지 않기





2학년 6반
김민희 선생님

우리 6반 아가들♥
일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랑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끝이 아니다.
보고 싶을 거야♥ 온 마음으로 응원할게!



지난 2년간의 하늘고 생활 중 가장 자랑스럽거나 행복했던 기억은?

2. 김상민 주말에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다음날 12시에 일어났던 일
3. 김성재 시험 끝난 컨퍼 때 애들이랑 밤새서 12시간씩 놀았을 때. 그리고 집에서 집밥 먹었을 때.
4. 김수현 그녀를 처음 본 순간
6. 박주성 학교에서 몰래 응팔 마지막회 보고 감동받았던 것
7. 박형규 역시 301호 친구들(유지훈, 이관명, 허원영)과 Do-1-팸(유지훈, 현수연, 성현아) 같은 친구들을 얻은 게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다 ㅎㅎ
8. 신병수 그를 보는 매일매일
9. 심규성 편입에 성공한 것과 체육대회 끝나고 들어온 컨퍼 마지막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생겼고 그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
10. 윤성현 시험기간에 친구들이랑 밤냈을 때
11. 이병학 지금 이 순간
12. 이진규 318호, 찬혁이, 민철이, 성재랑 같은 방 된 거랑 방에서 윤범이, 정훈이, 민철이가 랩하는 거 들었던 거
13. 이현우 그녀를 보는 매일 매일
14. 임채환 수학 수업을 매일 매일 들을 수 있었던 일상
15. 정지우 수학여행 때 주호쌤 방에서 놀았을 때 (ㅋㅋㅋㅋ)
16. 조원형 도서부에서 탈출했을 때
17. 조형근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가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했을 때!
18. 진시영 입학할 때 장학금 받았던 거
19. 최승민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족살, 치킨, 라면, 피자, 햄버거 먹었던 거
20. 최종인 올해 동아리 기장 맡으면서 후배들,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 들었을 때
21. 최철은 작년 학술제 때 처음 강당 무대에 섰을 때
22. 탁경현 IIP실에서 새벽 2시30분까지 의수 만들었던 기억, 하임을 통해 소중한 친구들을 얻은 것, 선배를 마주했을 때
23. 허원영 모든 친구들이 다 소중한지만, 유지훈, 박형규, 이관명과 함께 했던 기숙사방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로 인해 자랑스러운 친구들을 얻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줄 때 가장 행복했다.





2학년 7반 김지연 선생님

멘탈은 강하게.
오뚜기 같은 자세로 1년만 버티자.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 소설

1. 김세민 인천하늘고등학교 A동 2층.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탕비실 맞은편 교무실에 그녀가 앉아있다.
2. 양지은 커다란 눈에 우아한 자태. 그녀의 이름은 칸의 여왕 전도연이 아닌 김지연이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전도연을 닮은 자신을 바라본다.
3. 권영성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놀란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4. 권재민 비명소리의 주인공은 탕비실에서 물레 라면을 끓이다 냄비를 엮은 박지연이었다.
5. 김시영 엮어진 냄비에서는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준다던 냄비의 요정 지니 정주원 쌤이 나타났다.
6. 김시연 "라면을 엮다니! 이런 불경한!" 지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냄비를 엮은 지연이에게 마법을 걸었다. 그런데 그만 계산 실수로 이름이 같은 김지연 선생님께 마법을 걸어버리고만 것이다.
7. 김연중 지니 정주원 쌤의 마법으로 지연 쌤은 지옥의 형벌인 '바퀴벌레'의 자세로 몸이 굳어 버렸다. 그때부터였다. 지연 쌤을 구하기 위한 2-7의 모험이 시작된 것은!
8. 김지은 지니 정주원 쌤은 마법을 풀려면 2-7 친구들 중 공감한 영웅 1명이 자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박지연 그때 박지연은 "2-7 친구들은 하나라서 한 명만 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가야 한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
10. 박화련 하지만 박지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지니 정주원 쌤은 자신의 취향대로 운영화를 영웅으로 발탁했다.
11. 서지린 운영화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이 빨개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줍게 말했다. "억ㅋㅋ 지연 쌤 구출,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2. 조현수 그때부터 담임 쌤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하는 영화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분노가 마법을 풀 수 있을 거야!)
13. 송현아 기숙사에서 불닭 먹기, 교실에서 불닭 먹기, 탕비실에서 불닭 먹기, 운동장에서 불닭 먹기, 자면서 불닭 먹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닭 먹기.
14. 손영진 치킨닭다리, 볶음진짬뽕, 감동란, 급식은 기본, 핫후라이드치킨, 푸딩, 뽕피첼로, 핫바, 피자호빵 썰 새 없이 음식이 들어갔다.
15. 양은진 그때,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니 또 먹나?!?!(매우 빠르고 격앙된 경상도 사투리로)"
16. 오유리 너무 많이 먹은 영화는 배에서 신호를 느꼈고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다. 영화 알, "피뽕눈물~♪♫(운영화 어록 중 발체)"
17. 원다희 영화가 피뽕을 싸자 선생님의 팔다리도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18. 윤영희 영화는 김유정을 본받아 치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ππ
19. 이민영 지연 쌤은 큰 분노에 힘입어 저주가 풀려버렸고 사라진 영화를 찾기 위해 지니 정주원 쌤을 찾아갔다.
20. 이상지 지연 쌤에게 영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주원 쌤은 딸 같은 영화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며 불닭 100개와 돼지머리로 제사를 지내 영화 혼령을 소환했다. "불닭디바비디부! 영화 나와라!"
21. 이소희 그 순간 어디선가 "피뽕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영화가 등장했다. 영화가 한 첫 마디는 감동적이게도 "지연 쌤은?"이었다.
22. 이수연 "내 요 있다." 지연 쌤이 말씀하셨다. 그러자 상숙 쌤이 나타나셔서 "영화 기숙사 불닭으로 벌점이에요" 하시자 지연 쌤은 매우 화나셔서 다시 부들부들 떨리시기 시작하는데...
23. 이승미 부들부들 떨리는 지연 쌤을 본 영화의 영혼은 놀라 화장실에 널브러져 있던 자신의 몸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영화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24. 전민지 그러나 부들부들 떨리던 영화의 몸은 불닭의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영화의 영혼을 튕겨내기 시작했다.
25. 정은비 지연 쌤은 튕겨나온 영화의 영혼에게 "빨리 들어가라!"라고 혼내시며
26. 조율이 종례를 하시러 2-7 교실로 들어가셨고 저주에서 완전히 풀린 쌤을 보며 우리는 기뻐했다. 그때 지니 정주원 쌤이 들어오셨는데
27. 최예린 "야, 박지연 어딤어. 박지연 나와!" 지연이는 새빨개져서 앞으로 쭈뼛쭈뼛 나갔다. 정주원 쌤은 지연이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다.
28. 최한빛 지연이는 세계의 모든 남자들을 자신의 남편으로 만들어달라는 소원을 말했고 지니 정주원 쌤은 "그렇게 해줄 테니 일단 살 빼는 한약부터 먹어!"라고 하셨다.
29. 현수연 그 말을 들은 지연이는 즉시 한약을 먹었다. 그런데 그 한약은 지연이와 맞지 않았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살이 더 찌고 말았다.
30. 황정민 과연 지연이의 남자 정복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To be continued...



2학년 8반 이현주 선생님

우리 2학년 8반 30명과 함께한 2016년은
 참 따뜻했고 든든했고... 너무 빨리 지나갔네.
 쌤에게 잊지 못할 한 해를 만들어 준 우리 반에게도
 의미 있는 한 해였기를.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 소설

1. 강지수 미국의 들판을 뛰어노는 까무잡잡한 소녀가 있었어요.
2. 공의진 소녀는 영어를 꽤 잘했지만 자신이 영어 선생님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3. 구연림 소녀는 양이 뛰노는 알프스를 보며 그림을 그리곤 했지요.
4. 김규서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한국으로 납치당했어요!
5. 김귀윤 한국이 고향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소녀는 낯선 언어와 사람들에 벌벌 떨었지요.
6. 김나은 소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7. 김나현 그래서 소녀는 머리카락을 무지개색으로 염색하고 피어싱 10개를 하며 골목대장 쥬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8. 김아현 골목대장 쥬쥬가 되기 위해서는 피구를 잘해야만 했어요. 때문에 소녀는 피구왕 통키가 되었어요.
9. 김희중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골목대장 쥬쥬가 되었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죠.
10. 박예은 골목대장 쥬쥬 생활에 질린 소녀는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때마침 전단지 한 장이 소녀의 발 앞으로 떨어졌어요.
11. 박은지 전단지에는 Bricks 영어학원에서 강사를 모집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학원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12. 박혜린 무언가 많이 필요했지만 소녀의 무지개색 머리와 옆에 끼고 있는 피구공을 보고 겁을 먹은 학원원장이 소녀를 학원 대표강사로 뽑았어요.
13. 박호인 소녀는 미국경험을 바탕으로, 문법 담당교사가 되어 활동했고, 몇 년 후 전치사 명강사로 대치동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14. 정세현 어느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황무지 속에 있는 학교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학교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15. 심재은 마침내 그녀는 꿈속에서 본 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의 문을 열었어요.
16. 안지현 쥬쥬는 하늘고등학교 2-8 담임 선생님이 되어 '쌔뽕하게' 학교생활을 했져~
17. 오은미 쥬쥬는 학생들이 '어줍잖아~니' 행동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18. 원유빈 학생들이 계속 '갈잡게' 행동하자 쥬쥬는 화가 나서 비타민을 먹도록 시켰어요.
19. 이미선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쥬쥬는 블랙라벨 문제를 내며 '짹짹' 피구 연습을 했어요.
20. 이세령 시험이 끝나고 시험 결과를 봤는데 학생들이 블랙라벨 지문만 틀렸어요. 그래서 화가 난 쥬쥬는...
22. 이하늘 '꿀값도 꿀 나뭇'이라는 명언을 하며 공부를 그만 두고 피구 대전을 시작한다고 선포했어요.
23. 임소현 쥬쥬가 공을 잡자 모든 학생이 도망가느라 급급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쥬쥬 앞에 쥬쥬를 대적해낼 (조)현주가 등장했어요.
24. 전아영 이렇게 강력한 상대를 처음 만나 (세계)지리고 말았어요).<
25. 정경린 그렇게 잠깐 쥬쥬가 방심한 틈을 타 현주가 엄청난 힘을 담아 공을 던졌어요.
26. 정희원 현주의 불꽃같은 쥬쥬의 옆구리로 날아갔고 쥬쥬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쥬쥬의 품속에는 항상 블랙라벨이 있었고, 쥬쥬는 블랙라벨을 품고 "너 그럴 거면 이름 바꿔"라는 유언을 남긴 채 영원히 잠들고 말았어요.
27. 조서현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을 힘들게 했던 쥬쥬는 주작신의 벌을 받아 도깨비가 되었고, 그녀의 품속 블랙라벨의 답지를 갖고 있는 도깨비신랑만이 불멸의 삶을 끝낼 수 있었어요.
28. 조현주 몇 백 년 뒤, 931살이 된 쥬쥬는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자 빗길에 산책을 하던 중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어요. 도깨비신랑은 쥬쥬의 첫사랑이었어요.
29. 하유진 쥬쥬가 너무 기뻐 전국 꽃이 모두 활짝 피었어요. 도깨비 신랑이 말했어요. "쥬쥬야, 우리 쥬쥬꽃은 겨울에도 활짝 피네 ^o^ 오빠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30. 한민서 그러자 쥬쥬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31. 홍현정 쥬쥬는 항상 2-8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2-8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빈칸 문제를 들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딱 한 마디를 했어요. "coming soon"



3학년 1반 배성규 선생님

묵묵히 목표를 향해 노력해 온 우리 1반 아이들아,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그간 우리들의 공간에서 다양
한 경험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었으리라 믿는다.
아무튼 빨리 커라. 샘이랑 소꿉잔 기울이며 시대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소설

1. 김대유 수업이 한창인 교실, 쌤은 "허허허, 내 첫사랑은 말이지..."
2. 김성년 "우리 반에 있단다." 쌤은 머리를 긁적이며 붉어진 얼굴로 수줍게 말했다.
3. 김영웅 쌤은 "내 첫사랑은 바로..." 하시며 갑자기 숨을 헐떡이더니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
4. 나일호 아이들은 선생님의 상태보단 첫사랑이 누군지 더 궁금해했다.
5. 문규성 그러던 중 우리 반 2학기 반장 소윤이 선생님의 소맷자락에서 유언장을 찾아냈다. 윤은 스윽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6. 박종성 그때, 수업이 끝남을 알리는 종이 쳤고, "점심시간이다!"를 외치며 뛰쳐나가는 규성이를 필두로 교실에는 윤만 남게 되었다. 점심을 먹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윤은 성규쌤의 손을 잡은 채 옆에 쓰러져 있었다.
7. 박주영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8. 박진우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라고 사회자 김성년이 말했다.
9. 소 윤 성규쌤이 씨익 웃으며 일어나 유현승을 쓴 뒤 "선생님, 오늘 술 많이 마실 거야! 허허허"라고 하며 술을 마시러 가셨다.
10. 유현승 "쌤, 저도 같이 가요." 그렇게 대학생 유현승은 성규쌤과 함께 나가버렸다.
11. 이다원 현승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12. 이진우 현승이는 만취가 되어 길바닥에 쓰러졌다.
13. 이찬빈 현승이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걸 확인한 성규쌤은 그제서야 안심한 듯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첫사랑은 말이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돌을 찾아 나섰던 윤이 엿듣고 있었다.
14. 전승환 맨입엔 못 알려주지~ 맥주 한 병이랑 노가리 사주면 일단 먹으면서 생각해 볼게~
15. 정구윤 현승이와 성규쌤이 술을 거하게 마신 후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성규쌤이 말했다. "사실 김원석이야"그렇다. 김원석 선생님께서 우리 교실 빗자루함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다.
16. 정승원 그 이야기를 들은 현승이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쌤! 왜 저는 안 되는 거죠?"
17. 정유찬 그때 이야기를 엿듣던 소윤이 울먹이며 뛰쳐나왔다. "선생님, 거짓말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18. 조완희 "여기 유언장에 첫사랑은 저였다고 적으셨잖아요!" 원석쌤, 소윤, 유현승... 스스로를 첫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세 사람. 성규쌤의 정신이 아득해졌다.
19. 조우현 "나의 첫사랑은!....." "여보! 일어나요!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20. 함승현 (땡땡) 17번 다음 대화를 듣고 성규쌤의 올바른 배우자를 고르시오.



3학년 2반 송남영 선생님

처음 교사를 시작했을 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생각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힘들고 어려웠던 고3 생활이었지만 이 또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잘 간직해 ^^ 나는 우리 반이 만들어 준 생일 포토 판매기 잘 간직할게!



졸업 후에도 계속될 당신만의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강다영 전 세계 언어!...까진 아니고 5~6개 국어 능통하게 하고 싶다.
2. 고은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경영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청렴! 이 마음, 다짐이 변치 않길♡
3. 고주은 뉴욕패션위크에 참가하고 싶다.
4. 김두리 심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돼서 앞만 보고 달리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꾸준히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
5. 김수현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최대한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직업군에서 일할 것이다♡
6. 김태연 안나 원투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젠가는 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이 최종목표!
7. 문 빛 항상 더 나은 '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인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8. 문하영 공간디자인을 정말 꼭 하고 싶다! 그림 배워서 삽화도 그릴 거고, 외국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울 것이다. 바쁜 20대가 되길.
9. 박소민 전국일주와 세계일주를 해보고 싶다.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워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이다.
10. 박소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체험하고 싶다. 특히 여행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우고, 느끼고 싶다.
11. 박정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다.
12. 서예인 덜도 더도 말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
13. 송경화 힘든 사회, 힘든 삶이지만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줄 수 있는 미디어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
14. 송은서 열정 가득한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다! 나를 만난 아이들이 꿈을 찾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
15. 위하영 전 세계인들이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16. 유예린 영화다운 삶을 살겠다. 타이타닉을 잊지 말자.
17. 유채린 언제 어디서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나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8. 이소정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해외여행♡
19. 이수민 내 자신에게 당연한 내가 되고 싶다. 사람들을 만나며 많이 배우고, 알려주며 서로 어우러져가는 삶을 살고 싶다.
20. 이수빈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나만의 음악으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이랑 타협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하고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21. 이은비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 나 때문에 제대로 쉬신 적이 없는 것 같다πππ
22. 정유연 어린 왕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것을 쫓고 싶다.
23. 정지윤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 모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국선변호인이 되고 싶다. 짱짱 멋있다. 꼭 이룰 거다.
24. 최인서 위에 있는 꿈들처럼, 나뿐만 아니라 2반 아이들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3학년 3반
김민수 선생님



지난 3년 동안의 기억 중 가장 인상깊었던 기억은?

1. 구서현 꿈을 꾸는 우리 반,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
2. 김민우 을씨년스럽던 그날들 다 헤치고 이젠 행복한 일만 남았다!
3. 김보현 향기로운 우리 반 냄새 ㅋㅋㅋ 지독해도 우리 반 짱!!!
4. 김선민 한마음으로 다 같이 잘 되기를 빌며 울고 웃었던 하루하루 다 행복했고 기억하고 싶다.
5. 김세정 비오는 날
6. 김채영 상상한다. 모든 것을 등지는 그날. 면학시간, 밤을 보러 나왔던 교실 테라스와 구름 다리에서 고3이 끝나기만을 빌었던 추억.
7. 박보영 세상에 나서기에 내가 한없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던 모든 순간.
8. 박영주 상상도 못할 기쁜 일과 힘든 일이 많았던 고3, 3반, 민수 쌤, 룸메들 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9. 백윤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하지만 잊지 못할 추억들 고이 간직하고 싶다.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하여 배울 게 많았던 3년.
10. 송민지 움트길 기다렸던 시간들. 우리가 가진 꿈이 자라길 상상하며 힘들고 지친 서로를 위로하던 시간.
11. 송지영 직진만 하며 달려온 고딩생활. 목표와 마음가짐에 따라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친구들과 함께여서 행복했다.
12. 신주화 이 나이에 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13. 심하영 는적대는 침을 흘리며 치킨을 지켜야겠다는 사명 하나로 달렸다. 생활관 선생님을 등지고, 계산하는 친구를 버리고.
14. 안혜민 열매를 맺었을까, 잃었을까
15. 유수빈 정나미 많은 친구들과 보냈던 순간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고, 모든 친구들에 관련 된 기억들이 마음에 남을 것 같다.
16. 이세린 도와주고 희생하며 서로 배려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힘들었던 순간들마다 친구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17. 임수현 전투시간과 생활관 몰래 처음으로 시켜 먹었던 치킨. 그날 밤 룸메랑 둘이 체했던 기억이네요 생활관 선생님, 매실차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18. 임하연 을추잡자 같고 바빠 움직이는 하늘고 생활 중에 민수 쌤과 했던 상담을 가장한 두 시간의 수다! (너름 인생교육?ㅋㅋㅋㅋ)
19. 정다혜 즐겁게 치킨을 받으며 돈을 내밀었지만 그 옆으로 보이는 생활관 선생님의 모습, 뒤를 돌아봤을 때 친구는 이미 저만치 달리는 중, 배신자!
20. 차하은 기다리는 그 순간이 행복했다. 시험 끝나기 직전, 컨퍼 나가기 직전, 수학여행 가기 직전, 기타 등등!
21. 최예슬 는다는 믿음 없이 힘들어했던 순간, 옆에 있는 친구들 덕에 웃을 수 있었다.
22. 최현정 배부르게 먹었던 스페셜 데이!
23. 하수빈 움찔거리는 순간 이미 늦은 것이다. 열라 달려야 한다. 내 밥!
24. 황지은 터널같이 길었던 3년 동안의 시간들 전부 다.

☆ 첫 글자만 따서도 읽어주세요~☆



3학년 4반 최정우 선생님

유난히도 올해는 수시합격도 많았고 재수도 많은 것 같다. 축하와 격려를 동시에 주고 싶다. 건강하고, 즐겁고, 신나게, 행복한 스무살 맞이하렴.
나중에 기획 되면 맘O터O에서 싸O버거 같이 먹자!



하늘고를 졸업하면서 남기고 싶은 자신만의 명언이 있나요?

1. 강남욱 뭘 하든 즐거우면 그만
2. 강수완 보편성의 폭력
3. 강여명 지금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병신과 천재는 한 곳 차이다.
4. 김민규 99도의 물은 단지 뜨거운 물이지만 1도만 더하면 기차와 배도 움직이는 수증기가 된다.
5. 김병노 멍청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로 나는 멍청하다)
6. 김영욱 주목 받는 삶을 추구하자. 초아우생은 옳지 않다.
7. 김인성 기회에서 불가능을 찾지 말고 불가능에서 기회를 찾아라.
8. 김창준 국가 권력의 본질은 폭력이며, 국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9. 김현민 꿈을 꿔다면 움직일 땐 움직여, 바로 지금이 다음 장을 써내려가는 출발 신호.
10. 김호찬 권선징악
11. 명인선 살다보면 악할 필요도 있는 법이지.
12. 문형섭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살자.
13. 박규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14. 박정완 농구할 사람??
15. 박준혁 매우 사소한 일, 경험 등조차도 과거와 미래와의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극한의 궤환(Feed back)이 뒤따라옴은 불가피한 필요충분조건이다.
16. 백승훈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17. 서준혁 우리나라를 바꾸는 사람이 되자.
18. 신창준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느는 법이다. 정직하게 살자!
19. 오상현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20. 이민철 인생무상. 신창준의 말은 틀리다. 자주해서 연습해야 한다. 세상은 거짓말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21. 장선재 도와주기는 못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자. (그렇다고 방관만 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22. 장인후 끌리는 대로 살자. 그러다 망하면 공무원 시험 보자.
23. 장재운 선택을 옳게 만드는 것을 그 선택 자체가 아니라 선택 이후의 행동이다.
24. 전동현 헛소문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다.
25. 정민기 근묵자흑 + 네 주제를 알라 +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낮은 것은 복수이다.
26. 조용완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떠나갈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있을 때 잘해라 친구들아♡
27. 천금환 말 잘하면 흥하고, 말실수하면 망한다.
28. 최승환 생각하는 대로 후회 없이 행동하자!
29. 최혜성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30. 추교영 시도해보지도 않고 불가능이라 판단하지 마라.
31. 황인혁 착하게 살자.



**3학년 5반
김원석 선생님**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매순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못할 원석쌤의 말말말! (원석쌤 어록)

1. 김교인 자 눈감아라. 솔직히 술 마신사람 손들어라.
2. 김민욱 니가 아마 서울대 역사상 최초일거다.
3. 김범철 (수업시간 중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혀를 차며) 딱.딱.
4. 김성학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5. 김승진 지금 반항하는 거니?
6. 김의연 너네 뭐하니?!
7. 김정현 지금 성적은 2주일 전 분위기를 반영한다.
8. 김준석 어, 안 돼.
9. 김진현 got it?
10. 김태양 내가 고3 때 여자 복이 터졌다. 3명 정도랑 관련이 있었다.
11. 민승용 고개 들어서 여기 본다.
12. 박성진 알겠\조?!
13. 박용제 난 너희에게 재수를 허락한 적이 없다.
14. 성승우 내가 재수를 해봤잖아. 굳이 재수해서 인생을 배워야 할 필요 있나?
15. 송승원 다른 건 몰라도 서술형 점수가 곧 반 분위기다.
16. 송일한 일어나라
17. 신준용 옆드려 있는 사람 바로 깨웁니다.
18. 여시명 점심은 3분의 2만 먹는다.
19. 오운석 자, 여기 성균관대학교 논술자료집에 보면 내 이름이 있다. 하하하, 그래 내 자랑 하려고 보여준 거다 ㅎㅎ
20. 윤동규 연애하니?
21. 윤성하 자, 오늘의 Rising Star는 ○○다.
22. 이용훈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23. 이정현 너희들이 이런 결과 낼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
24. 이주형 이건 민연쌤한테는 말하지 마라.!
25. 이준엽 여태까지 담임을 맡았던 반 중에 우리 반이 제일 좋다.
26. 이창호 (D-15일 때) 지금부터는 날짜 세는 게 의미 없다.
27. 정대호 자, 다들 자리에 앉아라.
28. 정태수 자, 고개 들고 여기 봅니다.
29. 조한빈 자, 오늘 청소 누구니?
30. 최효범 스트레칭 하고, 몸 좀 풀자.
31. 황상민 자리에 없는 사람 누구니?



3학년 6반 이지혜 선생님

올 한 해 공부하랴, 간간한 담임 눈치 보랴 정말 고생했다. 쌤이 너희들에게 늘 고마워했던 건 알지 몰라? ㅋㅋ 3기 졸업생들에게 너희 자랑만 하다가 개들이 빼졌었다구 ㅋㅋ 1년간 내 말 잘 따라줘서 고마웠고, 너희 앞날이 늘 찬란하기를 빈다. 6반 파이팅!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소설

- 오늘은 29공주의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가 지혜노예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혜노예야, 지혜노예야"
 "조승우 왕자님께서 도착하셨대! 지혜 노예는 어디간 거야?!"
1. 강예나
 2. 강찬주
 3. 김기림
 4. 김락경
 5. 김수빈
 6. 김아연
 7. 김유경
 8. 김유림
 9. 김유빈
 10. 김하린
 11. 김혜현
 12. 남윤아
 13. 류진하
 14. 문채영
 15. 박담인
 16. 박민선
 17. 배혜연
 18. 서정연
 19. 신예나
 20. 양현주
 21. 이규배
 22. 이도경
 23. 이문영
 24. 이하은
 25. 정나리
 26. 정다현
 27. 정하은
 28. 정혜지
 29. 허우림
- 이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몰래 마차에 오르고 있는 지혜노예의 모습이 창밖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 마차는 포장마차였습니다.
 이 광경을 발견한 공주들은 앞다투어 포장마차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공주들이 달려오는 것을 본 지혜노예는 "뭐야 이 거지들은"하고 어묵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공주들은 굴하지 않고 지혜노예에게 달려가며 날아오는 어묵들을 모두 받아 먹어버립니다.
 공주들이 부드럽고 담백한 어묵의 맛에 사로잡혀 황홀한 미소를 짓는 틈을 타, 지혜노예는 포장마차를 타고 도망칩니다.
 지혜노예는 여유롭게 도망치고 있었지만, 갑자기 포장마차에 날개가 돌아나더니 지혜노예를 알 수 없는 곳에 내 려놓았습니다. 그곳은
 노예시장이었습니다. 지혜노예는 침착하게 근처의 I.O.I 사이에 섞였습니다. 물론 전혀 티가
 났지만 아랑곳 않고 '너무너무너무'노래에 맞춰 몸과 마음을 힘껏 출렁였습니다. (☆숨겨왔던 끼 대방출☆)
 아무도 안 샀습니다.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먼지들이 감히..." 화가 난 지혜노예는 비장의 무기 '사랄라 요술봉'을 꺼내들었습니다.
 "너희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고 하며 노예시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누구를 정의의 이름으로 벌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혜노예는 왕자님께 자신을 감매시키기 위해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지혜노예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를 보니 포장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29공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주들은 다 혀를 어묵 고치물로 어묵선을 제작하여 지혜노예를 간신히 따라잡았지만,
 29공주의 3년 동안 쌓아 놓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묵선이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지혜노예에게 누군가 손을 내미는데
 "괜찮아요? 닳아 붙었죠?" 그는 조승우 왕자였습니다. 그의 손을 덥석 잡은 순간,
 발에는 LED찌리와 머리에는 밀짚모자, 목에는 플라로이드가 걸리며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비장의 무기 '사랄라 요술봉'의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람이 울렸고, 그녀는 △△건전지를 사 기 위해 뛰어가던 중, LED찌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LED찌리를 주운 조승우 왕자는 그녀에게 주려고 했지만 이미 그녀는 건전지를 사러 뛰어가 보이지 않았 습니다.
 "돈도 없이 무슨 건전지를 사겠다는거야!!" 조승우 왕자는 소리가 나는 곳을 재빨리 뛰어갔습니다.
 당황한 지혜노예는 조승우 왕자에게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먼지 같은 게!" 라고 호통치자, 그 순간 그는 진 짜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란 지혜노예는 20년 노예경력에 본능적으로 먼지를 쓸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혜노예는 노예가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고 먼지를 품에 안은 채 29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공주들을 찾던 중, 지혜노예는 부서진 어묵선을 발견하고는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놀랍게도, 지혜노예의 예상과는 달리, 수중 에어로빅으로 살을 빼고 '더욱' 예뻐진 29공주들이 지혜노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에어로빅 복장은 조금 충격적이었지만, 지혜노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함께 수 중 에어로빅을 하였습니다.
 기쁨에 찬 나머지 살이 빠지는 것도 모른 채 에어로빅을 하던 지혜노예는 어느 순간, 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9공주들은 지혜 먼지가 조승우 먼지를 만나 먼지 덩어리가 되는 모습을 보며 슬픔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학년 7반
심주석 선생님

1년 동안 심쌤의 딸 하느라 힘들었지. 난 정말 행복했어. 이 행복에서 깨지 않고 영원히 잠들고 싶단다. 어디 가서든 딸로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들 맘껏 펼치고 살렴! 팔순 잔치 기다리고 있을게! (살아있다면)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소설

- 스트레스가 많은 고3 주석이는 길을 가다가 공을 주웠다.
1. 강소영 주석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공을 먹었다.
 2. 고나영 공은 주석이의 몸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고 예민한 주석이는 외쳤다. "가만히 있어!"
 3. 구지윤 어느 날 머리가 간지러워 긁어보니 새싹이 돋아 있었다.
 4. 김가현 그것은 광합성까지 가능한 최첨단 '새싹 헬리콥터'였다.
 5. 김다혜 세계일주가 꿈이었던 주석이는 '새싹 헬리콥터'를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6. 김덕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새싹 헬리콥터'의 존재를 알리던 그에게, 어느 날 UN에서 연락이 왔다.
 7. 김세희 "당신을 세계○○법 위반으로 구속합니다." 철경철경. 주석이는 초고층빌딩 감옥에 수감되었다.
 8. 김윤영 감옥에 갇혀있던 주석이는 외로워서 가슴에 품고 있던 자신의 사진을 천장에 붙여놓았다. 갑자기 천장이 열리며 빛이 쏟아져 내려왔다.
 9. 김지민 빛을 받은 프로펠러는 머리에서 떨어져 쭈욱 자라났고, 옥황상제의 똥구멍을 찌른 콩나무가 되었다.
 10. 김하은 콩나무를 빼자 옥황상제의 똥구멍에서 피가 흘렀고, 이에 노한 옥황상제는 콩나무를 기른 주석을 불러 들었다.
 11. 김한주 주석이는 옥황상제의 똥구멍에 난 피를 닦아줘야 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의 똥구멍에서는 향기가 났다.
 12. 류희조 믹스커피향이였다.
 13. 성현지 피를 다 닦아준 주석에게 감동하여 옥황상제는 초고층 빌딩을 탈출할 3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14. 안윤영 그 중 하나는 주석이의 주특기인 '아재개그로 옥황상제 웃기기'였다.
 15. 오정인 "이상하면 치과가." 그 말을 들은 옥황상제는 그만 얼음이 되고 말았다.
 16. 유현아 신하도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녹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석 "나도 무서워..."
 17. 이수빈 그때 주석의 눈에 땀 것이 있었다. 바로 연기의 온도가 100℃인 구름이었다.
 18. 이유민 주석이는 100℃ 구름을 종이에 말아 얼음이 된 옥황상제를 향해 후 불었는데 그것은 도넛 모양이었다. 어디서 많이 해 본 듯한 고3 주석이의 솜씨였다.
 19. 이은비 갑자기 도넛 모양의 연기가 커지더니 주석이를 태워 천상계의 빛이라 불리는 '대고니 집밥'으로 향했다.
 20. 이주연 갑자기 종소리가 들리더니 뒷문에서 동갑내기보이는 29명의 선녀들이 뛰쳐나와 주석이를 추월해 대고니 집밥으로 향했다.
 21. 이진희 점심 시간을 기다리는 물소 떼 같이 건실한 그들이었다. 화가 난 주석이는 분필로 구름에 원을 그렸다.
 22. 이채린 그러자 한 명씩 선녀들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때 마지막까지 버티던 수빈 선녀가 주석이의 옷자락을 잡으며 "아앙"하며 떨어졌다.
 23. 이하영 이렇게 모두는 지상으로 떨어졌다. 대고니 집밥 영종점이었다.
 24. 전정은 대고니 집밥의 셰프 추천 메뉴인 오므라이스에는 익숙한 공이 많이 들어있었다.
 25. 전효정 알고 보니 셰프가 주석이를 애타게 찾던 옥황상제였다. 주석이에게 노한 옥황상제는 주석이를 발로 차 말레이시아로 보냈다.
 26. 조서연 말레이시아에 날아간 주석이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낚시를 하기로 결심했다.
 27. 한운지 낚시터에서 만난 선녀에게 말했다. "넌 내 낚시 바늘에 걸렸다."
 28. 홍기림 선녀가 매혹적인 웃음을 지으며 "미끼만 먹고 갈 수도 있죠."라고 하자 주석이는 "상처는 남을 걸?"이라고 말했다.
 29. 홍수지 주석의 멘트에 반한 선녀는 주석이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3학년 8반 서연희 선생님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를 나무타기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형편없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Albert Einstein
선생님이 전에 칠판에 붙여줬던 이 말 기억하지?
선생님은 너희의 꿈을 계속 응원할 거야 :D



담임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릴레이소설

1. 김연수 나는 서연희! 오늘의 소개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2. 김예리 혹시 근의 공식도 모르는 남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무식한 사람은 별론데…….
3. 김윤서 (또각 또각 또각 또각) 나는 경쾌한 구두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갔다.
4. 김지우 오늘을 위해 다이어트를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괜찮다! 나에겐 긍정의 힘이 있으니까!
5. 김채리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우리 만난 적 있지 않아요?” 그가 내게 처음 건넨 말이였다.
6. 김하연 ‘뭐지? 이 구시대적인 접근 style??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 신여성의 힘!’
7. 김현정 신여성이라면 첫 멘트는 가볍게 아인슈타인의 명언으로 시작해야지.
8. 나경미 영어로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헤민스님의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9. 박소현 ‘같이 춤을 추세요. 마치 내일이 지구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난 별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10. 박정은 그러자 그도 별떡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첫 곡은 역시 정열적인 탱고!
11. 백은서 첫 호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맞는 남자는 처음이야. “나랑 사귀자.” 하이파이브!
12. 서연주 근데 이 남자... 내 머리 위에 있다.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내민 손에 가위를 내다니...
13. 안재연 갑자기 자존심이 상한 나는 그에게 주먹을 날림으로써 반격을 했다.
14. 오현지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품어 온 마법의 주문을 외친다. “ $E=mc^2$!!”
15. 유다솜 하지만 주문을 잘못 외쳤다.
16. 윤소정 그러자 내 본모습으로 돌아와 버렸다. 사실 나는 서연희가 아닌
17. 이정은 요들송을 부르는 알프스 소녀 하이다.
18. 이지원 의도치 않게 드러난 내 소녀감성이 방금 전 공격을 잊게 만들 정도로 그의 마음을 움켜져 버렸다.
19. 이지현 이제 이 남자를 완전히 내 남자로 만들 것이다.
20. 이태림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눈을 마주치며 “요를레히 요를레히 요를레히히, 아요를레호~
오~호\오~호\요~호\후~아올레히~오후~요레히~리~!”
21. 이한나 자, 이제 잠에서 깨세요. 레드~션!
22. 이현재 나는 눈을 떴다. 아아, 전부 dream이었구나! 고개를 돌리자 날 깨운 남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23. 이현지 그의 미소에서는 온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다.
24. 이해연 나는 바로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그와 다른 별로 떠났다.
25. 최영산 그 별의 이름은 올림푸스. 화학 전공자인 디오니소스가 말한다. “너네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26. 최윤정 “자이징자이징자이징 휘이호~” 그와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악기를 꺼내어 연주하며 물리화학의 공식들을 흥얼거렸다.
27. 한지울 ‘ $F=ma$ ’, ‘ $PV=mRT$ ’를 부르며 그와 나는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28. 홍유라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니 하늘의 염소도 좋아서 응앙응앙 울었다고 하더라.
29. 홍지혜 siri야 이거 어떻게 끝내지?

STAFF

지도교사 김민희

2학년 교지편집장 김나현

구예림

권재민

김규서

김나예

김남진

김승일

김제아

김하은

마지혜

박세라

박주성

박효인

서정훈

서윤범

송나현

심재은

안지현

오서린

오은미

유세연

윤영화

이동이

이륜경

이미선

이만석

이병학

이승미

이우진

이주철

정준호

조영진

조형근

최종인

탁경현

한동훈

홍현정

1학년 강윤서

고은비

김서연

김수연

김유진

김지수

박동주

박주영

박지혜

손동아

신혜주

이주미

임혜민

조성현

허건민





발행일 2017년 2월 8일

펴낸이 강석운

펴낸곳 인천하늘고등학교

지도교사 김민희

디자인 및 제작인쇄 (주)동진기획인쇄

하늘나래는 인천하늘고등학교가 매년 1회 발행하는 교지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